

**제15회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연속 토론회**

**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일시 | 2012. 12. 5(수) 18:00-21:30

장소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세미나실

주최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모시는 글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토론회

새로운 교육에 대한 희망을 함께 키우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 11월 21일, 11월 27일 토론회에 이어서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연속 토론회를 「12월 5일(수) 18시」 일정으로 개최합니다. 연속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세미나실에서 뵈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 이찬승 올림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연속 토론회>

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위의 대주제 아래 다음 3가지의 소주제로 나누어 연속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 13회 : 교육 본질회복을 위해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그 방향은 무엇인가?

11월 21일(수요일) 18:00-21:30 (교바사 세미나실)

■ 14회 토론: 대학입시의 영향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공)교육 본질회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1월 27일(화요일) 18:00-21:30 (교바사 세미나실)

■ 15회 토론: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12월 5일(수요일) 18:00-21:30 (교바사 세미나실)

■ 주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www. 21erick.org)

■ 장소: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세미나실

■ 문의: 02-320-3642, taekyuny@21erick.org 김태균 연구원



□ 프로그램 안내

■ 일시: 2012년 12월 5일(수) 18:00~21:30

■ 장소: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세미나실

■ 주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 17:30~17:50 | 등록 (간이식사) | 안내 (교바사 교육정책팀) |
| | 17:50~18:00 | 입장 완료 | 안내 (교바사 교육정책팀) |
| 1 부 | 18:00~18:20 | 개회 및 인사말 |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사회자: 손민호 (인하대학교 교수) |
| | 18:20~19:50 | 발제 | 90분 (1인 30분 × 3인) |
| | | 허경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조자룡 (서울국제고 교사/ (사)전국영어교사모임 사무총장) | |
| | 19:50~20:00 | 휴식 | |
| 2 부 | 20:00~20:45 | 지정토론 | 45분 (1인 15분 × 3인) |
| | |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학윤 (수도여고 교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 |
| | 20:45~21:30 |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 45분 |
| | 21:30- | 토론회 총정리 및 폐회 | : 토론회 참여소감 나누기 : 연속 토론회 안내 |



□ 차례

I 부. 발제

[발제1] (공)교육의 본질회복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 7
 ▷ 허경철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발제2] 교육본질 회복에 기여하는 진로별 타당한 대입시 만들기
 - 고교-대학의 학습(교육) 연계로서 대입시 -
 - 학생의 진로 안내, 탐색, 유도, 준비, 개척, 맞춤의 대입시 -
..... 33
 ▷ 홍후조 || 고려대학교 교수

[발제3]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을 위한 제언
..... 69
 ▷ 조자룡 || 서울국제고 교사/ (사)전국영어교사모임 사무총장

II 부. 토론

[지정 토론1] 77
 ▷ 강태중 || 중앙대학교 교수

[지정 토론2] 83
 ▷ 김학윤 || 수도여고 교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

[지정 토론3] 95
 ▷ 김태균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I부. 1st 발제문

(공)교육의 본질회복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 허경철 ||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제15회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토론회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공)교육의 본질회복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허경철(전 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위 제목에 충실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회복'과 '교육의 불평등'이라는 말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명료화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그 의미의 한계를 나름대로 한정하고,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자마다 위 두 개념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의미의 종합이 불가능한 산포(散布)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선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불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발표자 나름대로의 의미 규정을 하고자 한다. 연후에 그러한 의미의 교육 본질을 회복하며 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완화하는데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입전형의 모습을 그려 보고자 한다.

'교육의 본질 회복'이란 용어의 의미 규정

교육이란 인간 삶의 한 영역이다. 인간 삶의 도처에 교육이란 현상이 존재한다. 특히 학교라는 사회적 제도 안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 현상이 나타나도록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기대 때문에 우리는 '교육=학교'라는 등식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상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편재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 현상의 본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학교라는 사회적 제도를 포함한 인간 삶의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교육이란 현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하여 답하는 것은 그야말로 깊이 있는 심각한 철학적, 분석적 성찰을 요구한다. 우선은 '교육인 것'과 '교육이 아닌 것'의 구분을 필요로 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교육인 것'과 '교육이 아닌 것'들이 뒤섞인 상태를 모두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성 있게 사용하려면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삶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의 가치나 내용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삶의 영역이 본질적 영역, 또는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의미의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탐구의 과정에 있는 미완의 대상인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생활에서 그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그러하다. 현재의 수준에서 필자는 교육의 본질을 '교수(가르침)와 학습(배움)과 성장(또는 발달)이란 개념들 간의 관계'로 규정하고자 한다. 우선 이 세 개념 요소 중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은 교육이란 활동이나 현상의 지향점(목표점)이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는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성



장과 발달¹⁾이라는 인간의 변화를 추구한다.²⁾ 인간 삶의 긴 역사에서 교육이라는 인간 활동이 지향하고 추구해 온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바로 교육의 본질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면 "인간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활동"이 바로 교육의 본질, 본질적 영역, 본질적 목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라고 해서 그러한 모든 성장과 발달을 교육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 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하여 교육과 구별한다. 약물의 효과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발달하는 것 역시 교육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개인에게 이루어진 성장과 발달 중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학습(배움)'으로 인한 성장과 발달만을 교육이라고 본다.

학습(배움)은 경험을 통하여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경험이 학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경험이 동일한 수준으로 학습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학습을 발생시키는 효과적인 경험은 '지도(指導)되거나 안내(案内)'된 경험이다. 지도되거나 안내되지 않은 경험은 대개의 경우 학습으로 유도되지 않아 바람직한 성장이나 발달로 귀결되지 않는다. 성장과 발달로 유도되기 위하여 지도되고 안내된 경험이 필요하다. 지도되거나 안내된 경험 중에서 지도나 안내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교수(가르침)이다. 교수 없는 학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학습은 교수에 의해서 극대화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학습과 교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성장과 발달이 교육의 본질이라면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과 교수 역시 교육의 본질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 교수와 학습 활동"을 교육의 본질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 교수와 학습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일수록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며, 그렇지 않을수록 교육의 본질에서 먼 것이다. 무엇인가를 가르치되 학생들 개개인들에게서 학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학습이 발생하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모두가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해 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볼 때 '교육의 본질 회복'이란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선 가르치기는 하되 배움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즉, 가르치되 배움이 발생하도록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한 배우기는 하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 배움의 상태를 제거하여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 발생하도록 배우게 한다는 의미이다. 종합하면 교육의 본질 회복이란 "가르치고 배우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제거한다"는 의미이며, 그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한다"는 의미이다.

1) 성장과 발달의 차이는 무엇인가? 발달 심리학에서는 성장은 양적인 증가, 발달은 질적인 변화나 상승을 의미한다. 양과 질은 독립적이지 아니라 관계적이다. 양의 증가나 감소에 따라 질적인 변화가 초래되기도 한다.

2) 여기에서 '어떤 성장이며 어떤 발달'이냐의 가치와 내용의 요소는 시대와 장소의 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게 된다. 단지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 바람직한 변화'라는 형식적인 방식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의 본질과 가치와의 문제

교육의 본질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 정의에서 '바람직한'이라는 부분이다. 어떤 성장과 발달이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사실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위의 정의는 보편과 추상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형식만 존재하고 내용은 비어 있는 공허하고 무가치한 정의가 되고 만다. 이러한 정의는 행위나 활동에 방향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에는 당연히 가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완전한 합의는 불가능하게 된다. 사람마다 집단마다 서로의 가치관에 의하여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단위 집단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 발달시켜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가치 내용을 설정,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가치 내용이 그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필자는 "전인(全人)과 공인(公人)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설정하고 싶다. 지(知)뿐만 아니라 정(情)과 의(意), 또는 덕(德)과 체(體)가 조화롭게 어울려진 전인적 능력의 발달과 함께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인적 능력의 발달을 '바람직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정하고 싶다. 이 주장은 물론 필자 자신만의 주장은 아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아직 충분히 인식되고 합의되지 못하여 강력한 실천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주장은 인간 삶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전체적으로 꿰뚫어 생각해 볼 때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로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하면서도 타당한 가치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적으로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은 집단/공동체/사회의 행복에 의존한다.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전인적 발달이 필수적이며, 사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인적 발달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인과 전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전인과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이 필수적이게 된다.

이렇게 보면 '교육의 본질'이란 1차적으로는 '전인과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모든 종류의 교수와 학습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말은 전인과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유형의 교수-학습 상황 및 그러한 교수-학습 상황을 빚어내는 모든 종류의 주변적 여건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본질과 공교육 정상화와의 관계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용어만큼 우리가 빈번히 사용하는 말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용어이다. 전자는 교육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때 사용되는 용어임에 비해 후자는 '우리나라의 오늘의 상황'이라는 맥락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논의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오늘의 한국이라는 특수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에 보다 익숙하며 친근하게 된다. 즉 우리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공교육의 정상화란 무엇을 의미 하는가'라는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대입제도의 개선이라는 문제를 논의할 때는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용어보다는 '(중등)교육의 정상화'라는 용어를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이나 '교육의 정상화'라는 말의 의미는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이 회복된 상태가 바로 교육이 정상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논리를 따른다면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가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전인과 공인의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상태가 바로 교육의 본질이 회복된 상태이며, 그러한 상태로 교육이 작동되는 상황이 바로 교육이 정상화된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을 문제시하면서 교육의 정상화를 운운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의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대개 다음의 경우로 포괄된다.

①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된 사항들이 교육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예컨대 편제에 제시된 과목이 가르쳐지지 않거나, 제시된 시간만큼 가르쳐지지 않는 경우

②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 공부보다는 학원 공부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학원에서는 공부하는 경우

③ 학교의 교육목표가 입시준비인 경우: 전인적, 인간적 교육을 무시한 채 입시준비를 교육의 실질적 목표로 삼고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④ 학생들이 방학도, 휴일도 없이 매일 밤늦게까지 오직 공부에만 전념해야 하는 경우, 그리하여 심신에 많은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⑤ 교육내용이 너무 어려워 학급 구성원 중 일부 학생들만 수업을 이해하는 경우: 즉, 학생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교육내용이 획일적이어서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는 과목을 강제로 많이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경우

⑦ 단편적인 사실적 지식들을 선다형 객관식 시험으로만 평가하여 고등정신능력을 기르는 데 소홀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위의 경우들은 그 의미가 완전히 배타적이지는 않다. 예컨대 ③ 번의 경우(전인적, 인간적 교육을 무시한 입시위주 교육)는 나머지 여러 경우와 그 의미가 겹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우리의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위의 경우들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학교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교사나 교육행정가 등)은 '국가 교육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학생들이 학교보다는 학원수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식한다. 학부모들은 사교육이 창궐하는 상황을 교육의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인식하며, 학생들은 죽어라 공부만 해야 하는 상황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식한다.

위의 상황을 뒤집으면 학교교육의 정상적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 한 국가의 교육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대로 잘 실천되는 학교교육,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교교육, 입시준비보다는 전인적 교육에 더 치중하는 학교교육, 학생들이 심각한 스



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며 가능한 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가 고려되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 선다형 시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평가방식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학교교육 등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모습을 그려볼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의 사례들 중의 어느 하나나 몇몇 사례가 제대로 실천된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인 인식이다. 예컨대 '국가 교육과정'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교육의 정상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서 충분하지는 못하다.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규정이 다 잘 지켜지지만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 등으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한마디로 교육 정상화의 의미를 위의 경우처럼 '사례'로서 정의하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교육 정상화의 의미는 교육의 본질과 관련하여 좀 더 종합적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의 본질이 구현되는 상황이라는 필자의 생각이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본질과의 관계를 기술하자면 '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교육의 본래적/본질적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다. 교육의 본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다. 교육의 본래적 목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 '전인과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 '전인과 공인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의 정상화란 교육이 전인과 공인을 형성해 내는 정도로 측정, 평가될 수 있다. 교육이 전인과 공인을 길러내는 만큼 정상화된 것이요, 거기에서 멀어지는 만큼 비정상화된 것이다."

교육 불평등의 의미

본 글에서 필자는 교육 불평등의 의미를 깊이 있게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단지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만 약술하려고 한다. 필자는 교육의 불평등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전인과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이 편파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조건"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성장과 발달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져 그 가능성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은 교육 불평등의 가장 현저한 현상이다. 교육의 과정에서 교육 내용의 수준이 일부 학생에게만 편파적으로 맞추어져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성장과 발전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사태는 과정의 불평등 현상이다. 기회와 과정의 불평등 현상의 논리적 귀결은 결과의 불평등이다. 많은 기회를 누렸으며, 적절한 과정의 혜택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하여 더욱 많은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의 불평등이다.

가능한 한 모든 개인은 전인과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특정 개인이 전인으로서의 잠재가능성을 최대로 구현하는 것은 개인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다. 모든 개개인이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 보다 넓게는 사회의 발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모든 개인들의 전인과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최대로 구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교육의 불평등 현상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과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큰 변화만 고려하여 대략 17차례나 있었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왔으나 개선의 목적이나 방향 혹은 원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된다.

- ① 대입 적격자 선발에의 기여
- ② 초중등교육 정상화에의 기여
- ③ 사교육비 경감 유도
- ④ 교육의 공공성(공정성) 제고

이러한 4가지 항목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입제도가 마땅히 수행해 내어야 할 기능으로서, 달성해야 할 목적으로서, 개선의 원칙이나 준거로서 상당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대입제도 개선의 이러한 원칙이나 방향들이 '교육의 본질 회복'이나 '교육 불평등의 해소나 완화'와 어느 정도나 유관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위의 항목에서 2번은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교육의 본질 회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4번은 교육의 불평등 완화나 개선이라는 항목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2번 항목과 관련하여 논의는 무성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4번 항목 역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선진화라는 맥락에서 논의된 대입제도 선진화의 기준들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라는 개념 범주 안에 '교육의 본질 회복'이나 '교육의 불평등 해소' 등의 개념과 관련된 논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의에서 제기된 선진화된 대입제도의 특징, 혹은 선진화의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1) 대입 모집단위별 적격자를 예리하게 변별하여 선발할 수 있는 제도

특정 대학이나 학부 또는 학과 등 대학의 모집 단위들이 자신의 특성이나 요구에 가장 적절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장치가 정치하게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그렇지 못한 제도에 비하여 선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종래의 '대학 적격자 선발'이라는 기준과 기본 의미는 동일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2) 전형의 전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보다는 타당성을 중시하는 제도

선발을 위한 평가의 전 과정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엄밀하며 객관적인 양적 자료보다는 진술문으로 표현되는 질적인 자료의 내용을 더 중시하는 제도는 그렇지 않은 제도보다 더 선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초,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제도

대입제도가 하급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제도는 정상화를 방해하는 제도보다는 선



진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유형의 대입제도로 인하여 하급학교들이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예컨대 '전인과 공인의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보다 충실하게 된다면 그러한 제도는 그렇지 않은 제도보다 선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사교육의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만일 어떤 대입제도가 대학의 입학을 위해서는 정규 학교 교육이외의 다른 유형의 교육, 예컨대 사교육을 상당정도 필요로 하게 한다면 그러한 대입제도는 그렇지 않은 제도보다 덜 선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5) 사회적 공정성(형평성)을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사회적 약자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려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그리하여 사회적 공정성 도모에 기여하는 대입제도는 그렇지 못한 제도보다 선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 응시자에게 다양한 기회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대입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면서도 편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는 그렇지 못한 제도보다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고 3 말에 오직 한번, 모든 시험 과목을 하루에 몰아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우리의 수능제도보다는 수험생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그 시기와 시험의 종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미국의 SAT 제도는 보다 선진화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7) 전형을 위한 응모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제도

대입 전형에 응모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많은 서류와 비용이 요구되는 등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응모를 위한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유발하게 하는 제도는 그렇지 않은 제도에 비하여 덜 선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현행 제도는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악의 상황에 해당된다.

8) 전형의 전 과정이 안정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대입 전형의 방법이나 과정이 매년 바뀌어 응시자들이 차기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제도보다는 기본적인 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선진적인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전형의 전 과정이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명료하여 입시 부정의 소지가 최소화되어 있는 제도가 보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3번 기준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관련되는 기준이며, 5번 기준은 교육의 불평등 완화와 관련된 기준이다. 위에서 논의된 대입제도 선진화의 기준들은 우리나라 미래의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나 원칙으로서 보다 구체적이기는 하나 8가지 기준들이 위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병렬적으로만 제시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글에서는 대입제도 개선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교육의 본질 회복에의 기여'와 '교육 불평등 완화에의 기여'여야 한다는 가정을 깔고 있다. 이 가정이 타당한 것인가는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본다면 위의 8가지 기준을 위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 것은 '우선적 순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

오늘의 대입제도는 어떠한 면에서 전인과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그러한 발달에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기 위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논의의 핵심 사항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사고는 아직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우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거친 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의 기준이 지적 영역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전인과 공인에의 발달을 저해한다. 대입 전형에 다양한 유형이 있고 다양한 전형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전형과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수능 점수이다. 내신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는 것도 핵심은 교과 성적이다. 수능과 학생부 이 두 전형 요소는 기본적으로 지적인 부분이다. 지적인 것이 거의 절대적으로 대입을 좌우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지적인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의 성장이나 발달은 염두에 둘 수가 없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은 쉽고 간단하다. 즉, 대학은 대입 선발에서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전인과 공인의 영역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발 방식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 그지없다. 대입에서 왜 지적 영역만을 강조하고 다른 영역은 소홀히 무시할 수밖에 없는가를 잘 따져보면 여러 모로 수궁이 간다. 아직까지 우리는 대학은 '지식의 전당'이라는 관념을 깊게 가지고 있다. 물론 현실은 이미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아직도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직 대학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다루는 곳이며 대학의 궁극적 사명은 지식의 생산이기 때문에 선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적 능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대입선발에서는 전인과 공인의 요소가 균등한 비중으로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되어야 한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당장은 제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안들을 탐색하고, 탐색된 방안들을 실천하는 노력들은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둘째, 지적인 영역 중에서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이 선발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수능은 기본적으로 선다형으로 되어 있다. 학생부의 내신 성적도 기본적으로는 각 교과에 대한 선다형 시험의 점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다형 시험이 지니는 교육적 효과의 한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아직 우리는 지식의 활용이나 생산보다는 지식의 암기나 낮은 수준의 이해를 위해 교육을 하고 있다. 전인의 한 요소인 지적 영역에 대해서도 마땅히 성장, 발달해야 할 수준까지의 발달을 입시가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론적인 개선 방향은 명료하고 간단하다. 앞으로의 선발에서는 고등사고능력을 선발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수능이나 내신의 성격을 그러한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역시 지난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지난 50여 년 동안 말이나 글로서는 맹렬하게 언급이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선다형은 보조적 수단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본격적인 서술과 논술, 수행평가가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수능과 내신이 진정한 의미의 고등사고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도구가 되고, 그러한 도구를 선발에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수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변화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무엇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는 그러한 종합적인 이해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 지



아직은 잘 모른다는 것. 즉, 실천이 아니라 실천에 대한 앎이 부족한 것이 근본 문제인 것이다.

교육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중에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하위 제도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행의 '9등급 내신제도'이며, 다음은 특별전형에 속하는 여러 유형의 하위 전형유형들이며, 마지막으로 서울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제도'가 있다. 각각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도까지 사용하게 될 현행의 내신제도는 기본적으로 9등급 상대평가 제도로 되어 있다. 교과별 석차를 산출하고, 산출된 석차를 그 과목을 이수한 전체 학생 수로 나누어 석차 백분율을 구한 다음, 얻어진 석차 백분율이 상위 4% 이상이면 1등급, 4% 미만 11% 이상이면 2등급, 11% 미만 23% 이상이면 3등급 등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을 매기면 9등급까지 가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한 집단의 학생들을 그들의 본래적 성취 정도와는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9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철저히 상대평가 방식이 된다. 모두가 잘 했어도 1등급부터 9등급으로 구분되며, 모두가 잘 못했어도 1등급이 있게 되고 9등급도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이 이수한 모든 교과에 대하여 9등급 석차 등급 점수가 부여되고, 이를 토대로 내신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수 교과에 대한 성취 수준이 아니라 해당 교과를 이수한 집단 내에서의 석차를 기반으로 한 현행의 내신평가제도는 심각한 약점과 동시에 강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약점은 이 방식이 석차를 기반으로 한 상대평가 제도로서 교육평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강점은 이전 제도의 문제점이었던 '내신 부풀리기' 현상을 해결한다는 점과 학교에서의 평가라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평가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방식에 의하면 대도시 좋은 지역의 우수한 학교에서 1등을 한 학생이나 벽지 낙후 지역 학교에서 1등 한 학생이나 동일하게 평가된다.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자면 도회지 우수학교에서 100명이 수강하는 수학 교과에서 1등을 한 학생이나 낙후 지역 빈한한 학교에서 100명이 수강하는 수학 교과에서 1등을 한 학생은 그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심각한 실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1등급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등급은 대입에서 그대로 동일한 점수, 동일한 실력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행 내신제도의 최대의 강점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점이다. 도회지 우수학교의 1등과 벽지의 초라한 학교의 1등을 동일하게 간주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벽지학교 학생들을 배려해 주는 제도라는 점이다. 만약 벽지학교 학생들이 도회지의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들의 성취는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따뜻한 제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을 오히려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하여 '학교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의 내신제도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행 입시제도 중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다른 제도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방식이다. 현행 전형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전형(2011학년도 기준 전체 선발 학생의 약 70%)과 특별전형(30%)으로 구분된다. 특별전형은 다시 정원내 특별전형(2011학년도 기준 전체 특별전형 중 약 70%)과 정원외 특별전형(30%)으로 구분되는데, 이 두 유형의 특별전형 모두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전형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정원내 특별전형 중 '대학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는 만학도 및 주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자녀, 소년소녀 가장, 지역할당 및 지역고교 출신자들을 배려하여 선발하는 방식도 있다. 정원의 특별 전형에는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를 위한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의 내신 제도가 일반전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라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종류의 방식들은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내신제도는 보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임에 반해 특별전형을 통한 방식들은 특수한 종류의 약자들을 특수하게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이다.

지역균형선발제도는 서울대학교에서 2005학년도부터 시행한 전형방식으로서 대학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입시방식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일단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당 3명씩 추천하게 한다. 대개의 경우 각 고교에서 최상위의 학생들이 추천의 대상이 된다. 서울대 입학처에서는 전국에서 응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는 내신 성적으로 1.5배수 혹은 2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한다. 평가가 끝나면 내신 80%, 서류 10%, 면접 10%의 비율로 점수를 환산, 합산하고 합산한 점수의 석차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수능은 2개 영역에서 2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1학년도에는 753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서울대 전체 입학생의 24%에 해당된다. 지난 5년간 대체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12학년도부터는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로부터 나타났다. 예컨대 경북 의령 여고에서는 이 방식에 의하여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었는데 그 학생은 해당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2008학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에 의하여 합격한 학생 중 서울 출신은 22%, 대도시는 33%, 소도시는 38%, 군이나 읍 출신은 7% 정도였다. 이 제도가 아니었으면 서울대에 거의 입학할 수 없는 소도시와 군과 읍의 시골 출신 학생들이 수 백 명씩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에 의하여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성적은 다른 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하여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적 불평등의 정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만큼 대입제도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도를 높여가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입시 환경은 이러한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다. 2014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새로운 내신제도는 기본적으로 성취기준³⁾에 의한 절대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한 절대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대도시 우수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A나 B등 높은 등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후지역 거주 학생들은 C나 D등 낮은 등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는 A를 받는 학생이 한명도 없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인한 잠재력의 미개발 현상이 조금도 고려 받지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서울대의 대입 방식도 사회적 공평성의 제고와는 역행하는 방식으로 기울고 있다. 서울대는 2012학년도부터는 지역균형선발제도로 학생을 선발할 때 내신 성적이 아니라 입시사정관

3) 만약 성취기준을 단위학교나 지역에서 임의로 설정하게 된다면 이전에 심각하게 발생했던 내신의 심각한 문제, 즉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다시 발생하게 되어 내신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다.



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내신 성적의 기계적 적용이 '내신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발생시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내신을 적용하지 않고 입시사정관제를 적용할 경우 소도시나 군, 읍지역의 학교 출신 학생들이 선발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질 것이다. 시행 결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시행 이전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긴 안목으로 볼 때 내신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신 적용을 폐지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으로서 '교육적 불평등 완화에의 기여'라는 원칙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신제도의 절대평가적 성격은 다른 방법으로 확보되는 것이 옳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도의 세부 운영 방식은 현행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특별전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기준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준들로 선발하는 학생 수도 더욱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 안목으로 볼 때 교육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현행의 입시제도들은 더욱 더 강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록> 2013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 전형 제도 개요

I. 개요

-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이루어짐. 수시모집 2686명, 정시모집 652명, 전체 3338명으로 약 80%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함.
- 서울대 안에서의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 모집단위에 중복지원 불가. 전체 대학의 경우 수시모집 지원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음.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됨.
- 수시모집에는 1) 지역균형전형(752명), 2) 일반전형(1744명), 3) 기회균형특별전형 I (190명)의 3가지 전형방법이 있음.
- 수시모집만 하는 모집단위가 인문자연계열 내에만 14개. 예술계열(미대, 음대)는 전체(작곡과 제외)가 수시모집만 시행함

| |
|--|
| - 인문·자연계열 |
| ·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화학부, 지구환경과학부 |
| ·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건축학과 건축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
| · 사범대학: 교육학과, 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
| ·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
| - 예술계열 |
| 미술대학, 음악대학 전 모집단위 |

- 정시모집에는 1) 일반전형 (634명)과 2)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18명 이내)의 2가지 전형방법이 있음.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모집별, 전형유형별 선발인원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모집유형 | 수시모집 | | | 정시모집 | |
|---------|------------|------|----------------------|-----------|-----------------------|
| | 지역균형전형 | 일반전형 | 기회균형특별전형 I (정원 외) | 일반전형 | 기회균형특별전형 II (정원 외) |
| 선발인원 | 752 | 1744 | 190 | 634 | 18 |
| % | 22.5 | 52.2 | 5.7 | 19.0 | 0.5 |
| 모집별선발인원 | 2686(80.5) | | | 652(19.5) | |
| 전체선발인원 | 3338 | | | | |



II. 수시모집

1. 지역균형선발 전형

가. 선발인원: 752명(전체선발인원의 22.5 %). 고교장 추천, 학교별 추천인원수 2명

나. 전형방법

- 서류평가와 면접(사대는 교직적성, 인성검사 포함)
- 최저학력기준 충족:
 - 수능4개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이 중 탐구영역에서 2등급 인정을 받으려면 탐구과목 3과목 중 2과목 이상이 2등급 이상.

다.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 서류평가:
 - 학생부
 - 추천서
 - 자기소개서
 - 학교소개서
 - 기타 증빙 서류:
 -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학내외 활동, 증빙서류는 10개(1개당 5쪽 이내)로 제한
 - 교과 이수기준 충족여부 확인 자료

| 교과(군) |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 | 예술.체육계열 모집단위 |
|--------------|------------------|--------------|
| 국어 | 20 | 16 |
| 사회(역사/도덕 포함) | 22(16) | 16 |
| 수학 | 20 | 16 |
| 과학/기술·가정 | 22(16) | 16 |
| 체 육 | 4 | 4 |
| 예술(음악/미술) | 4 | 4 |
| 영어 | 24 | 16 |
| 제2외국어/한문 | 4 | 4 |
| 합계 | 120(108)* | 92 |

- 면접:
 - 지원자 1인당 10분간 진행함. 별도의 답변 준비 시간 없음.
 -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 확인.
 -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
 - 11월 30일(금) 예정

라.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 8월 16일-7일
- 접수 후 변경이나 취소 불가
- 전형료: 65000원, 인터넷 접수료 5000원



마. 합격발표:

- 12월 8일. 입학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추가합격발표: 1차는 14일, 2차는 17일

2. 일반전형

가. 선발인원 1744명(전체선발인원의 52.2%), 인문자연계열, 미대, 음대, 사대체육과,

나. 전형요소와 배점(인문, 자연, 사범대)

- 2단계 전형
-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면접 및 구술고사

| 모집단위 | 1단계 | | 2단계 | | | 총계 | |
|-----------|---------|---------------------|------------------|--------------|--------------|-----|-----|
| | 서류평가 | 선발인원 | 1단계 성적 (서류평가) | 면접 및 구술고사 | 교직적성 인성검사 | | |
| 인 문 계 열 | 100 | 1.5배수~ 3배수 이내 | 100 | 100 | | 200 | |
| 자 연 계 열 | 100 | | 100 | 100 | | 200 | |
| 사범 대학 | 인 문 계 열 | | 100 | 100 | 60 | 40 | 200 |
| | 자 연 계 열 | | 100 | 100 | 60 | 40 | 200 |
| 체 육 교 육 과 | 100 | | 100 | 60* | 40 | 200 | |

다.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 서류평가: 위와 동일
- 면접 및 구술고사:
 - 심층적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한자 지문 활용).
 - 15-60분 답변준비시간 부여, 면접시간은 15분 내외.
 - 인문계열 사례

| 모집단위 | 평가내용 | 면접시간 | 답 변 준비시간 |
|-----------------|--|--------|-------------|
| 인 문 대 학 |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하며 영 어, 한자 등이 혼용된 지문을 활용할 수 있음 | 15분 내외 | 30분 내외 |
| 사 회 과 학 대 학 | | | |
|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 | | |
| 생 활 과 학 대 학 | | | |
| 사 범 대 학 | | | 15분 내외 |
| 경 영 대 학 | 영어 지문과 수학 문항을 활용하여 모집단위와 관 련된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함 | | 60분 내외 |



라. 모집단위별 대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및 방식

| 모집단위(계열) |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
| 인문계열 (자유전공학부 제외) |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 자연계열 (의과대학 제외) | | 적용하지 않음 |
| 예술·체육계열 | 미술대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학부, 서양화과는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동양화과, 조소과는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 | 실기포함전형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 | 체육교육과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
| | 개인종목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1개 영역 이상 5등급 이내 |
| | 단체종목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 | 체육리더십 | 적용하지 않음 |
| 음악대학 | | 적용하지 않음 |
| 의과대학 | 의예과 | 4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 자유전공학부 | | 적용하지 않음 |

○ 전형일정

- 1단계 합격자 발표: 11월 16일/입학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면접 및 구술고사: 11월 23일(금)
-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8일
- 1차 추가합격자 12월 14일, 2차 추가합격자 12월 17일

3.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I

가. 선발인원 및 자격 대상:

- 인원수 190명(전체의 5.7%)
- 지원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복지급여 수령가구) 학생
 - 농어촌 학생: 읍면 도서 벽지의 학교별 3명 이내,
 - 농업계열 고교 졸업생 9명 이내 선발,
 - 사범대 지역인재 육성: 9명 이내, 1개 군 단위 당 1명 추천 가능

나. 전형방법

- 서류평가, 실기능력 종합 고려 선발함. 서울대에서 수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능 최저기준 적용함(인문자연계열 수능 4개 영역 중 2개 영역 2등급 이상)

다.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 서류평가: 위와 동일
-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
- 실기평가: 수시모집 일반전형 2단계 실기평가와 동일한 방식

라. 수능 응시 관련 유의 사항

- 사탐 응시자는 국사 포함 3과목에 응시 필수
- 과탐 응시자는 3과목 응시하되 II 수준 1개 과목 포함 필수
- 직탐 응시자는 지정과목과 선택과목을 준수한 경우 인문자연계열에 응시 가능
- 인문계열 응시자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응시 필수(수리'가'+과탐 응시자 예외)



<붙임 1>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정 영역

※ 이 기준은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과 정시모집 지원 자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에 동일하게 적용됨 (단,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모집단위 구분이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함)

| 모집단위 | 언어 | 외국어 | 수리 | | 탐구영역 | | | 제2외국어/한문 | 비고 | |
|---------|---------|-----|----|---|------|----|------------------|------------------|---|---|
| | | | 가 | 나 | 사회 | 과학 | 직업 | | | |
| 인문대학 | ○ | ○ | ○ | | | | × | ○ ^{주1)} | 수리 '나'형과 사탐 응시가 원칙으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리 '가'형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과탐 응시자는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 |
| 사회과학대학 | | | | | | | | | | |
| 자연과학대학 | ○ | ○ | ○ | × | × | ○ | × | × | | |
| 간호대학 | ○ | ○ | ○ | | | | × | × | 수리 '가'형과 과탐 응시가 원칙으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리 '나'형 또는 사탐 응시자는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 |
| 경영대학 | ○ | ○ | ○ | | | | △ ^{주2)} | ○ ^{주1)} | 수리 '나'형과 사탐 응시가 원칙으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리 '가'형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과탐 응시자는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 |
| 공과대학 | ○ | ○ | ○ | × | × | ○ | △ ^{주2)} | × | 과탐 응시가 원칙임 | |
| 농생명과학대학 | 농경제사회학부 | ○ | ○ | ○ | | | △ ^{주2)} | ○ ^{주1)} | 수리 '나'형과 사탐 응시가 원칙으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리 '가'형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과탐 응시자는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 |
| | 자연계열 | ○ | ○ | ○ | × | × | ○ | △ ^{주2)} | × | 과탐 응시가 원칙임 |
| 미술대학 | ○ | ○ | ○ | | | | × | × | 수리 '나'형과 사탐 응시가 원칙임 | |
| 사범대학 | 인문계열 | ○ | ○ | ○ | | | × | ○ ^{주1)} | 수리 '나'형과 사탐 응시가 원칙으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리 '가'형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과탐 응시자는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 |
| | 자연계열 | ○ | ○ | ○ | × | × | ○ | × | | |
| | 체육교육과 | ○ | ○ | ○ | | | ○ | × | 수리 '나'형과 과탐 응시가 원칙으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리 '가'형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함 | |
| 생활과학대학 | 소비자아동학부 | ○ | ○ | ○ | | | ○ | △ ^{주2)} | ○ ^{주1)} | 수리 '나'형과 사탐 응시가 원칙으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리 '가'형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과탐 응시자는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
| | 식품영양학과 | ○ | ○ | ○ | × | × | ○ | △ ^{주2)} | × | 과탐 응시가 원칙임 |
| | 의류학과 | ○ | ○ | ○ | | | ○ | △ ^{주2)} | × | 수리 '가'형과 과탐 응시가 원칙으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리 '나' 또는 사탐 응시자는 선발인원 제한이 있음 |
| 수의과대학 | 수의예과 | ○ | ○ | ○ | × | × | ○ | × | × | |
| 의과대학 | 의예과 | ○ | ○ | ○ | × | × | ○ | × | × | |
| 자연과학부 | 인문계열 | ○ | ○ | ○ | | | ○ | ○ ^{주1)} | 수리 '나'형과 사탐 응시가 원칙으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리 '가'형 응시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함 | |
| | 자연계열 | ○ | ○ | ○ | × | | ○ | × | 과탐 응시가 원칙임 | |

주1) 수리 '가'형 응시자의 제2외국어/한문영역 응시 및 정시모집 성적 반영

- 수리 '가'형과 사회(직업)탐구영역 응시자는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영역 응시자는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며, 정시모집에서는 외국어영역 점수의 25%를 제2외국어/한문영역 반영 점수로 인정함
단,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영역 응시자가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응시한 경우 외국어영역 점수의 25%와 제2외국어/한문영역 반영 점수 중 높은 점수를 제2외국어/한문영역 반영 점수로 함

주2) 직업탐구영역 응시자 인정 기준은 다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관련 유의사항' 2항 참고



Ⅲ. 정시모집

1. 개요

- 일반전형 634명,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II, 18명 이내, 도합 652명 정도를 선발함
- 모집단위별, 전형별 모집인원수는 아래와 같음.

| 모 집 단 위 | | 계 열 | 모 집 인 원 | | 비 고 | |
|---------|----------|-----|---------|---------------------------|-----|---|
| | | | 일반전형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II (특수교육대상자) | | |
| 사범대학 | 교육학과 | 인문 | - | 4 | | |
| | 국어교육과 | | 10 | | | |
| | 외국어교육계열 | | 15 | | | |
| | 사회교육계열 | | 15 | | | |
| | 윤리교육과 | - | | | | |
| | 수학교육과 | 자연 | - | | | |
| | 과학교육계열 | 20 | | | | |
| 체육교육과 | 체육 | 25 | | | | |
| 생활과학대학 | 소비자 아동학부 | 인문 | 17 | 2 | | |
| | 식품영양학과 | 자연 | 9 | | | |
| | 의류학과 | 자연 | 8 | | | |
| 수의과대학 | 수의예과 | 자연 | - | 2 | | |
| 음악대학 | 성악과 | 예술 | - | 2 | | |
| | 작곡과 | | 작곡 | | | - |
| | | | 이론 | | | - |
| | 기악과 | | 피아노 | | | - |
| | | | 현악 | | | - |
| | | | 관악 | | | - |
| | 국악과 | | 기악 | | | - |
| | | | 이론 | | | - |
| | | | 작곡 | | | - |
| 성악 | | - | | | | |
| 의과대학 | 의예과 | 자연 | 20 | 2 | | |
| 자유전공부 | 인문계열 | 인문 | 28 | 5 | | |
| | 자연계열 | 자연 | 19 | | | |
| 합 계 | | | 634 | 18이내 | | |

- 학사조직개편으로 모집단위의 신설, 통합, 분리, 명칭변경 등이 있을 수 있음
- 수시모집 결과에 따라 정시모집 모집단위 및 인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에 안내함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II<특수교육대상자>의 대학별, 모집단위별 인원은 선발 상한 인원이며, 총18명 이내에서 선발함
-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II<새터민>는 전 모집단위에서 별도의 모집인원 없이 선발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형태에 따른 단계별 선발인원 제한(추가합격자 선발 및 특별전형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 인문계열 모집단위(자유전공학부 제외): 과학탐구영역 응시자는 단계별 선발인원의 20% 이내
 - 간호대학,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수리 '나'형 또는 사회탐구영역 응시자는 단계별 선발인원 25% 이내
-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수리 '가'형+과학탐구영역에 응시한 경우에는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어영역 점수의 25%를 제2외국어/한문영역 반영점으로 인정함
- * 단, 수리 '가'형+과학탐구영역 응시자가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응시한 경우에는 외국어영역 점수의 25%와 제2외국어/한문영역 반영점수 중 높은 점수를 제2외국어/한문영역 점수로 반영함

2. 일반 전형

가. 전형 방법

- 1단계 전형에서 대수능시험 성적 순으로 2배수(인문,자연계열)나 3배수(체육교육과)선발
 - 인문계: 과탐 응시자는 선발인원의 20% 이내에서 선발
 - 간호대, 생활과학대 의류학과: 수리 '나', 사탐 응시자는 선발인원의 25% 이내 선발
- 교과 이수 기준 미충족 이수단위 합이 6단위 이상인 경우 사유서 제출 및 심사를 거쳐 감점 처리 여부 결정
- 수시모집만 하는 모집단위: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모집 1단계 전형 방식 도입

나. 전형요소 및 배점

1) 인문계열 모집단위 및 사범대학

| 모 집 단 위(계열) | 1단계 (수능) 선발인원 | 2단계 | | | | | | 총계 |
|-------------|---------------------|---------|-------|--------------|----------|--------------|----------|-----|
| | | 학교생활기록부 | | 대학수학 능력시험 | 논술고 사 | 교직적성 인성검사 | 실기 고사 | |
| | | 교과영역 | 교과외영역 | | | | | |
| 인 문 계 열 | 2배수 | 30 | 10 | 30 | 30 | | | 100 |
| 사범대학 | 인문계열 | 30 | 10 | 30 | 22 | 8 | | 100 |
| | 체육교육과 | 3배수 | 16 | 4 | 20 | 12 | 8 | 40 |

2) 자연계열 모집단위 및 경영대학

| 모 집 단 위(계열) | 1단계수능) 선발인원 | 2단계 | | | | 총계 |
|-------------|----------------|---------|-------|--------------|------------|-----|
| | | 학교생활기록부 | | 대학수학 능력시험 | 면접 및 구술고사* | |
| | | 교과영역 | 교과외영역 | | | |
| 자 연 계 열 | 2배수 | 30 | 10 | 30 | 30 | 100 |
| 경 영 대 학 | 2배수 | 30 | 10 | 30 | 30 | 100 |



다. 전형요소별 평가방법

1) 대학수학능력시험

가) 모집단위(계열)별 활용영역 및 상대 반영비율

| 모 | 집 | 단 | 위(계열) | 언어 | 외국어 | 수리 | 사회/과학/직업탐구 | 제2외국어/한문 |
|---|---|---|-----------|-----|-----|-----|------------|----------|
| 인 | 문 | 계 | 열 | 100 | 100 | 125 | 75 | 25* |
| 자 | 연 | 계 | 열 | 100 | 100 | 125 | 75 | |
| 사 | 범 | 대 | 체 육 교 육 과 | 100 | 100 | 100 | 30 | |

* 인문계열: 수리 '가'형 응시자의 제2외국어/한문영역 응시 규정

- 수리 '가'형+사회탐구/직업탐구영역 응시자는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반드시 응시함
- 수리 '가'형+과학탐구영역 응시자는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어영역 점수의 25%를 제2외국어/한문영역 반영점수로 인정함
- 수리 '가'형+과학탐구영역 응시자가 제2외국어/한문영역에 응시하는 경우 외국어영역 점수의 25%와 제2외국어/한문영역 반영점수 중 높은 점수를 제2외국어/한문영역 점수로 반영함

나) 영역별 평가방법

- (1)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
- (2) 수리(가/나)영역
 - (가) 인문.자연계열: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 5/4
 - (나)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 (다) 수리 '가'형이 원칙인 모집단위에 수리 '나'형, 수리 '나'형이 원칙인 모집단위에 수리 '가'형 응시자가 지원한 경우에는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대신 백분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를 적용
 - (라) 수리 '나'형이 원칙인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리 '가'형 응시자의 가산점: 수리 '가'형과 '나'형의 백분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백분위 100(또는 최고점)과 백분위 50(복수일 경우 최고점)에 해당하는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백분위 10 차이에 해당하는 평균적인 표준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3) 탐구(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영역
 - (가)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대신 백분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를 적용
 - (나) 산출된 과목별 표준점수의 합에 1/2(체육교육과는 1/5)을 곱하여 반영
- (4) 제2외국어/한문영역
 - (가)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대신 백분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한 표준점수를 적용
 - (나) 산출된 표준점수에 1/2을 곱하여 반영
- (5) 1단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



- (가) 위에서 산출한 각 영역별 표준점수의 합을 반영
- (나) 가산점이 있을 경우: 각 영역별 산출점수의 합 +가산점

2) 교과영역

가) 학교생활기록부 적용 대상자

(1) 성적 반영 방법

(가) 3학년 2학기(6개 학기)까지 이수한 석차등급이 표기된 과목만 반영(단, 석차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교과는 이수 여부만 확인함)

(나) 아래의 교과(군)별 필요최소이수단위(성적 산출 반영단위)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 석차 등급을 점수화

| 교과(군) |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
| 국어 | 20 | 16 |
| 사회(역사/도덕 포함) | 22(16) | 16 |
| 수학 | 20 | 16 |
| 과학/기술·가정 | 22(16) | 16 |
| 영어 | 24 | 16 |
| 제2외국어/한문 | 4 | 4 |
| 합계 | 112(100)* | 84 |

(다) 석차등급별 점수

| 석차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점수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 이수자 수가 12명 이하인 과목: 최고등급의 점수를 13명 이상인 과목의 1등급 점수와 동등하게 조정함

(라) 교과(군)별 필요최소이수단위 미충족에 따른 감점

(바) 교과영역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

○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

$$\left\{ \frac{(\text{석차등급이 표기된 과목별 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text{의 합}}{\text{성적 산출 교과 이수단위의 합}} \times 2.25 \right\} + 7.5$$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left\{ \frac{(\text{석차등급이 표기된 과목별 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 \text{의 합}}{\text{성적 산출 교과 이수단위의 합}} \times 1.2 \right\} + 4$$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에 교과 성적 산출프로그램이 게시되어 있음

3) 교과외영역

가) 평가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별도의 증빙서류

나) 평가내용: 학교생활기록부, 별도의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3등급으로 평가함

| 등급 | 기준 | 비고 |
|-----|---|---------------------------------------|
| A | 평가항목별 충족 기준을 2개 이상 만족하는 경우 | 평가항목별 충족 기준은 <표 1>, <표 2> 참조 (12쪽) |
| B | 평가항목별 충족 기준을 1개 만족하는 경우 | |
| C | 평가항목별 충족 기준 중 만족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 |
| 결격* | · 총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미만인 경우 · 무단결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졸업예정자에 한함) | |

다) 모집단위(계열)별 등급 점수

| 등급 |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 |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
|----|--------------|------------|
| A | 10.00 | 4.00 |
| B | 6.25 | 2.50 |
| C | 2.50 | 1.00 |

4) 논술고사

가) 대상 모집단위: 인문계열 모집단위(경영대학 제외),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나) 평가내용: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해력,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등

다) 출제범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초한 다양한 소재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출제

라) 문항 수 및 고사 시간

(1) 인문계열 모집단위: 3문항 300분(5시간)

(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문항 120분(2시간)

5) 면접 및 구술고사

가) 대상 모집단위: 자연계열 모집단위, 경영대학

나) 평가내용: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하며, 모집단위별 평가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다) 평가방법: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



모집단위별 면접 및 구술고사 평가내용

| 모집단위 | | 지정과목 | 선택과목 | 면접시간 | 답변 준비시간 |
|-------------------|-------------|-------------------------|--------------------------------|---------------|---------------|
| 자 연 과 학 대 학 | 수 리 과 학 부 | 수학 | 물리, 화학, 생명과학(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 과목별 15분 내외 | 과목별 60분 내외 |
| | 물 리.천 문 학 부 | 물리 | 수학, 화학, 생명과학(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 | |
| | 생 명 과 학 부 | 생명과학(생물) |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중 1과목 | | |
| 간 호 대 학 | | | 물리, 화학, 생명과학(생물), 인문·사회* 중 1과목 | 15분 내외 | 60분 내외 |
| 공 과 대 학 | | 수학 | 물리, 화학, 생명과학(생물) 중 1과목 | 과목별 15분 내외 | 과목별 30분 내외 |
| 농 업 생 명 과 학 대 학 | | | 물리, 화학, 생명과학(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 15분 내외** | 60분 내외 |
| 사범대학 | 과학교육계열(광역) | | 물리, 화학, 생명과학(생물), 지구과학 중 1과목 | | |
| 생활과학 대 학 | 식 품 영 양 학 과 | | 물리, 화학, 생명과학(생물) 중 1과목 | | |
| | 의 류 학 과 | | 물리, 화학, 생명과학(생물), 인문·사회* 중 1과목 | | |
| 의과대학 | 의 예 과 |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 및 인성 등을 평가 | | 15분 내외 | 부여할 수 있음 |
| 자 유 전 공 학 부 | | | | 15분 내외 | |
| 경 영 대 학 | | |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 및 인성 등을 평가 | 15분 내외 | 30분 내외 |

6) 교직적성·인성검사

가) 대상 모집단위: 사범대학 인문계열, 체육교육과

※ 사범대학 과학교육계열(광역)은 면접 및 구술고사에 포함하여 실시함

나) 평가내용: 학과적성,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인성, 교직에 대한 이해 등

다) 평가방법

- (1) 복수의 평가위원이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실시
- (2)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 실시
- (3) 모집단위에 따라 답변 준비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7) 실기고사

가) 대상 모집단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나) 평가내용 및 실시방법:

라. 지원서 접수 방법 및 서류 제출

- 1) 접수기간: 12월 21일~22일. 인터넷으로만 접수
- 2) 서류제출기간: 1단계 합격자 1월 3일~4일

마. 전형일정

- 1) 인문계: 논술고사 1월 16일, 5시간
- 2) 사범대: 교직적성, 인성검사 1월 17일
- 3) 자연계: 면접 및 구술고사 1월 16일

바. 합격자 발표

- 1) 1단계 합격자 12월 31일
- 2) 최종 합격자 2월 4일
- 3) 1차 추가 합격자 2월 12일
- 4) 2차 추가 합격자 2월 15일
- 5) 3차 추가 합격자 2월 20일

3. 기회균형선발 특별전형 II

가. 특수교육대상자

- 1) 지원자격: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장애인(1급-3급)
- 2) 전형방법: 통합전형(서류평가, 면접, 실기고사 결과 종합하여 선발)
-모집단위별 인원을 정하지 않고 대학별, 모집단위별 총 18명 이내로 선발

나. 새터민

- 1) 지원자격: 최근 5년 이내 입국한 새터민
- 2) 전형방법: 대학(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 없이 입학 후 수학능력 고려하여 선발함
-통합전형(서류평가, 면접, 실기고사 결과 종합하여 선발)

IV. 2014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사항

- 3169명(정원 외 217명 별도) 도합 3386명 선발, 2013학년도보다 48명 증원
- 수시모집 일반전형(정원의 58%를 입학사정관제로 선발)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폐지
- 수학과 과학 공통 문항을 사용하는 면접 및 구술고사 방식의 적용 범위 축소하고, 전공 적성 및 인성 면접을 강조(자연계열에서)
- 정시모집 일반전형(정원의 17%)은 수능위주로 단순화하여 학생 부담 경감.
-인문계열: 1단계 수능으로 2배수 선발 후 2단계 수능 60, 논술 30, 학생부 10 반영
-자연계열: 1단계 수능으로 2배수 선발 후 2단계 수능 60, 구술 30, 학생부 10 반영
- 정원 내 선발인원의 82.6%를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



1부. 2nd 발제문

교육본질 회복에 기여하는 진로별 타당한 대입시 만들기

- 고교-대학의 학습(교육) 연계로서 대입시 -
- 학생의 진로 안내, 탐색, 유도, 준비, 개척, 맞춤의 대입시 -

✦ 홍후조 || 고려대학교 교수



제15회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토론회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교육본질 회복에 기여하는 진로별 타당한 대입시 만들기

- 고교-대학의 학습(교육) 연계로서 대입시 -

- 학생의 진로 안내, 탐색, 유도, 준비, 개척, 맞춤의 대입시 -

홍후조(고려대학교 교수)

I.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 입시가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입시설명회가 필요한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진로에 따라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본다. 현재 우리 고교 교육과정이나 대입시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문·이과,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에 획일성을 강요하고, 소수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하며, 다양해진 학생 적성, 대학과 직업 분야에 대응하지 못한 구시대적 유산에 머물고 있다. 10-30%가 대학 가던 시절의 대입시를 70-80%가 대학가는 오늘날에도 강요하고 있다. 한마디로 타당성이 매우 부족한 입시이다.

타당성이 없는 현행 입시는 기초질서가 허약해 각종 병폐(불필요한 과잉경쟁, 성적과 명성에 따른 지원, 교차지원, 중도탈락 등)를 낳고, 타당성을 확보할 때까지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현 입시는 전면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자들이 사회의 특권층을 형성하도록 하는 불공정 사회의 원인제공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각자 다른 특성을 지닌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비민주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 후에 자유, 평등, 박애 정신에 따라 설계된 바칼로레아가 지난 200년을 버티는 것은 진로별로 꼭 필요한 공부를 유도하는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따뜻한 직업교육과 냉철한 진학교육'의 실시로, 대입시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다른 유럽 여러 나라 대입시의 공통된 특징이다. 우리보다 앞서 학습자의 진로에 기초한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및 다원화사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토양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대부분 학생의 선택에 맡겨지는 자유방임적인 영미식은 교육자원이 많이 동원되지만 (학생의 낱알의 과목 선택에서) 시행착오로 인해 성과가 낮고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식은 철저한 계획이 선행되고 작동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무학년제는 교육단계별로 일정한 진학 및 직업 교육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뚜렷하고 양자 간의 호환에 대한 기준도 분명해서 엄밀하게 작동되고 있다. 우리와 미국은 대학을 가라고 군불을 때는 warming up system이지만, 유럽식은 공공재정으로 대학교육을 시키는 비율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cooling down system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교과 특성화가 확대된다면 유럽식의 학습자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정별 특성화와 같은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수 학생들이 지원함으로써 단위 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예술, 체육 계열의 경우는 국공립고교를 중심으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간 입시는 변별력, 공정성, 객관성 등을 추구했지만 가장 중요한 타당성은 도외시해왔다. 고교 내신, 전국단위 수능, 대학별 고사 등 무엇이든 입시가 갖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고교-대학 간 학습을 연계해주는 타당성이며, 타당성의 핵심 내용은 진로맞춤(안내, 탐색, 유도, 선택, 준비, 개척)형 대입시 설계이다.

입시가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을 이어주는 것은 지금까지 주변적인 것(진로와 무관한 여러 가지 스펙)이 아니라 핵심 '몸통'(계열별 소수의 바탕학습 '교과'와 유관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대입시를 여러 차례 바꾸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데서 오는 학습된 무기력이 대입시정책결정자들에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겁을 먹고 단기적인 작은 변화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간 입시 설계는 주로 시험지를 문항단위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평가전문가들의 기술공학적인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입시 설계는 미시적인 시험문항만 분석하는 식의 기술공학적 과업이 아닐 것이다. 대입시 설계는 사회 전체, 교육 전체의 병리를 치유하고 새로이 문화국가를 건설하려는 보다 크고 깊으며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사회과학이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의 고유한 적성(잠재력)과 요구(진로, 희망)를 존중하는 대입시를 만드는 것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앞당기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사회와 교육의 연결, 거시적 교육정책과 미시적 교실 수업을 연결하는 교과목의 조합, 계열 형성, 진로 설계라는 의미에서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그간 입시에서는 많았다.

장기적으로 현행 문이과형 대입시를 넘어 다양한 진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타당한 대입시, 치를만한 대입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오늘날 조변석개하고도 불만을 낳는 대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대선주자마다 대입전형 단순화를 내세우지만, 그 속은 여전히 비어 있다. 내신, 대수능, 논술, 입학사정관제 등으로의 간소화는 대입시 타당화, 진로별 입시라는 그 빈속을 채워야 제 모습을 취할 수 있다.

대입시란 다수의 선호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정된 인원 선발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이다. 대입시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패, 희비의 엇갈림, 경쟁으로 인해 비인간화가 심화되고 계층 공고화 세력과 계층이동 희망세력의 공방지이자 대학서열화 공방의 격전지가 대입시이다. 고부담, 고결정력의 대입시는 시험에 맞춘 공부로 교육적 역기능을 초래하고 학습의 유의미성을 반감시킨다. 잘못 정향된 입시제도로 인해 '대입' 자체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고 높은 사교육비와 사회적 스트레스 등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 등을 포함하는 전인적 입시제도일수록 오히려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계층 간 차이가 심화되는 딜레마 상황조차 초래되고 있다.

대입시를 제도적으로 잘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우리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수능을 비롯한 대입시가 기여할 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고교 이하에서 무엇을 공부하면, 어떤 활동을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자(signal)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면경쟁을 하도록 하고 부당한 경쟁 속에서 극소수자가 승리를 하도록 조장하면 그들은 다수의 패배자 위에 부당하게 군림하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경쟁하지 말았어야 할(아직 철모르는) 학생들을 어른들이 대입시라는 전장(arena)에서 부당하게 전면 경쟁시키는 것이다. 소위 문이과식 공부, 국영수 중심 공부, 적성과 진로를 무시한 공부, 평준화 비평준화 질곡 속에서 근거 없는 우월감과 부당한 열등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양산되고 있다.



치열한 대학 간 경쟁 속에 대학들은 우수한 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전형을 개설하고 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전형 속에 학부모, 수험생, 고교들은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교육기관에 더욱 의존하고, 한때 사교육비용이 연간 30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적 부담은 가중되었다. 더욱이 규격화된 공산품처럼 주문 생산된 논술, 포트폴리오 등은 선발을 위한 일회용으로 그치고, 후속되는 대학학습이나 교육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선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력투구하는 대학은 입시 흥행과 장사를 위해 때로 편법을 택하며, 입학 후 후속학습과 연계되지 못하는 교차지원을 허용하기도 한다. 모집단위에 필요한 바탕학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가'이든 '나'이든, 탐구 사회, 과학, 직업이든 상관 없이 임의로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바탕학습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대학에 합격하기는 했지만 기초가 허술해서 높은 수준의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급기야는 중도탈락하거나 자퇴하며, 다행히 졸업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충실히 배우지 못해서 청년실업대열로 합류되는 것이다. 또 다른 부작용은 모집단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영수를 잘하는, 총점수가 높은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인식은 대학서열화와 맞물려 18세 성적이 인생 88세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일조하고 있다.

2. 타당한 대입시를 만든다는 것의 의미

대입시는 고교 공부와 대학 공부를 잇는 징검다리(bridge)이다.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은 문학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국어가 필요하지만 공학, 자연과학, 의약 및 보건계열에서는 읽기 및 쓰기 위주의 보통 수준의 국어 실력이면 대학학습을 위한 바탕학습으로 충분할 것이다. 문학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독해 및 작문이 필요한 계열과 생활영어 수준의 말하기 및 듣기가 주로 필요한 계열이 요구하는 영어 수준은 다를 것이다. 고교 바탕학습으로 역사를 꼭 필요로 하는 모집단위가 정치/경제 선택을 허용하고 있으며, 화학이 꼭 필요한데도 지구과학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영역은 진로 및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바탕학습(prerequisites, 이것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선행교육이 아니라 후속학습에 밑바탕이 되는 바탕학습을 말함)에 맞추어 사전에 제대로 지정되고 공지될 필요가 있다.

현행 대입시는 의학도, 법학도, 역사학도를 뽑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있다. 현행 대입시는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지식, 능력, 태도와 무관한 공부를 조장하고 있다. 입시를 치르면 끝이고 더 이상 학업이나 직업에 쓰이지 않는 공부를 학생들은 계속하고 있다. '선발용' 입시에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도구과목이 계속해서 과중하게 강조되고 있다.

특정 연도에 언어, 수리, 외국어 등 특정 영역이 어려우면 그것이 모든 영역에서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2009학년도 대수능에서 수리영역은 수학이 필요한 계열을 넘어, 무관한 계열에서도 수험생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정 영역이 과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비단 수리뿐 아니라 언어, 외국어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대입시는 불필요한 무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적성과 진로가 달라 경쟁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 매달려 무의미한 경쟁을 하고 있다. 현행 대입시는 교차지원, 임의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 유도하고 있고, 대학에서의 후속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과목을 피해가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현행 대입시는 문이과의 획일적 체계에서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축소된 교육과 교차지원 허용으로 공부의 방향과 초점이 흐려진 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필요한 선수과목을 피한, 부실한 대학수학능력을 지닌 신입생은 대학에서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도 한다.



3. 대입시는 왜 조변석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고교, 대학, 학생 및 학부모 등 입시 관련 집단 모두가 납득할만한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행 대입시는 공교육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대입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아무 교과나 남보다 많이 공부해서 높은 총점을 받으려 하고, 대학도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은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다. 현행 대입시는 온 국민이 합리적이라고 수긍하기 어려운, 타당성을 상실한 입시이다. 혼란스러운 현행 입시를 정비해주고, 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을, 국가.사회적으로 적합성 높은 제도를 정착시켜주는 타당한 대입시가 필요하다. 이제는 일회적 선발용이 아닌 대학에서 후속학습과 연계되는 '교육용' 입시를 설계할 때이다.

<표 1> 대입시가 지향하는 가치의 달성 정도

| 지향 가치 | 실현 정도 |
|---------------|----------|
| 공정성, 사회적 배려 | 높은 편 |
| 객관성, 투명성(신뢰) | 높은 편 |
| 다양성(전형방법, 요소) | 무질서하고 복잡 |
| 타당성(적격자 선발) | 매우 낮음 |

<표 2> 대입시 전형요소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 : 타당성 제고

| 전형요소 | 추구할 방향 |
|--------|-------------------------------------|
| 고교 내신 | 진로에 맞는 선택과 집중의 교육과정, 중핵성, 계열성, 균형성 |
| 대수능 | 진로별 타당성/선택가능성, 객관성/신뢰성/공정성, 다양성 |
| 대학별 고사 | 통일된 큰 틀 속에서 모집단위별 특성화, 대학 내 분권화된 전형 |

II. 타당성 없는 대입시가 빛은 입시설명회와 대학교육의 부실

1. 교사와 학부모는 모르고 사교육기관만 아는 입시 복마전

너무 복잡하여 정리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수시전형이 2500개, 정시전형이 3500개라는 복잡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왜 수시, 정시, 특별, 일반,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 대학입학사정관 전형, 대학별 면접과 구술, 실기시험 등등을 정리하면서, 정작 대학의 계열별, 모집단위별, 진로별로 바탕학습교과나 활동을 정리해주지는 않는가?

문이과식 학습기회와 내신을 내주는 고교, 전국단위 수능을 설계하는 교과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것을 돕는 일부 교육학자들, 일류대와 수도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대학들은 다양화·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입시흥행을 누리고 있고, 입학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대다수 대학들은 어떤 조건도 못 내세우는 입장에 처해 있다. 그 속에서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은 넋이 나간 상태다. 여기저기 입시 설명회를 뛰어 다니지만 거액의 웃돈을 주고 개별적, 장기적,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입시를 조금 안다는 교사집단은 진협, 진진협, 진진단이라고 하여 서로 성적 위주, 특기적성 위주, 입학사정관 위주로 갈등하고 있고, 가장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목을 노리는 곳은 사교육업체들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 수업, 대입시는 없다.



[그림 1] 모신문에 소개된 대입시의 '미로'

2. 대입시 주요 전형요소의 원칙 없는 활용 현황

대입시 전형요소는 학생부, 대수능, 면접 및 구술, 논술, 실기, 기타 등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전형요소들이 대학 모집단위의 계열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자. 즉, 각 전형요소를 활용하는 모집단위의 빈도(비율)와 반영 가중치를 계열별로 분석해보자.

김대석(2009)의 연구는 대학의 각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바탕학습을 이수한, 적절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시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2009-2010학년도 대학입시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 입학전형은 얼마나 타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입학사정관, 중등학교 교원, 3학년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관련 분야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공부에 필요한 선수 교과목과 교과외 활동 등을 계열별로 조사하였다. 정말 치를만한 입시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대학의 입시현황 분석결과, 국어, 영어, 수학은 모든 계열에서 **학생부** 전형요소로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대학의 모집단위가 바탕학습으로 필요로 하는 교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국영수 위주로 학생부를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사회는 인문, 외국어·국제, 상경, 사회(일반), 예술·체육계열에, 과학은 공학, 자연과학, 의약·보건에 많이 활용되는 등 이들 교과는 모집단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타당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학생부에 성적을 올리기가까지 해당 과목들은 불필요하게 과잉 세분화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진로에 맞게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며 교사들의 수급 사정에 따라 가르치는 형편이다.

대수능의 영역별 활용빈도 분석에서 언어, 외국어, 수리 가 또는 나 영역이 모든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역시 고교 바탕학습으로 확인되어야 할 영역이 모집단위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대수능이 활용되고 있었다. 더구나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수학에 대한 바탕학습 수준이 다르므로, 수리 '가'나 '나' 중 하나를



사전에 지정해야 되나, 선발의 편의나 소위 '입시 흥행' 때문에 아무 것이나 점수가 높은 영역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탐구영역에서도 의약·보건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이 모집단위의 바탕학습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 과학, 직업 영역 중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있었다.

대수능의 영역별 반영 가중치 분석에서 언어, 외국어 영역은 모든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반영 가중치가 높았다. 또한 수리 가/나, 사회/과학/직업 탐구 중 하나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점수가 높은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인문, 의약·보건, 예체능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에서는 그 반영 가중치가 높았다.

3. 부실한 바탕학습을 유도한 대입시가 초래하는 대학의 중도탈락

김대석(2010)은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측면에서 양자가 단절된 현재의 대학입시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 중도탈락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학전공 관련 영역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요구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는 경우의 대학 중도탈락 차이를 분석하여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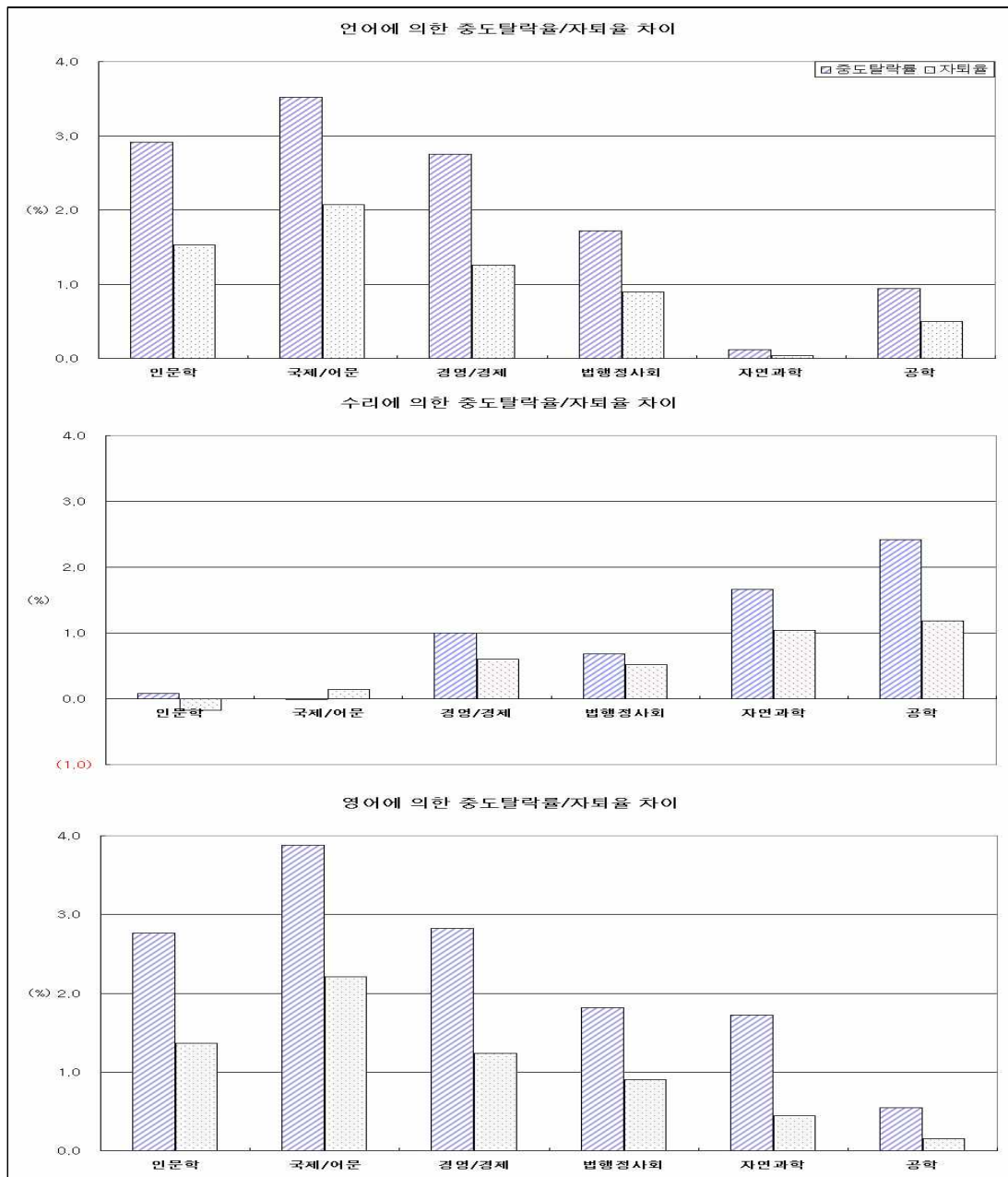
그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요구 여부에 따른 대학 중도탈락률(이하 자퇴율 포함) 차이분석에서 고교 교육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 및 대학 전공이 연계된 경우 일관되게 낮은 대학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었다. 언어영역 기준 중도탈락률 차이는 인문.외국어.상경.법.행정 계열이 크고 유의미한 반면, 자연과학.공학 계열은 차이가 작고 유의하지 않았다. 중도탈락률 차이가 인문사회계열에서 큰 것은, 고교 때 언어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 학습한 학생이 대학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의 언어를 지정요구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후에도, 언어가 계속해서 많이 요구되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반면, 고교 때 언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충실한 선수 학습을 못한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를 지정요구하지 않은 인문사회계열 전공에 입학한 경우, 여전히 인문사회 전공의 학문적 특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자연과학, 공학 계열에서 언어영역 기준 중도탈락률 차이가 작은 것은 이들 계열에서 언어가 많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교 때 언어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 학습한 학생이나 그렇지 않는 학생이나 대학에 와서 별 차이 없이 적응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리영역은 언어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수리영역의 대학 중도탈락률 차이는 인문.외국어.상경.법.행정 계열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은 차이가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수리영역 기준 중도탈락률 차이가 인문사회계열에서 작은 것은 이들 계열에서 수리가 많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교 때 수리가 적성, 흥미, 능력 등에 맞아 충실히 선수 학습한 학생이나 그렇지 않는 학생이나 대학에 와서 별 차이 없이 적응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에서 수리영역 기준 중도탈락률 차이가 큰 것은, 고교 때 적성, 흥미, 능력 등의 이유로 수리 '나'만 공부한 학생이, 수리를 지정요구하지 않는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의 모집단위에 입학한 경우, 이들 전공의 학문적 특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교 때 수리가 적성, 흥미, 능력 등에 맞아 수리 '가' 수준까지 충실히 선수 학습한 학생은 대학입시에서 수리영역을 지정요구한 모집단위에 입학한 후에도, 수리를 계속해서 많이 요구하는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 전공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외국어영역의 중도탈락률 차이는 외국어.국제계열이 특히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은 그 차이가 작고 유의하지도 않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역



기준 중도탈락률 차이가 외국어.국제계열에서 특히 큰 것은, 고교 때 외국어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 학습한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외국어영역을 지정 요구하는 모집단위에 입학한 후에도, 외국어가 계속해서 많이 요구되는 외국어.국제 전공에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반면, 고교 때 외국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충실한 선수 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이, 수능 외국어영역을 요구하지 않는 외국어.국제계열에 입학하였지만, 여전히 전공의 학문적 특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자연과학, 공학 계열에서 외국어영역 기준 중도탈락률 차이가 작은 것은 이들 전공에서 외국어는 많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고교 때 외국어가 적성에 맞아 충실히 선수 학습한 학생이나 그렇지 않는 학생이나 대학에 와서 별 차이 없이 적응함을 의미한다.



[그림 2] 대수능 영역을 임의선택(불요구 포함)한 경우가 지정요구한 경우보다 중도탈락률/자퇴율이 높은 정도(종합) 출처: 김대석(2009)



III. 타당한 대입시의 설계바탕으로서 고교의 진로별 학습기회 제공

1.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학습기회 제공으로서 고교교육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고교교육으로 정상화되는데 대입시는 큰 영향을 미친다. 타당한 대입시로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입시가 요구하는 공부를 해도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유의미할 수 있다. 대입시로 인해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3년간 성실히 한 공부와 활동이 학생부, 대수능, 대학별 고사에 온전히 반영될 것이다. 학업과 적성 및 진로에 따라 공부하고 그 결과가 대입에 반영되어, 별도의 사교육을 통한 대입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적성, 능력, 진로와 무관한 분야를 공부하지 않을 것이며, 무관한 분야에서 대입 경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학생마다 좋아하는 교과, 잘 하는 교과가 다 다를 수 있다. 또한 학생마다 자기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교과가 다를 수 있다. 학생들은 여러 교과에서 자신의 적성, 능력, 진로에 따라서 다른 수준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표 3> 중2학생들이 좋아하는 교과 3개(단위: 명, %)

| 교과목 | 남 | 여 | 전체 | 비고 |
|-----|--------------|--------------|--------------|------------------------------------|
| 수학 | 417(17.8) | 304(12.6) | 721(15.2) | $\chi^2=329.210$ df=8 p=.000 |
| 외국어 | 219(9.3) | 440(18.3) | 659(13.9) | |
| 사회 | 324(13.8) | 272(11.3) | 596(12.5) | |
| 체육 | 348(14.9) | 226(9.4) | 574(12.1) | |
| 국어 | 258(11.0) | 293(12.2) | 551(11.6) | |
| 과학 | 346(14.8) | 204(8.5) | 550(11.6) | |
| 음악 | 126(5.4) | 297(12.3) | 423(8.9) | |
| 미술 | 128(5.5) | 292(12.1) | 420(8.8) | |
| 기술 | 177(7.6) | 81(3.4) | 258(5.4) | |
| 합계 | 2,343(100.0) | 2,409(100.0) | 4,752(100.0) | |

* 학생들이 잘 한다고 여기는 교과, 장래 진로에 필요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교과도 서로 많이 다르나, 지면 관계상 생략함. 출처: 황지현 (2007).

학생들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대학 진학 공부가 다 다를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흥미와 소질이 있는, 하고 싶은 공부가 다를 것이며,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잘 할 수 있는 공부가 다를 것이며, 장래희망과 진로에 필요한, 해야 하는 공부가 다를 것이다. 적성과 진로 및 능력에 맞게 교양, 보완, 핵심의 세 수준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서울시 중 2학년의 고교 졸업 후 희망 진로

| 계열 | 인원(명) | 비율(%) | 계열 | 인원(명) | 비율(%) |
|----------|-------|-------|----------|-------|-------|
| 인문 | 77 | 4.9 | 공학 | 66 | 4.2 |
| 사회.행정.법 | 152 | 9.6 | 기초과학.수학 | 165 | 10.4 |
| 경제.경영 | 113 | 7.1 | 생명 의약 | 154 | 9.7 |
| 외국어.국제 | 230 | 14.5 | 소계 | 385 | 24.3 |
| 소계 | 572 | 36.1 | 교육.사범 | 69 | 4.4 |
| 음악.공연예술 | 137 | 8.6 | 농업.수산.해운 | 5 | 0.3 |
| 연극.영화 | 72 | 4.5 | 기타 | 61 | 3.9 |
| 미술.디자인 | 154 | 9.7 | 소계 | 135 | 8.5 |
| 게임.문화컨텐츠 | 62 | 3.9 | 합계 | 1,584 | 100.0 |
| 체육.스포츠 | 67 | 4.2 | | | |
| 소계 | 492 | 31.1 | | | |

출처: 홍후조 외(2008). 서울시 고교 선택을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 연구, 119쪽.

<표 5> 일반고의 성격에 관한 제공자(교원)와 수혜자(학생 학부모)의 이견

| 구 분 | 다양한 계열(진로)로 전문화.특성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집중해서 배우는 고교 | | 모든 학생 공통 이수 과정, 시민의 기본 소양, 여러 과목을 두루 다 배우는 고교 | | 합계 |
|--------|--|--------|---|--------|---------------|
| 일반고 교장 | 242 | (39.9) | 365 | (60.1) | 607 (100.0) |
| 일반고 교사 | 378 | (44.5) | 472 | (55.5) | 850 (100.0) |
| 전문직 인사 | 220 | (52.4) | 200 | (47.6) | 420 (100.0) |
| 교원 소계 | 840 | 44.8 | 1,037 | 55.2 | 1,877 (100.0) |
| 고교생 부모 | 707 | (60.7) | 458 | (39.3) | 1,165 (100.0) |
| 중학생 부모 | 600 | (64.5) | 330 | (35.5) | 930 (100.0) |
| 학부모 소계 | 1,307 | 62.4 | 788 | 37.6 | 2,095 (100.0) |
| 중학생(박) | 1,643 | (81.1) | 384 | (18.9) | 2,027 (100.0) |
| 중학생(황) | 1,003 | (79.6) | 257 | (20.4) | 1,060 (100.0) |
| 중학생(강) | 917 | (76.0) | 289 | (24.0) | 1,206 (100.0) |
| 중학생(홍) | 1,304 | (80.8) | 310 | (19.2) | 1,614 (100.0) |
| 고교생(박) | 1,903 | (94.7) | 106 | (5.3) | 2,009 (100.0) |
| 고교생(강) | 924 | (69.6) | 404 | (30.4) | 1,328 (100.0) |
| 학생 소계 | 7,694 | 83.2 | 1,750 | 18.9 | 9,244 (100.0) |

출처: 강무섭 외(2008), 84쪽의 표를 확장한 것임. 위 표에서 학생의견 (박)은 박진용(2003 :53), (강)은 강무섭 외(2008: 85), (홍)은 홍후조 외(2008: 116), (황)은 황지현(2008: 39)에서 옮겨온 것임.

그러나 현실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계열의 공부, 고교에서 제공하



는 단순한 학습기회(교육과정, 문이과), 대수능, 공부나 시험 친 것과 달리 진학하는 계열 등이 서로 합치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이 표를 자세히 보면, 2014년 수능의 문이과 구분에 따라 이과 분야 학생의 지원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고교의 과정과 대학의 계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유사하다.

<표 6> 학생요구, 고교 개설 과정, 대수능 응시, 대학입학 정원 사이의 불일치

| 중등 학생이 희망하는 고교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 | | | | | | | | | 고교 2-3학년 학생이 속한 계열(2009) | | 대수능 응시 현황(2010) | | | | 대학* | | |
|---------------------------------|-------|-------|--------|-----------|-------|------------|-----------|-------|--------------------------|---------|-----------------|---------|---------|-------|---------|---------|-------|
| 계열 | 고교 공부 | | | 대학 공부 | | | 소계 | | | 명 | % | 수능응시 영역 | 명 | % | 계열 | 입학정원** | |
| | 명 | % | 명, % | 명 | % | 명, % | 명 | % | 명, % | | | | | | | 명 | % |
| 인문 | 572 | 10.77 | | 720 | 6.31 | | 1,292 | 7.73 | | | | 수리 나형 | 461,936 | 77.1 | 인문 | 19,669 | 5.6 |
| 외국어/국제 | 809 | 15.24 | 2,268 | 1,196 | 10.48 | 4,248 | 2,005 | 11.99 | 6,516 | 565,368 | 60.2 | 사회탐구 | 372,113 | 59.5 | 외국어/국제 | 26,815 | 7.9 |
| 경제경영 | 448 | 8.44 | 42.71 | 863 | 7.56 | 37.23 | 1,311 | 7.84 | 38.97 | | | 과학탐구 | 210,360 | 33.6 | 경제경영 | 38,102 | 11.2 |
| 사회(일반) | 439 | 8.27 | | 1,469 | 12.87 | | 1,908 | 11.41 | | | | 수리 가형 | 137,073 | 22.9 | 사회(일반) | 50,018 | 14.7 |
| 자연과학 | 307 | 5.78 | | 845 | 7.41 | | 1,152 | 6.89 | | | | 과탐탐구 | 210,360 | 33.6 | 자연과학 | 45,285 | 13.4 |
| 공학 | 743 | 13.99 | 1,489 | 1,256 | 11.01 | 3,304 | 1,999 | 11.96 | 4,793 | 360,197 | 38.4 | | | | 공학 | 83,415 | 24.6 |
| 생명/의약/보건 | 439 | 8.27 | 28.04 | 1,203 | 10.54 | 28.96 | 1,642 | 9.82 | 28.67 | | | | | | 의약/보건 | 12,111 | 3.6 |
| 음악 공연예술 | 408 | 7.68 | | 355 | 3.11 | | 763 | 4.56 | | | | | | | 음악/공연예술 | 9,620 | 2.8 |
| 미술 디자인 | 459 | 8.64 | 1,242 | 292 | 2.56 | 2,245 | 751 | 4.49 | 3,497 | | | | | | 미술/디자인 | 16,513 | 4.9 |
| 연극 영화 | 216 | 4.09 | 28.68 | 521 | 4.57 | 19.67 | 737 | 4.41 | 20.86 | 5,264 | 0.6 | | | | 연극/영화 | 2,506 | 0.7 |
| 게임 문화콘텐츠 | 159 | 2.99 | | 243 | 2.13 | | 402 | 2.40 | | | | | | | 게임문화콘텐츠 | 1,385 | 0.4 |
| 체육 스포츠 | 280 | | 5.27 | 254 | | 2.23 | 534 | | 3.19 | | | | | | 체육 | 11,090 | 3.3 |
| 교육/직업 등 | -/31 | | -/0.58 | 1,192/167 | | 10.54/1.46 | 1,192/198 | | 7.13/1.19 | 8,262 | 0.9 | 직업탐구 | 43,225 | 6.9 | 교육/기타 | 22,604 | 6.7 |
| 계 | 5,310 | | 100.0 | 11,410 | | 100.0 | 16,720 | | 100.0 | 939,091 | 100.0 | 수리영역 | 599,009 | 100.0 | 계 | 339,135 | 100.0 |
| | | | | | | | | | | | | 탐구영역 | 625,698 | 100.0 | | | |

* 홍후조 외, 2008; 대교협 2008, KEDI 통계연보 2009를 종합 정리함.

** 위 표에서 대학은 2009학년도 정시 일반전형을 실시한 186개교를 중심으로 한 것임. 입학정원은 수시와 정시 정원을 합한 것임.

2. 타당한 대입시를 설계하기 위한 바탕으로서 고교의 진로별 학습기회 제공

우리나라 일반고는 전체적으로 거대한 공룡 같다. 느리고 제대로 해내는 것이 거의 없다. 제대로 해내도록 설계되고 개선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이과 양분, 평준화 비평준화 갈등, 타당성 없이 조변석개하는 대입시에 얽매어 안이한 교육 수행을 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여기에 머물고 퇴화하도록 하고 있나? 대입시, 비평준화, 평준화 등등 핑계거리는 정말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학계 고교의 성격(기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교육의 퇴화이다.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로 고교는 전인교육, 보통교육의 완성이라는 '미망'아래 놓여있다. 그렇지만 진학계 고교의 교육은 초중학교까지의 어떠한 차별 없이 균등하게 책임교육을 해야 하는 기초 기본 교육과는 다르다. 즉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편리하게 잊고 사는 것이다.



<표 7> 일반고 교육과정의 문제점(단위: 명, %)

| 일반고 교육과정의 문제점 | 전혀 아님 | 아닌 편 | 보통 | 그런 편 | 매우 그려함 | 계 | 평균 |
|-----------------------|----------|----------|-----------|-----------|-----------|----------|------|
| 문.이과로 양분되어 획일적임 | 8(2.7) | 30(10.1) | 98(33.1) | 147(49.7) | 13 (4.4) | 296(100) | 3.43 |
|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반영하지 못함 | 2 (.7) | 23(7.8) | 95(32.1) | 150(50.7) | 26 (8.8) | 296(100) | 3.59 |
| 학생의 교과목 선택이 제한됨 | 2 (.7) | 33(11.2) | 78(26.5) | 152(51.7) | 29 (9.9) | 294(100) | 3.59 |
| 수급된 교원 위주로 교과목을 개설함 | 3(1.0) | 14 (4.7) | 87(29.4) | 154(52.0) | 38(12.8) | 296(100) | 3.71 |
| 학교의 규모나 특색을 살리지 못함 | 4(1.4) | 13 (4.4) | 99(33.4) | 148(50.0) | 32(10.8) | 296(100) | 3.65 |
| 과목 개설에서 학교간 협조가 부족함 | 6(2.0) | 12 (4.1) | 116(39.2) | 133(44.9) | 29 (9.8) | 296(100) | 3.56 |
| 학기당 이수과목수가 과다함 | 3(1.0) | 10 (3.4) | 111(37.6) | 124(42.0) | 47(15.9) | 295(100) | 3.68 |
| 몇몇 교과목만 중시하여 불균형이 심함 | 1 (.3) | 17 (5.8) | 84(28.6) | 143(48.6) | 49(16.7) | 294(100) | 3.76 |
| 대입시에 얽매인 교육과정 | - | 4 (1.3) | 46(15.5) | 136(45.8) | 111(37.4) | 297(100) | 4.19 |
| 대학교육과 연계가 부족함 | 4(1.4) | 7 (2.4) | 72(24.4) | 139(47.1) | 73(24.7) | 295(100) | 3.92 |

출처: 홍후조 외(2009),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164쪽.

<표 8> 2012년 현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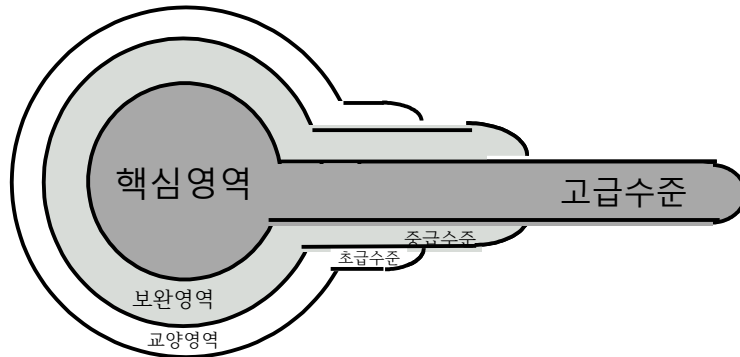
| | 국영수 등 대학 입시 중요과 목의 시수 확대 | 대 학 입 시에 맞춰 교육 강화 | 창 의 교 과 당 수 교 사 부 족 | 적 격 자 를 하 는 자 를 하 는 자 를 하 는 자 | 교 사 들 의 가 중 의 가 중 | 창 의 교 과 당 수 교 사 부 족 | 인 문 대 회 시 의 의 의 적 각 | 학 생 들 의 중 요 강 조 | 및 모 모 대 시 성 | 기타 | 전체 | χ^2 |
|-----|--|-------------------------------|--|---|---|--|--|--------------------------------------|----------------------------|----|----|----------------|
| 학부모 | 309 41.5% | 182 24.5% | 38 5.1% | 138 18.5% | 24 3.2% | 43 5.8% | 10 1.3% | 744 100.0% | | | | 120.14 8*** |
| 교사 | 139 26.7% | 151 29.0% | 97 18.6% | 43 8.3% | 52 10.0% | 30 5.8% | 9 1.7% | 521 100.0% | | | | |
| 계 | 448 35.4% | 333 26.3% | 135 10.7% | 181 14.3% | 76 6.0% | 73 5.8% | 19 1.5% | 1,265 100.0% | | | | |

***p<.001

출처: 주동범 외(2012 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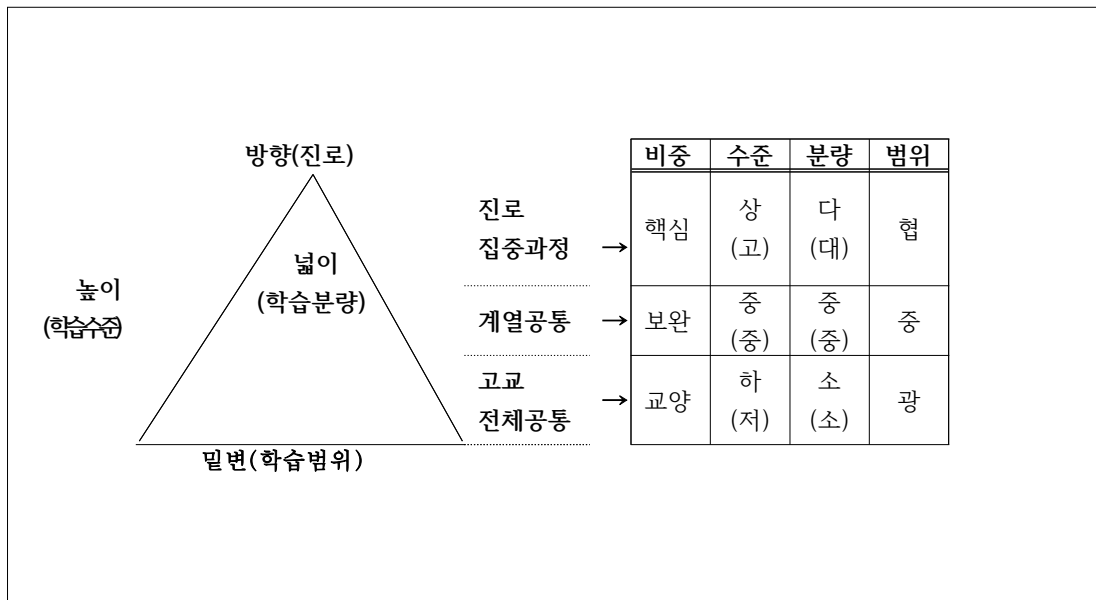
대학공부에 필요한,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바탕학습은 '핵심교과'와 '핵심경험'으로 구성된다. 이것들은 타당한 대입시의 요건 중 '적격자'에 해당된다. 온전한 대입시는 학생들이 아는 것을 확인하는 교과지식, 지필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할 줄 아는 것을 확인하는 입시이며 그래야만 학생들도 균형 잡힌 공부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교과와 교과의 활동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핵심교과는 각 모집단위의 대학공부에 필요한 것으로서 고교교육과정에서 선이수 되어야 할 교과이다. 핵심교과는 고급수준으로 많이 공부해야 할 것이며 대수능, 대학별 고사, 학생부로 확인될 수 있다. 반면에 해당 모집단위의 핵심교과에 해당하지 않는 보완이나 교양교과는 각 각 중급 및 초급수준으로 공부하면 족할 것이다(박도순·홍후조, 2006: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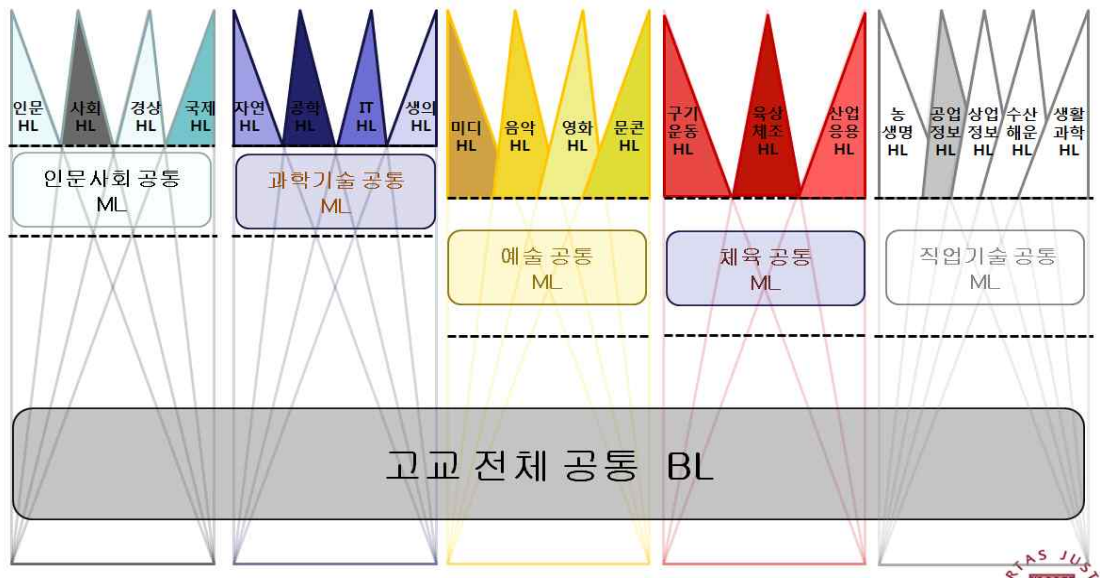


[그림 3] 학습영역과 학습수준("열쇠" 모형, Key Model)

진로맞춤형 대입시는 고교의 진로 집중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진로 집중과정을 설계함에 있어 발표자(2011)가 개발 제안한 삼각모형이 유용하다. 아래 그림의 삼각모형(Triangle Model)은 삼각형의 밑변을 학습범위, 높이는 학습수준, 삼각형의 면적은 학습 분량을 나타내며, 꼭짓점의 방향은 진로를 나타내도록 도형화한 것이다. 밑변과 높이가 같은 삼각형을 꼭짓점의 방향이 다른 여러 개의 삼각형을 그려나가면 여러 개의 진로 집중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개의 겹친 삼각형들은 3층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가장 아래 부분은 모든 삼각형이 공통되고(고교 전체 공통), 중간 부분은 이웃하는 삼각형들끼리 공통되며(계열 전체 공통), 맨 꼭대기 부분은 다른 것들과 겹치지 않는 고유하고 독특한 부분(진로 집중과정)이 된다. 삼각모형에서는 방향이 달라 겹치지 않는 부분을 진로 집중과정의 가장 고유하고 독특하게 이수할 교과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학습의 방향(진로), 수준, 범위의 배분을 보여주는 삼각모형(Triangle Model) (홍후조, 2011: 23)



[그림 5] 계열별 진로 집중과정을 보여주는 삼각 모형 (홍후조, 2011: 198)

삼각모형은 밀변을 증감하여 공통으로 하는 범위를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으며, 밀변이 학습의 출발점이라고 할 때 밀변을 어느 수준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수준을 달리할 수 있고, 학습 범위(밀변)가 같고 학습 수준(높이)이 같으며, 그래서 학습 분량(면적)은 같지만, 진로가 다른(꼭짓점의 방향) 여러 개의 삼각형을 그리면, 결과적으로 가장 아래는 모든 삼각형들이 공유하게 되어 공통을 드러내고, 중간은 이웃하는 삼각형들과 공통이고, 맨 꼭대기는 겹치지 않는 독특한 진로 집중과정이 나타난다. 위 그림은 이를 도형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고1에서는 고교 전체 학생들이 공통을 이수하는 셈이고, 고2에서는 4대 계열에 맞게 이수하고, 고3에서는 진로별로 다른 공부를 하게 된다. 문이과에서 파생한 진로 집중과정은 20단위 정도여서 누구나 최대 3개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홍후조(2011)는 진로 집중과정을 크게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예술계, 체육계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이 네 개의 대계열 아래 인문사회(인문, 사회, 경상, 국제), 과학기술(공학1, 공학2, IT, 자연/의약생명), 예술(음악, 미술디자인, 연극영화, 문화콘텐츠), 체육(체조, 육상, 구기경기, 응용/산업)의 15개의 진로 집중과정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진로집중과정에 대한 최대의 오해는 그것이 학생들의 장래를 미리부터 옥죄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오해다. 교육과정이 가진 탄력성을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선입견일 뿐이다. 그렇다면 진로 집중과정은 태어나지도 제안되지도 말았어야 했다. 오해와 달리 진로 집중과정은 꼭 필요한 공부를 하도록 학생의 공부 방향을 안내하고, 언제라도 바꿀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2009 교육과정에서 204단위 중 교과는 180단위로서 이는 학습 분량이다. 가장 아래는 고교 전체 공통(116단위)이고, 중간은 인문사회계(문과), 과학기술계(이과), 예술계, 체육계가 각각 조금씩 겹치는 계열 공통(20-30단위)이 되고, 가장 꼭대기에 서로 겹치지 않는 작은 삼각형은 진로별 집중과정(20단위)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학교자율과정이 64단위이므로, 학생들은 최대 3개까지 진로집중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치감치 진로가 확정된 학생들은 1개의 진로 집중과정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단위들은 분산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 집중과정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듯이 3년간 꼼짝달싹 못하는 많은 단위 수(가령 100단위)로 구성되지 않는다. 학교자율과정이 64단위고, 진로 집중과정은 20단위 내외가 되므로 학



생들의 진로 변경가능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즉, 문이과 파생 집중과정 이 20단위 내외로 구성되면 학생들은 진로 확정 여부에 따라 1개, 2개, 3개까지 집중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진로 변경에 충분히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대신 예체능계 집중과정은 실기가 따르므로 단위수가 50단위 내외로 상대적으로 많아야 할 것이다.

<표 9> 고교에서 개설할만한 15가지 진로 집중과정

| 인문사회계 | | | | 과학기술계 | | | | 예술계 | | | | 체육계 | | |
|-------|----|----|----------|-------|------|----|-------|-----|--------|---------|--------|--------|--------|--------|
| 인문 | 사회 | 경상 | 외국어 / 국제 | 공학 1 | 공학 2 | IT | 의약 생명 | 음악 | 미술 디자인 | 연극영 화영상 | 문화 콘텐츠 | 체조/ 육상 | 운동/ 구기 | 스포츠 경영 |

<표 10> 대학의 계열 및 해당 모집단위(학과) 예시

| 계열 | 해당 모집단위(학과) 예시 |
|-------------|---|
| 1) 인문 | 국문, 문학, 한문, 역사, 철학, 인류학, 종교 등 |
| 2) 외국어/국제 | 외국어(어문), 국제학, 정치외교 등 |
| 3) 상경 | 경영, 경제, 무역, 금융, 회계, 보험, 물류, 비서 등 |
| 4) 사회(일반) | 법, 행정, 사회, 언론, 심리, 지리, 관광, 복지 등 |
| 5) 공학 | 건축, 운송, 건설, 도시, 기계, 금속, 소재, 컴퓨터, 전자, 섬유 등 |
| 6) 자연(기초과학) | 수학, 통계학, 물리, 지구과학, 화학 등 |
| 7) 의약/보건 |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보건, 등 |
| 8) 교육(사범) | 유아, 아동, 초.중등, 특수 교육 등 |
| 9) 예술 | 미술, 디자인,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
| 10) 체육 | 체육, 스포츠의학/운동처방, 스포츠산업/경영, 경호/무도 등 |

<표 11> 진로에 따른 고교 학습의 설계

(수학의 예시: 진로는 무시하고 수준만 강조하는 습관)

| 진로에 따라 공부에서 달라지는 것들 | 진로에 따라 공부할 수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목 구성(종류, 명칭) 하위 과목 범위 X 수준 = 분량 수업 방식(수준별 이동수업 여부) 교재 평가 방식(엄정한 평가, 느슨한 평가) 교사 배정 동료 학생 집단(동질 집단, 이질 집단) 이수 시기(학년, 학기), 장소(교내외)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봉사, 진로체험) 등이 다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단위(대수, 기하, 확률과 통계 등) 분량(단위수) = 수준과 범위(핵심/보완/교양, 상중하, 고중저, 대중소, 다중소) 교재(교과서) 수업(수준별 이동수업) 평가(수능 등) 교사 동료 학생집단 시기, 장소 등이 달라야 즉, 대학 진로가 수학/물리, 물리/지학, IT/수학, 생명과학/화학, 경상, 사회, 외국어/국제, 인문, 예술, 체육 등에 따라 공부할 수학의 공부하는 분량은 다름. |



교양으로서 국어과도 각 계열에 따라 다음 단계의 공부를 위한 기초로서의 교양(아래 [그림]에서 I-①, I-②, I-③)과 마무리를 위한 기초로서의 교양(체육계의 국어과 교육, I-④)이 다른 것이다. 또한 같은 보완이라도 다음 단계의 공부를 위한 기초로서의 보완([그림]에서 II-①)과 마무리 단계의 보완([그림]에서 II-②, II-③)은 구별된다. 끝으로 핵심교과로서 고급수준으로 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대체로 인문사회계로 진학할 학생들이다. 이 경우에도 진로 집중과정별로 배우는 교과목을 더 세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들의 전문성은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르게 공부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다.

| | | | | |
|----------------------------|-------|-------|-------|-----|
| 진로 집중과정별 국어 공부 : 핵심교과(상) | III-① | | | |
| 계열에서 필요한 국어 공부 : 보완교과(중) | II-① | II-② | II-③ | |
| 고교 전체에 공통된 국어 공부 : 교양교과(하) | I-① | I-② | I-③ | I-④ |
| 수준 | 계열 | 인문사회계 | 과학기술계 | 예술계 |
| | | 체육계 | | |

[그림 6] 국어과를 통해서 본 진로별(계열별, 진로 집중과정별) 학습수준의 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된 진로 집중과정을 학교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이다. 다양해진 진로별 교육과정은 개별 학교에서는 결코 다 해주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교는 규모에 비추어볼 때 문과 혹은 이과에서 파생한 것을 해줄 수 있거나(소규모 학교), 문이과에서 파생한 진로 집중과정을 해줄 수 있다(전국 대다수 중규모 고교 전부). 학교가 학교구로 학교 간에 역할분담하고, 협력하면 예체능 파생 과정들도 개설해 줄 수 있다. 한정된 교사 수 교실수를 가진 학교'내'에서는 해결되지 않고 학교'간'에 해결될 문제이다.

대다수 학교(학급 수 15학급 이상)들은 문이과 과정은 모두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체능 과정을 개설해주는 것인데, 예체능 과정을 지망하는 학생 수는 적다. 그러므로 이들을 더 넓은 지역에서 모아야 한다. 그래야 일정수가 되어 규모의 경제처럼 규모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학교'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홍후조, 2005a). 예컨대 경기도 수원시의 고교들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학교구를 만들고 각 구에 1개교씩 미술디자인 과정을 개설한다면, 미술디자인을 더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예술고에 진학하지 못했어도, 이런 거점(중점)학교에 진학하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개척하는 학습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음악 과정도 4개교 정도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체육 과정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 학교를 거점학교 삼아 개설 운영하면 될 것이다.



<표 12> 고교 규모에 따른 개설 가능한 '진로 집중과정'의 목록과 진로 선택

| 선택할 시기 | | 대규모 학교 ←-----→ 소규모 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중3→고1에서 선택 | 고1→2 때 선택, 대입준비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
| 1. 인문사회 (문과) | 1.1 인문 (문사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사회(행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경제(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국제 (외국어)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화한 외교, 국제고 | | | | | | | |
| 2. 과학기술 (이과) | 2.1 공학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화한 과학고, 영재고 | | | | | |
| | 2.2 공학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이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의약생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예술 | 3.1 미술디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음악공연예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영상 (연극영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문화콘텐츠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체육 (직업) | 4.1 체육 | | | | | ○ | | | | ○ | ○ | | | | | 특화한 체고 | | | | | | ○ | | |
| | 취업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급수 | | 30학급 이상 | | | | | | 16~29학급 | | | | | | 15학급 이하 | | | | | | | | | | |
| 학교수, 총1,437개 | | 723 | | | | | | 340 | | | | | | 374 | | | | | | | | | | |
| 효과적인 적용 사례 (지역내 학교가 협력과 역할 분담) | | 대도시 대규모 학교이므로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예술, 체육)을 부가하여 설치 | | | | | | 중소도시 중규모이므로 보편적인 과정(인문사회 계열과 과학 기술 계열)을 설치 | | | | | | 농어산촌 고교로서 소규모이므로 특정 과정만 설치, 특수목적 고교도 여기 해당함. | | | | | | | | | | |
| 일반계 고교의 교육과정 개설 방안 | | A교(+미술디자인) B교(+연극영화) C교(+음악공연예술) D교(+문화콘텐츠) E교(+체육스포츠) | | | | | | 현재와 같이 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를 함께 설치 | | | | | | A교(인문사회계 학교) B교(과학기술계 학교)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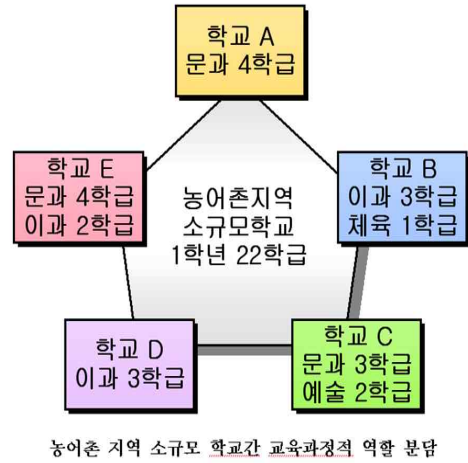
물론 교육청에서 이런 소수 학생이 지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특정 규모를 갖춘 학교가 개설되도록 지정해주고, 이런 학교에 필요한 교사.강사를 더 수급해주고, 시설과 설비를 더 해주며, 해당 진로를 원하는 학생들을 집중 배정해주면 될 것이다. 이것은 개별 학교에 맡겨두어 될 일이 아니다. 교육청에서 애써 실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다. 여기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학교 간 학교구를 이루고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를 실현하려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교육청은 아무 곳도 없다. 그냥 지난 100여 년간 해온 문이과만 나눠주는 것이다.



대규모 고교의 제구실 : 거점학교 (문이과 +1)



농산어촌 고교 : 작지만 강한 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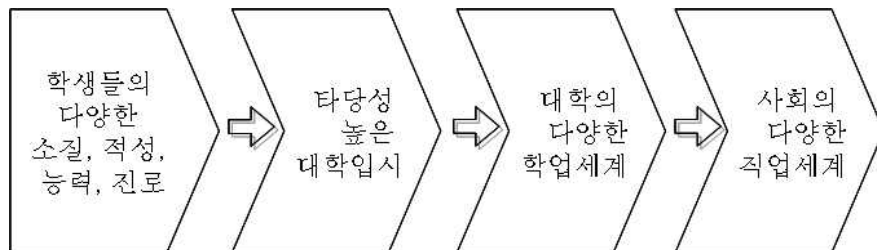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적 역할 분담

[그림 7] 진로 집중과정 개설에서 학교간 역할 분담과 협력
(좌-도시형 대규모 학교구, 우-농산어촌형 소규모 학교구)

IV. 타당한 대입시의 특성과 모습

1. 고교와 대학의 학습을 연계시켜주는 것이 타당한 대입시

현재의 대입시 체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년제 대학에 2,500여개 학과가 4년제 대학에 3,500여개 학과가 있으나 고교 공부나 대입시는 여전히 문이과 위주로 양분되어 있다. 수많은 모집단위가 있어도 고교에서 학습은 제한되어 있어, 바탕학습이 같은(공통된) 것끼리 묶는다면 충분히 많아야 15개 전후의 계열로 구분될 수 있다. 교과부, 고교, 대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교협 등은 이런 줄기를 잡아주지 않아서 결국 혼란 속에 아이들을 빠뜨리는 것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교육에서 '방임'만큼 나쁜 제도도 없다. 규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안내, 유도, 선택하도록 돕자는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 능력, 진로를 반영하는 유의미한 공부를 대입시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격려하는 대입시가 필요하다.



[그림 8] 다양한 학생과 대학학업을 연계하는 타당성 높은 대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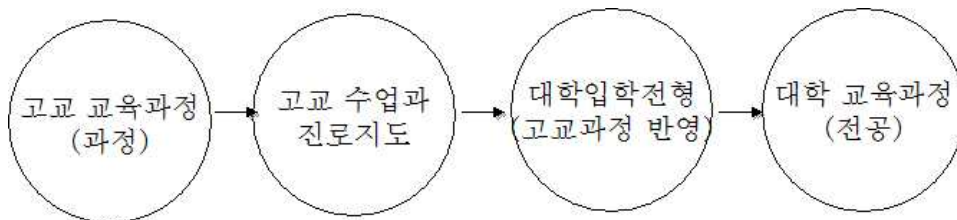
서로 다른 적성, 능력, 진로와 대학공부를 연결시켜주는 대입시 속에서 학생들은 적성과 진로에 맞게 핵심, 보완, 교양수준으로 공부하면서도 여러 교과를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입시를 치르는 특정 교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교는 200단위 이상을 공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교과를 공부하되,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교과 외에도 통합적·실제적 활동, 핵심경험 같은 비교과 활동도 아울러 할 수 있다.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을 대학과 잘 연결시켜주는 타당한 대입시 속에서, 해당 분야의 공부를 좋아하고 잘 하며 진로 때문에 더 깊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받아들이면 대학은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대학의 요구를 반영한 대입시가 고등학교 공부로 충분히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입시가 기여한 정상화된 공교육 속에서 학교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대입시 변화에 덜 휘둘리고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핵심적이면서도 고유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공부로 고교 내신, 대수능, 대학별 고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표 13> 고교-대학 공부 연계의 핵심 사항

| 고교에서 무슨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알아야 | 대학공부를 성공적으로 계속할 수 있어 |
|--|--|
| 1. 고교에서 어떤 진로 집중과정? 2. 집중과정별 핵심교과는? 3. 핵심교과의 하위과목 범위 수준 분량은? | 1. 대학의 어떤 모집단위(학부/계열 학과/전공) 진학하려면? 2. 모집단위별 중요한 비탕학습교과는? 3. 비탕학습교과별 범위 수준 분량은? |

하지만 대학 입시가 적성에 맞는 진로별 학습기회 제공으로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 간에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단절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된, 양자에 대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고교 교육을 대학 교육과 분리된 보통 교육의 완성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 대학진학 및 직업 준비와 연계된(scaffolding)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그림 9] 일반계고교의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의 동조화(coupling)

2. 선발용이 아니라 교육용 입시여야 타당한 입시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며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타당한 대입시란 '선발'을 위한 시험이 아닌 '교육'을 위한 시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대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교육과 연계되지 못하고 일시적 '선발용'으로 학생들이 '고비'를 넘기는데 사용된다는 점이다. 대학입시가 중등학교의 교육적인 좌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험치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계속적으로 쓰이지도, 더 길게는 직업생활에도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입에서 특히 수학은 그런 형편에 처해있다. 선발용으로 쓰이는 수학은 어렵고 범위가 넓고 수준이 높으며 분량이 적지 않다. 반대로 '교육용' 대입시는 준비과정, 치르는 과정, 치른 후에 쓰임새가 대학의 학업과 연계되어 학생들이 교육적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을 일으키는 시험을 말한다. 교육을 통한 경험의 재구성은 듀이(J. Dewey)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정상적인 '교육용' 대입시는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유의미한' 입시를 의미한다. 자신의 적성과 학업 및 직업적 진로를 좇아 공부하고 그 결과가 대입에 반영되어, 별도의 사교육을 통해 대입 준비를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는 대입시를 의미한다.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대입시는 관심 분야를 성실하게 공부한 결과를 온전히 반영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또한 무관한 분야에서 대입 경쟁을 하지 않아서 학습의 과정도, 불가피한 경쟁의 과정도 모두 '유의미한' 것이 되는 입시를 의미한다.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입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유도하는 대입시를 의미한다. 선택과 집중, 심층과 통합 학습을 통하여 불필요한 과잉·과소 학습을 해소하고 적정학습을 유도하여 보람 있는 공부, '의미 있는 경쟁'을 경험하게 하는 대입시를 의미한다.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대입시는 한마디로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높은 대입시를 말한다. 그것은 학생들의 서로 다른 적성과 소질을 반영하여 그에 맞게 고교 학습을 유도해주며, 대학에서 학업과 생활을 잘 수행하도록 해주며, 장기적으로 직업생활과 연계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대입시를 말한다. 그것은 모집단위별로 적격자를 선발하는, 적절한 전형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대학입시를 통해 고교교육이 정상화되면, 대학은 바탕학습능력(prerequisites)과 대학수학능력(college readiness)이 잘 갖추어진, 해당 전공 공부를 좋아하고 잘 하고,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잘 가르칠 수 있다. 대학입시를 통해 고교교육이 정상화되면, 학교가 제 구실을 하게 되므로, 사교육 부담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이 좀 더 벗어날 것이다. 학교 교육이 대입시 변화에 덜 휘둘리고, 진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충실히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교 내신, 대수능, 대학별 고사 등이 모두 타당성이 높게 정향(orientation)되어 학생들은 필요한 공부를 꼭 하고, 불필요한 공부를 덜 하게 될 것이다.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입시 설계의 핵심은 타당한 대입시를 만드는 것이다. 타당한 입시는 사회 각계각층이 요구하는 적재적소형 인재를 기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정 분야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분야의 인재들이 제 좋아서 그 공부를 하고 그 직업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입시를 의미한다.

3. 타당한 대입시의 핵심 특성

타당한 대입시는 모집단위 공부에 필요한 교과(지식), 통합적 능력, 사회적 경험을 갖춘, 적격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시를 의미한다. 꼭 필요한 공부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공부는 기본수준으로 끝내도록 유도하는 대입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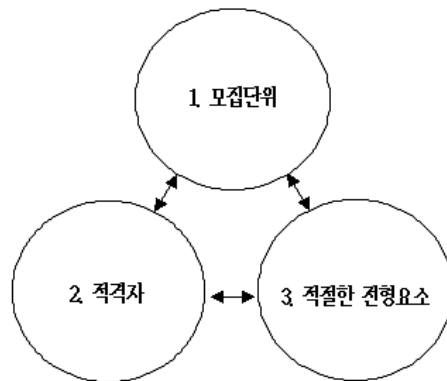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선수교과가 다르므로 모든 교과가 모집단위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학업 및 진로와 연계된 모든 교과가 중등교육에서 중요하게 된다. 타당한 대입시는 특정 교과가 해당 분야를 넘어 타 모집단위에서 과잉 결정자(factor)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타당한 대입시란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적격한 학생을 적절한 전형요소를 통해 선발하므로 '모집단위', '적격자', '적절한 전형요소'가 필수 요건이다. 먼저 모집단위란 학문적 특성이나 대학에서의 기초공통 과목이 유사한 단위로 학부, 계열, 학과, 전공을 의미한다. 적격한 학생



은 해당 모집단위에 입학하여 대학학습을 잘 수행하여 졸업 후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가능성과 잠재성이 많은 학생을 의미한다. 법학 분야를 예로 든다면, 법의식, 법적인 적성과 능력을 가지고, 법학 분야에 입문하여 성공적으로 학업생활을 수행하며, 향후 법률 분야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전형이란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바탕학습을 한, 적격한 학생을 선발하기 적합한 입시 전형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예체능계의 교과외 활동을 평가하기 가장 적절한 전형요소는 학생부나 대수능 보다 대학별고사 중 실기가 될 것이다.



[그림 10] 타당한 대입시의 세 요건

여기서 말하는 치를 만한 입시, 타당한 입시는 무엇을 말하는가?

- **학생에게**
 - 각 사람의 독특하고 서로 다른 장단점을 인정하는 입시
 -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도록 안내해주는 입시
 -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좇아 선택과 집중하도록 유도함
 -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좇아 하고 싶은 공부에 매진하게 하는 입시
 - 진로에 꼭 필요한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시
 - 학생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입시과목을 조합해주는 입시
 - 고생을 하면서 공부해도 의미 있는 고생이 되는 입시
 - 오래도록 학업과 직업에 쓰이는 공부를 유도하는 입시
 -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장래를 위해 선택하고 책임을 지도록 독립심을 키워주는 입시
- **학부모에게**
 - 자녀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공부하도록 안내하는 입시
 - 자녀를 위해 특별히 뒷바라지하지 않아도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입시
 - 입학설명회에 쫓아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만한 입시
 - 굳이 정당화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수긍이 되는 입시
 - 공부하면 전인형성에 도움이 되어 애써 공부하라고 독려할 수 있는 입시
- **사회적으로**
 - 개인적으로 유의미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입시
 - 누구나 수긍할만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할만한 입시
 - 타당하기에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입시



- 안정적이고 단순하여 예측 가능한 입시
- 기성세대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입시
- **고교와 교사들에게**
- 중등학교가 교육적으로 추구할만한 입시
- 교사들이 가르쳐서 보람을 느끼고 자부할만한 입시
-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에 알맞게 적절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입시
- 교사들의 교과전문성이 적절히 발휘되는 입시
- **대학에게**
- 모집단위별(계열별)로 동일한 종류로 입시설명회가 필요 없는 입시
-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꼭 필요한 바탕학습교과와 활동을 챙겨주는 입시
- 불필요한 과잉학습이나 꼭 필요함에도 과소학습을 시키지 않는 입시
- 전공적합성이 높아 학생들의 학업에의 몰두와 충성심이 확인되는 입시
- 대학에 와서 계속적·성공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입시

4. 타당한 대입시의 구안을 위한 하나의 제안

타당한 입시 설계는 불필요한 과잉학습으로 사교육을 유발하지도, 불안감을 조성하지도 않으며, 꼭 필요함에도 과소학습으로 인해 대학에서 중도탈락을 초래하지도 않게 진로별(계열별) 적정학습을 하도록 '할 만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다. 마치 은행의 번호표가 새치기를 막아주듯이 각 분야의 '제도'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 사회의 '문화'도 바로 잡힌다.

현재의 문과는 인문, 사회, 경상, 외국어/국제로, 이과는 자연(생명의약), 공학, IT로, 예술이나 체육 분야는 장르나 종목을 중심으로 각각 3~4개의 대영역별로 분화되는 것이 맞다. 결국 현재의 문이과형이 아니라 15개 전후의 각 계열별 핵심이 되는 바탕학습 '교과'와 관련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입시설명회가 필요 없도록 누구나 그 분야의 진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부를 중심으로 입시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2014 수능에서 유형을 조금 분화함으로써 고교에서 자연계열 지망생들이 대폭 늘어난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더 나은 제도가 학업과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진로를 더 잘 안내할 수 있다. 향후 수능 등 대입시를 진로에 맞추어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 적성에 맞게 다양한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대수능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사탐, 과탐 등의 시험유형을 인문, 자연, 예술, 체육 등 네 가지 형태만이라도 분화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현재 과잉통합된 언어, 수리, 외국어는 최소한 4가지로 더 분화시키고, 과잉분화된 사탐, 과탐은 최소한 4-5가지로 통합하면 될 것이다. 통합하는 하나의 방법은 사탐은 (한국 및 세계가 적절히 통합된) 정치경제, 지리, 역사, 사회문화와 법과 윤리, (타계열을 위한) 통합사회의 5가지 정도로; 과탐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 타계열을 위한 통합과학(STS)의 5가지 정도로 분화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학생들의 진로는 다양해지고, 불필요한 과잉학습이나 꼭 필요함에도 과소학습하는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문이과를 넘어 건전한 시민으로서 배워야 할 과학과 사회를 문이과 장벽으로 소홀히 하게 되는 현상을 넘어설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창의적 융합인재교육(STEAM)에도 더 가까워질 것이다. 부수적으로 현재 수능처럼 학기 중 교수와 교사를 출제진·검토진으로 500명까지 대규모로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올해 대수능의 문항개발인력은 출제위원 317명, 검토위원 183명, 보안요원, 의사, 간호사 등 관리인력 196명 등 6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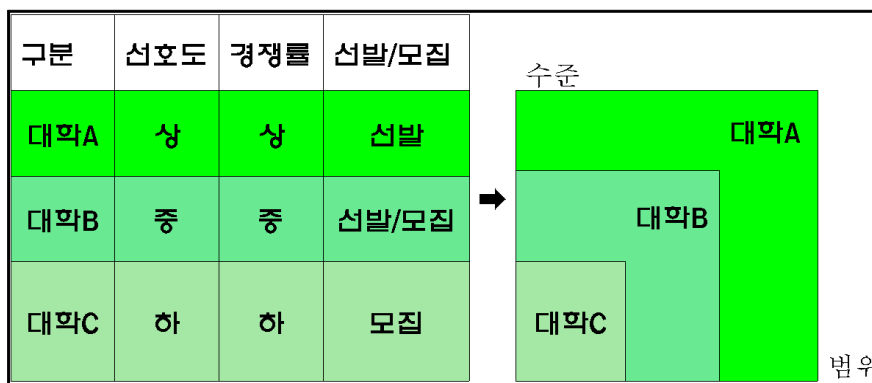
이었음).

비유컨대 현재 입시나 고교 교육과정은 비빔밥과 된장찌개(문과와 이과)만 강요하고, 여타의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식성을 무시하는 격이다. 수영선수를 뽑는 줄에 야구선수가 서 있는 획일성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제도이다. 서로 다른 진로를 존중하지 않는 현행 입시는 획일성, 불평등을 야기하는 '나쁜' 제도이므로, 다양한 진로를 존중하는 제도적 재설계를 해야 입시문화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상계열은 문과지만 필요한 수학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 보건의로 분야로 진학할 학생들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도록 하며, 예술 분야는 상상력, 창의력을 위해 문학을 더 많이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 입시이다.

진로 집중과정의 구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입시이므로, 대입시가 학생들의 진로를 안내, 탐색, 유도, 준비, 개척, 맞춤형이 되게 설계되도록 교과부, 대교협, 대학 등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입시는 진로 집중과정별 핵심과목을 기준으로 설계하되, 대학의 형편(낮은 학생선호도, 낮은 입학경쟁률, 모집하는 여건 등)에 따라 보완과목을 시험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진로별 입시는 인문사회계, 과학기술계, 예술계, 체육계 등 대학의 계열에 따라 다르게 하거나, 혹은 대학공부를 성공적·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학습이 같거나 유사한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형편은 달라도 모집단위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유사한(같은 종류의) 교과를 핵심교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과학교육과, 공학계열 등은 고교 바탕학습으로 물리를 핵심(고수준, 다량, 강수준 등)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모집단위에서 물리가 보완이나 교양수준으로 요구되더라도 최소한 이들 모집단위는 핵심수준으로 물리를 요구해야 고교에서 물리가 제대로 가르쳐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학과, 수학교육과, 공학계열 등에서 수학적 핵심교과 중 하나일 것이다. 수학을 좋아하고, 잘 하고, 수학 분야 직업을 가지려는 학생을 선발하면 이 모집단위는 타당한 입시를 치른 셈이다. 다만, 대학의 형편에 따라 요구되는 교과목의 수준, 분량, 범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많은 분량,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선호도가 낮은 대학은 적은 분량, 낮은 수준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대학의 형편은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핵심교과를 시험함

타당한 입시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서 핵심경험은 모집단위의 대학공부에 전제가 되는 경험으로 해당 전공에 적성과 소질이 있음을 보이는 선수경험을 의미한다. 해당 나라 방문 경험, 문화원 프로그램 수강 경험, 역사·문화 다큐멘터리 시청 후 감상문을 쓴 경험은 어문계열의



핵심경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병원, 약국 등 의료보건 기관에서의 업무보조 및 봉사활동은 의학·보건계열의 핵심경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역량과 핵심경험은 교과외 활동으로 분류되어 대학의 입학사정관에 의해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타당한 대입시의 요건 중 '적격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역량은 각 모집단위에서의 대학공부에 필요한 교과 통합적 역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해당 나라의 문학, 언어, 역사, 문화, 지리, 외교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능력은 어문계열의 주요역량이 될 것이다. 생명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능력은 의학·보건계열의 주요역량이 될 것이다. 이런 주요역량은 프로젝트, 논술, 수상 경력, 주제 관련 보고서 등으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4> 진학을 위한 진로맞춤형 교과 및 활동(국어과 중심의 예시)

| 구분 | 인문사회계 | | | | 과학기술계 | | | | 예술계 | | | | 체육계 | | | |
|-----|---|-------------------------|-------------------------|--------------------------|--|--------------------------------|--------------------------------|--------------------------------|--|--|--|---------------------------------|--|--|--|------------------------|
| | 인문 | 사회 | 경상 | 외국어/국제 | 이학 | 공학 | IT | 약생명 | 음악 | 미술 | 연극영화영상 | 무용 | 체조/육상 | 운동/구기 | 스포츠경영 | |
| 교과 | 핵심(상) | 국어* 영어* 사회* | 국어* 영어* 사회* | 국어* 영어* 사회* | 영어* 제2외* 사회* | 영어* 과학* 수학* | 영어* 과학* 수학* | 영어* 과학* 수학* | 영어* 과학* 수학* | 음악* 실기 | 미술* 실기* | 연극* 영화* 실기* | 무용* 실기* | 체조/ 육상* 실기* | 운동/ 구기* 실기* | 스포 츠* 경영* 실기* |
| | 보완(중) | 한문* 융합* 과학* 수학 | 한문* 융합* 과학* 수학 | 수학* 융합* 과학* 한문* | 국어* 수학* 융합* 과학* | 국어* 융합* 사회* 정보* 기술 | 국어* 융합* 사회* 정보* 기술 | 국어* 융합* 사회* 정보* 기술 | 국어* 융합* 사회* 정보* 기술 | 국어* 영어* 융합* 사회* 융합* 과학* | 국어* 영어* 융합* 사회* 융합* 과학* | 국어* 영어* 융합* 사회* 체육* | 예술* 융합* 과학* 융합* 사회* 정보* 기술 | 예술* 융합* 과학* 융합* 사회* 정보* 기술 | 예술* 융합* 과학* 융합* 사회* 정보* 기술 | |
| | 교양(하) | 예술* 텍* 체육 | 예술* 텍* 체육 | 예술* 텍* 체육 | 예술* 텍* 체육 | 예술* 텍* 체육 | 예술* 텍* 체육 | 예술* 텍* 체육 | 예술* 텍* 체육 | 기술* 체육* 수학 | 기술* 체육* 수학 | 기술* 체육* 수학 | 기술* 융합* 과학* 수학 | 국어* 수학* 영어* | 국어* 수학* 영어* | 국어* 수학* 영어* |
| 교과외 | 토론활동, 문학창작활동, 독서신문 만들기, 시 쓰기 및 낭송활동, 통역 및 번역활동, 작가 및 문학관 탐방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진로상담, 적성검사, 직업체험, 캠페인활동 | | | | 실험 및 관찰 탐구 활동, 실습활동, 생태탐구활동, 환경보호운동, 과학관련 UCC 제작활동, 발명활동, 진로상담, 적성검사, 직업체험, 견학활동 | | | | 예술분야 활동, 만화그리기활동, 음악 감상 및 연주활동, 전시활동, 희곡 창작 및 연극제작 활동, 시나리오 및 영상제작활동, 진로상담, 적성검사, 직업체험, 예술 공연을 활용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 | | | 이론 교육과 실기 활동, 스포츠 활동, 질병예방활동, 청소년 및 사회단체 활동, 진로상담, 적성검사, 직업 체험활동, 체육 분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 | | |

*출처: 최은자, 홍후조(2012), "고등학교 국어과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미발표 원고에서

3. 대입시의 타당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1) 계열별로 더 적합한 대학입학 전형방식

입학사정관, 중등학교 교원, 3학년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관련 분야 전문직 종사자 등 237명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중 설문조사를 실시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홍후



조 외, 2010).

모집단위별로 적격한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적합한 대학입학 전형방식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학생부**가 전형방식으로 적합한 계열로 인문계열(60%), 교육(사범)계열(68%)이, 상대적으로 덜 적합한 계열로 예술계열(19%), 체육계열(22%)이 조사되었다. **대수능**은 예술계열(6%), 체육계열(5%)에서 적합하지 않은 전형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계열에서는 편차가 크지 않았다. 전형방식으로 **대학별고사**가 적합한 계열은 예술(76%) 및 체육계열(73%)이었다. 전체적으로 대학별고사는 **예술 및 체육계열**에, 학생부는 **인문 및 교육계열**에 적합한 전형방식으로 조사되었다.

<표 15> 적격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대학입시 전형방식 (계열별)

| 계열 | | 학생부 | 수능 | 대학별고사 | 계 |
|-------|----|------------|-----------|------------|------|
| 인문 | 빈도 | 110 | 46 | 26 | 182 |
| | % | 60% | 25% | 14% | 100% |
| 외국어 | 빈도 | 57 | 59 | 65 | 181 |
| | % | 31% | 33% | 36% | 100% |
| 상경 | 빈도 | 73 | 83 | 25 | 181 |
| | % | 40% | 46% | 14% | 100% |
| 사회 | 빈도 | 94 | 65 | 26 | 185 |
| | % | 51% | 35% | 14% | 100% |
| 공학 | 빈도 | 59 | 87 | 36 | 182 |
| | % | 32% | 48% | 20% | 100% |
| 자연 | 빈도 | 71 | 79 | 31 | 181 |
| | % | 39% | 44% | 17% | 100% |
| 의약/보건 | 빈도 | 54 | 93 | 42 | 189 |
| | % | 29% | 49% | 22% | 100% |
| 교육 | 빈도 | 125 | 41 | 18 | 184 |
| | % | 68% | 22% | 10% | 100% |
| 예술 | 빈도 | 36 | 11 | 145 | 192 |
| | % | 19% | 6% | 76% | 100% |
| 체육 | 빈도 | 44 | 9 | 146 | 199 |
| | % | 22% | 5% | 73% | 100% |

2) 성공적인 대학학습에 필요한 계열별 고교 선수교과목

대입시를 교육용으로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자. 대학에 진학해서도 성공적으로 학습하려면 어느 계열에서 어떤 교과를 미리 공부해야 하며, 경험에서는 어떤 활동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다.

먼저 대학공부에 필요한 고교 선수'교과목'에 대한 의견조사결과는 계열별로 차이가 컸다. 인문계열에 많이 필요한 교과목은 역사, 국어(상)이었으며, 중간 수준으로 필요한 교과목은 영어(중/상), 윤리, 정치·경제, 한문, 법·사회이었다. 외국어 및 국제계열에 많이 필요한 교과목은 영어(상)이며, 중간 정도로 필요한 교과목은 제2외국어, 정치·경제, 역사, 국어(상)이었다. 상경계열에 많이 필요한 교과목은 정치·경제였으며, 중간 정도로 필요한 교과목은 법·사회, 영어(상)이었다. 사회(일반)계열에 많이 필요한 교과목은 정치·경제, 법·사회, 역사였으며, 국어(중/상), 영어(중/상), 지리, 윤리는 중간 수준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공학계열에 많이 필요한 교과목은 물리, 수학(상), 화학이며, 영어(중), 공업, 국어(중)



는 중간수준으로 필요하였다. 자연과학계열에 많이 필요한 교과목으로 물리, 화학이 있었으며, 수학(상), 생물, 지구과학은 중간수준으로 필요하였다. 의학·보건계열에 많이 필요한 교과목은 생물, 화학이었으며 수학(상), 영어(상)은 중간 정도로 필요하였다. 교육(사범)계열에는 윤리, 역사, 국어(상)가 많이 필요하였으며 영어(중/상), 법·사회는 중간 수준으로 필요하였다. 예체능계열은 예술, 체육을 꼭 필요로 하였으며 역사, 국어(중), 영어(중), 윤리를 중간 수준으로 요구하였다.

<표 16> 대학공부에 꼭 필요한 고교 선수교과목(계열별, 복수 응답)

| | 인문 | 외국어/국제 | 상경 | 사회 | 공학 | 자연 | 약학/보건 | 교육 | 예술 | 체육 |
|-------|----------------|----------------|----------------|----------------|----------------|----------------|----------------|----------------|----------------|---------------|
| 국어(상) | 140 (16.3%) | 83 (9.8%) | 64 (7.6%) | 76 (8.7%) | 35 (4.1%) | 18 (2.1%) | 44 (4.9%) | 120 (14.0%) | 28 (3.1%) | 21 (2.3%) |
| 국어(중) | 31 (3.6%) | 55 (6.5%) | 59 (7.0%) | 71 (8.1%) | 63 (7.3%) | 56 (6.5%) | 50 (5.6%) | 47 (5.5%) | 94 (10.3%) | 91 (10.0%) |
| 국어(하) | 12 (1.4%) | 5 (0.6%) | 6 (0.7%) | 5 (0.6%) | 15 (1.7%) | 10 (1.2%) | 8 (0.9%) | 5 (0.6%) | 48 (5.3%) | 59 (6.5%) |
| 영어(상) | 77 (9.0%) | 155 (18.3%) | 91 (10.8%) | 52 (6.0%) | 46 (5.3%) | 36 (4.2%) | 95 (10.6%) | 70 (8.1%) | 24 (2.6%) | 20 (2.2%) |
| 영어(중) | 64 (7.5%) | 19 (2.2%) | 51 (6.0%) | 63 (7.2%) | 70 (8.1%) | 57 (6.7%) | 55 (6.1%) | 72 (8.4%) | 90 (9.9%) | 80 (8.8%) |
| 영어(하) | 5 (0.6%) | 10 (1.2%) | 4 (0.5%) | 5 (0.6%) | 9 (1.0%) | 5 (0.6%) | 3 (0.3%) | 11 (1.3%) | 50 (5.5%) | 53 (5.8%) |
| 수학(상) | 10 (1.2%) | 13 (1.5%) | 63 (7.5%) | 18 (2.1%) | 128 (14.9%) | 114 (13.3%) | 112 (12.4%) | 35 (4.1%) | 7 (0.8%) | 4 (0.4%) |
| 수학(중) | 24 (2.8%) | 27 (3.2%) | 51 (6.0%) | 22 (2.5%) | 35 (4.1%) | 31 (3.6%) | 40 (4.4%) | 51 (5.9%) | 19 (2.1%) | 22 (2.4%) |
| 수학(하) | 18 (2.1%) | 12 (1.4%) | 7 (0.8%) | 10 (1.1%) | 8 (0.9%) | 5 (0.6%) | 11 (1.2%) | 10 (1.2%) | 37 (4.1%) | 39 (4.3%) |
| 역사 | 145 (16.9%) | 99 (11.7%) | 60 (7.1%) | 135 (15.5%) | 11 (1.3%) | 10 (1.2%) | 9 (1.0%) | 120 (14.0%) | 108 (11.9%) | 76 (8.3%) |
| 지리 | 27 (3.1%) | 38 (4.5%) | 15 (1.8%) | 61 (7.0%) | 2 (0.2%) | 8 (0.9%) | 3 (0.3%) | 9 (1.0%) | 14 (1.5%) | 9 (1.0%) |
| 정치/경제 | 66 (7.7%) | 105 (12.4%) | 153 (18.1%) | 137 (15.7%) | 7 (0.8%) | 2 (0.2%) | 1 (0.1%) | 45 (5.2%) | 19 (2.1%) | 20 (2.2%) |
| 법/사회 | 62 (7.2%) | 59 (7.0%) | 97 (11.5%) | 137 (15.7%) | 5 (0.6%) | 3 (0.4%) | 14 (1.6%) | 65 (7.6%) | 45 (4.9%) | 34 (3.7%) |
| 윤리 | 75 (8.7%) | 35 (4.1%) | 42 (5.0%) | 55 (6.3%) | 15 (1.7%) | 8 (0.9%) | 63 (7.0%) | 124 (14.4%) | 87 (9.5%) | 97 (10.6%) |
| 물리 | 1 (0.1%) | 1 (0.1%) | 2 (0.2%) | - (-) | 148 (17.2%) | 148 (17.3%) | 39 (4.3%) | 4 (0.5%) | 6 (0.7%) | 25 (2.7%) |
| 화학 | - (-) | - (-) | 1 (0.1%) | - (-) | 117 (13.6%) | 147 (17.2%) | 144 (16.0%) | 2 (0.2%) | 1 (0.1%) | 2 (0.2%) |
| 생물 | 1 (0.1%) | - (-) | - (-) | 1 (0.1%) | 37 (4.3%) | 102 (11.9%) | 158 (17.6%) | 3 (0.3%) | 8 (0.9%) | 43 (4.7%) |
| 지구과학 | - (-) | 3 (0.4%) | 2 (0.2%) | 2 (0.2%) | 30 (3.5%) | 75 (8.8%) | 10 (1.1%) | 5 (0.6%) | 5 (0.5%) | - (-) |
| 공업 | - (-) | - (-) | 3 (0.4%) | - (-) | 66 (7.7%) | 4 (0.5%) | 2 (0.2%) | 1 (0.1%) | - (-) | 3 (0.3%) |
| 상업정보 | - (-) | 1 (0.1%) | 47 (5.6%) | 3 (0.3%) | 4 (0.5%) | - (-) | 5 (0.6%) | - (-) | 2 (0.2%) | 1 (0.1%) |
| 농업생명 | - (-) | - (-) | 2 (0.2%) | 1 (0.1%) | 1 (0.1%) | 11 (1.3%) | 16 (1.8%) | - (-) | - (-) | 2 (0.2%) |
| 수산해운 | - (-) | 1 (0.1%) | 6 (0.7%) | - (-) | 3 (0.3%) | 4 (0.5%) | 1 (0.1%) | - (-) | - (-) | 1 (0.1%) |



| | | | | | | | | | | |
|------|---------------|----------------|---------------|---------------|---------------|---------------|---------------|---------------|----------------|----------------|
| 가사실업 | 2 (0.2%) | - (-) | 3 (0.4%) | 3 (0.3%) | 3 (0.3%) | 3 (0.4%) | 3 (0.3%) | 12 (1.4%) | 4 (0.4%) | 6 (0.7%) |
| 한문 | 65 (7.6%) | 13 (1.5%) | 4 (0.5%) | 10 (1.1%) | - (-) | - (-) | 5 (0.6%) | 20 (2.3%) | 3 (0.3%) | 7 (0.8%) |
| 제2외 | 19 (2.2%) | 109 (12.9%) | 12 (1.4%) | 2 (0.2%) | 2 (0.2%) | - (-) | 1 (0.1%) | 4 (0.5%) | 28 (3.1%) | 6 (0.7%) |
| 예술 | 13 (1.5%) | 5 (0.6%) | - (-) | 3 (0.3%) | 1 (0.1%) | - (-) | 4 (0.4%) | 19 (2.2%) | 178 (19.5%) | 30 (3.3%) |
| 체육 | 1 (0.1%) | - (-) | - (-) | - (-) | - (-) | - (-) | 4 (0.4%) | 6 (0.7%) | 6 (0.7%) | 162 (17.7%) |
| 계 | 858 (100%) | 848 (100%) | 845 (100%) | 872 (100%) | 861 (100%) | 857 (100%) | 900 (100%) | 860 (100%) | 911 (100%) | 913 (100%) |

<표 17> 대학공부에 꼭 필요한 고교 선수교과목(종합 정리)

| 대학계열 | 바탕학습으로 많이 필요한 고교 교과목 | 바탕학습의 필요성이 중간 정도인 고교 교과목 |
|---------|----------------------|------------------------------|
| 인문 | 역사, 국어(상) | 영어(중/상), 윤리, 정치·경제, 한문, 법·사회 |
| 외국어/국제 | 영어(상) | 제2외국어, 정치·경제, 역사, 국어(상) |
| 상경 | 정치·경제 | 법·사회, 영어(상) |
| 사회(일반) | 정치·경제, 법·사회, 역사 | 국어(중/상), 영어(중/상), 지리, 윤리 |
| 공학 | 물리, 수학(상), 화학 | 영어(중), 공업, 국어(중) |
| 자연과학 | 물리, 화학 | 수학(상), 생물, 지구과학 |
| 의약 및 보건 | 생물, 화학 | 수학(상), 영어(상) |
| 교육(사범) | 윤리, 역사, 국어(상) | 영어(중/상), 법·사회 |
| 예술 | 예술 | 역사, 국어(중), 영어(중), 윤리 |
| 체육 | 체육 | 윤리, 국어(중), 영어(중), 역사 |

3) 대학공부에 필요한 계열별 교과외 활동 경험

교과만 공부한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인지적 공부는 정의적, 심동적, 사회적 바탕이 있어야 상호 상승작용을 하여 공부를 잘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교과공부만 능사가 아니다. 한인학생들은 교과공부를 과도하게 하고, 활동은 과소하게 하여 대학에 진학한 후에 성공적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탈락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는 미국 내의 연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공부에 필요한 교과외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교과외 활동은 ① 학생회 및 학습활동, ② 동아리(클럽, 단체) 참여활동, ③ 대회참가 및 수상과 자격증 취득, ④ 주제탐구활동 및 프로젝트·포트폴리오 제작, ⑤ 인턴십 및 직업체험·진로확인 활동, ⑥ 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교과외 활동에 대한 응답자의 계열별 의견은 아래 표와 같다.

대학학습에 필요한 교과외 활동을 조사한 결과, 인문계열에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활동은 대회참가 및 수상, 인턴십 및 직업체험/진로확인 활동이었다. 외국어·국제계열에 필요한 활동은 동아리 참여활동으로 나타났다. 상경계열은 대회참가·수상/자격증 취득 활동을, 사회(일반)계열은 주제탐구활동/프로젝트·포트폴리오 제작, 대회참가·수상/자격증 취득 활동을 별로 요구



하지 않았다. 공학 및 자연과학계열에 많이 필요한 활동은 주제탐구이었으며, 적게 필요한 활동은 봉사활동, 학생회·학급활동이었다. 의약·보건계열에 많이 필요한 활동은 봉사활동이며, 덜 필요한 활동은 대회참가·수상/자격증 취득활동, 학생회·학급활동이었다. 교육(사범)계열은 봉사활동을 많이 요구하였으며 대회참가·수상/자격증 취득활동을 덜 요구하였다. 예체능계열에 많이 필요한 활동은 대회참가·수상 및 자격증 취득, 동아리 참여활동이었으며, 덜 필요한 활동은 학생회/학급활동이었다. 모든 계열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은 범(통합)교과적 주제탐구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일부 우수한 학생에게 소위 상위권 대학들이 요구하는 항목들에 불과하다. 이를 대중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현상이고,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경험이 있고 사회적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들이다.

<표 18> 대학공부에 꼭 필요한 고교 교과외 활동(종합 정리)

| 계열 |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활동 |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활동 |
|--------|----------------------------|--------------------------------------|
| 인문 | | 대회참가 및 수상, 인턴십 및 직업체험/진로확인 활동 |
| 외국어/국제 | 동아리(클럽, 단체) 참여활동 | |
| 상경 | | 대회참가·수상/자격증 취득활동 |
| 사회(일반) | | 주제탐구활동/프로젝트·포트폴리오 제작, 대회참가·수상/자격증 취득 |
| 공학 | 주제탐구 | 봉사활동, 학생회·학급활동 |
| 자연과학 | 주제탐구 | 봉사활동, 학생회·학급활동 |
| 의약/보건 | 봉사활동 | 대회참가·수상/자격증 취득활동, 학생회·학급활동 |
| 교육(사범) | 봉사활동 | 대회참가·수상/자격증 취득활동 |
| 예술 | 대회참가·수상 및 자격증 취득, 동아리 참여활동 | 학생회/학급활동 |
| 체육 | 대회참가·수상 및 자격증 취득, 동아리 참여활동 | 학생회/학급활동 |

아래는 주로 교과를 중심으로 강익수 박사(2010)의 제안 의견을 수정한 것을 소개한다. 인문과정에서는 한문, 사회과정에서는 사회, 국제과정에서는 제2외국어나 사회, 경상과정에서는 수학이 강조되어야 하며, 생명의약과정에서는 수학보다 화학과 생명과학이, 공학과정에서는 기술이, 예술과 체육 분야는 해당 분야 실기나 이론도 중요하지만, 예술과정에서는 문학이, 체육과정에서는 생명과학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국어나 외국어 시험 등에서는 해당 과정에 중요한 교과의 내용을 소재로 한다.

<표 19> 진로맞춤형 고교 교육과정(진로 집중과정)에 따른 타당한 대입시“안”

| 계열 | 과정 | 교과 | 국어 | 외국어 | 사회 | 수학, 과학, 기술 |
|----|----|----|-------|-----|----------------|----------------|
| | | | 인문 사회 | 인문 | 문학 중심 한문 포함 | NEAT 2급 제2외 |



| | | | | | |
|----------|------------------------------------|-------------------|---------------------------|-------------------------|--|
| 인문 사회 | 사회 | 비문학 중심 | NEAT 2급 | 지리, 정치/법 중심 | 확률과 통계(고1수준), 융합과학(기술 포 함) 택1 추가가능 |
| | 경상 | 비문학 중심 | NEAT 2급 | 경제 중심 | 미적분 기본(행렬, 고2수준), 융합과학(기 술 포함) 중 택1 추가가능 |
| | 국제 | 문학 중심 | NEAT 2급 제2외 | 세계사/세계지 리/국제관계 중심 | 수학기분(중3수준), 융합과학(기술 포함) 중 택1 추가가능 |
| 과학 기술 | 과정 교과 | 수학 | 과학, 기술 | 외국어 | 국어, 사회 |
| | 공학I(화/생, lab) | 미적분 심화 | 화학, 생명과 학, 물리 중심 | NEAT 2급 | 국어기본(문학중심, 비문학중심) 융합사회(정치경제, 역사, 지리, 사회문화 /윤리/법) 중 택1 추가가능 |
| | 공학II(수/물, field현장) | 미적분 심화, 기하 | 물리, 기술, 지 구환경과학 중 심 | NEAT 2급 | |
| | IT | 미적분 기본 | 물리, 기술, 컴 퓨터 중심 | NEAT 2급 | |
| | 의약생명 | 확률과 통계, 수열 | 화학, 생명과학 중심 | NEAT 2급 | |
| 예술 | 과정 교과 | 예술 | 국어 | 외국어 | 사회, 과학, 기술, 수학 |
| | 음악, 미술디 자인, 연극영 화, 문화콘텐 츠 | 실기/포트폴리 오/입상성적 | 문학중심 (고3수준) | NEAT 3급 제2외 | 사회기본, 수학기분, 과학기본, 컴퓨터기 본(기술 포함), 예술이론, 체육분야 지원 자), 체육(실기, 예술분야 지원자) 중 택1 추가가능 |
| 체육 | 과정 교과 | 체육 | 국어 | 외국어 | |
| | 체조육상, 운 동구기, 스포 츠산업경영 | 실기/입상성적 | 비문학중심 (중3수준) | NEAT 3급 | |

* 위 표는 교과를 교육목표에 따라 나누고 이를 입시에 반영한 것이다. 교과의 종류와 수는 교육목표(교육목적 달성
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할 때 포괄성과 배타성을 띠어 간결해진다. 하위 영역이나 분야로 나누면 교과목수는
자꾸 늘어나게 마련이다. 즉 모국어로 사고하고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는 국어,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외국어, 수와
양의 관계적 질서를 탐구하는 수학, 개인과 집단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 자연과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 자연과 사물의 원리를 활용하여 의식주 생활에 혜택을 추구하는 기술, 심미적 상상력과 창조적 표현을
증진하는 예술,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체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각 교과는 하위 과목이 다양하여 쓸모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모든 교과 시험은 하나가 아니라 종류는 같으나
범위, 분량, 수준이 다른 시험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위의 표를 보면 온통 시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
려고 든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속에는 학생의 진로(적성 후 능력수준), 대학의 형편(2~4년제, 선호도 경쟁
률 선발 모집 형편 등)에 따라 선택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부득이 합쳐서 보여준 것이다.

중복되지만 진로맞춤형 교육과정과 수업에 이어 내신제도나 수능을 비롯한 대입시가 진로맞
춤형이 됨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내신제도 개선과 대입시: 사회적 자본을 형성 확대하기 위한 사회사업기구로서 학교는 개인
간 경쟁보다 공동체 성원으로로서 협력을 강조하여 가르쳐야 한다. 학교교육의 사회적 취지에
맞게 개인 간 경쟁이나 자기주도 학습능력만 아니라 협동적 학습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이 점
에서 중학교의 석차나 고교의 석차등급은 비교육적이므로 폐지된 것은 잘 된 것이다. 대신 진
로에 가장 중요한 과목의 성적표기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이수자수를 표기하면 바람직하
다. 그 활용과 가공은 독자와 사용자 몫으로 남겨둔다. 공연히 A, B, C 같은 평어를 덧붙이면



A를 많이 만들기 위한 성적부풀리기만 조장한다. 진로에 따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과목은 우수-보통-미흡의 3평어만으로 충분하다. 시험에서도 선택형을 대폭 줄이고 수행형, 서술형(논술형)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진로맞춤형 대입시 정립: 현재 대학입시는 불필요한 과잉학습과 꼭 필요함에도 과소학습을 유도하고, 무질서하고 복잡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 학생, 학부모, 고교에게 고통만 안겨 주고 있다. 타당하지 못한 입시로, 수영선수를 뽑는데 주먹 힘이 센 권투 잘 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격이다. 모집단위별로 특성화된, 타당한, 치를만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대학의 보건 의료 간호 생명 등은 비슷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모집단위로 진학할 학생들은 과학 중 화학과 생명과학을 잘 하고,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을 확인하는 대입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경상계열은 문과지만 수학이 많이 쓰이므로 수학을 더 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각 계열과 모집단위별 바탕학습에 해당하는 과목과 체험활동을 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예측 가능한, 타당한, 특성화된, 공정한 입시경쟁을 만들어야 한다. 인문, 사회, 경상, 외국어·국제, 이학, 공학, IT, 생명의학, 예술, 체육 분야도 모집단위에 맞는 필요한 공부와 체험활동을 유도하는 타당하고 공정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공들여 해야 할 일이다.

교과수업이나 수능에서 아직도 국영수는 과잉통합되어 있고, 탐구영역은 과잉분화되어 있다. 바람직한 방향은 전자는 더 분화하고(최소한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체육의 4개), 후자는 더 통합(융합)해야 한다. 또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혜택을 주기 위한 기술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다. 기술도 체육이나 예술처럼 실기가 필요하다면 실기를 시험하거나 자격증(면허증) 등으로 대신해야 한다. 세계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영어 일변도가 되지 않도록 외국어 정책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수능의 경우 사회과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이미 너무 잘게 나누어져 있어 통합교과적 성격에도 가장 맞지 않는다. 출제범위도 좁아 더 이상 시험문제를 만들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수험생들은 범위가 좁고 수준이 낮으면서 단기간 집중하여 성과를 올리는 한국지리, 사회문화, 한국근현대사, 윤리 등에만 쏠린다. 융합과학처럼 융합사회과까지는 못가더라도, 사회문화 바탕위에 윤리도덕이 있고 윤리의 최소한인 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는 것이 맞고, 법과 정치 및 경제도 밀접하므로 하나로 합치고, 한국사와 세계사를 개방적 교류사로서 통합하여 하나의 역사 시험을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며, 지리도 한국, 세계, 인문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험으로 만들어 더 종합되고 통합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회과는 역사 중심, 지리 중심, 정치경제 중심, 사회문화윤리법 중심으로 하여 다른 영역과 통합(융합)을 모색하는 것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향후 우리 교육이 지향할 방향성이 다양성(diversity)이라면 지금의 고부담(high-stakes) 대수능은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대수능이 저부담 시험으로 다양해진다면 고교는 인성교육, 직업교육, 교과외 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지금보다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도 대수능 외의 다양한 전형자료로 설립이념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더 잘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수능을 자격시험화하는 것도 대수능의 고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겠지만, 대학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 대수능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 대신 지금처럼 하나의 길목만 있는 대수능을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다양하게 여러 갈래로 나눌 필요가 있다. 혹자는 너무 일찍부터 아동의 진로를 고정화한다고 하지만, 단점이 너무 크게 부각된 것일 뿐이다.

다양한 종류의 대입시험(지필시험이 아닐 수 있음)을 메뉴로 제공한다면 대학은 목적, 성격, 상황, 전공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전형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종류별 총점을 활용할 수도



있고, 특정 과목만 사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택은 대학의 몫이다. 한동대학처럼 학부 중심의 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등 기초과목만 활용할 것이며, 한국기술교육대학처럼 실무 중심의 대학은 과학, 기술 등에 가중치를 더 둘 것이다. KAIST는 수학, 영어, 과학, 기술 교과목의 성적을 더 중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처럼 연구중심대학의 학부는 성격이 애매하다. 그래서 교과목보다는 수능 총점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깊이 들어가면 모집단위마다 가중치를 두는 대수능과 교과목이 다를 것이다. 대수능을 언제, 몇 번 치러야 한다는 것은 위의 문체에 비하면 부차적이다. 토익, 토플을 언제, 몇 번 치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듯이.

우리 교육이 획일성을 벗어나 다양해지려면 저부담(low-stakes)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럴 경우, 단점도 있다. 미국 등지의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월반, 유급이 있고, 중학교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고교는 당연히 거의 이동수업이 가능한 근본 이유는 교육이 저부담이며,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고교가 지금보다 다양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하려면, 대수능의 고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대수능을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 길목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먼저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들고, 대수능에게 우리가 다양하니 너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양자의 방안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좋겠다.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수업-대입시는 동반해야 교육개혁이 실질적이 된다. 진로맞춤형의 수능부터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 교육계에서는 고교에게 '대입시 준비교육을 하지 말라'고 장학지시를 오랫동안 해왔다. 왜 입시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것은 입시준비가 시험문제풀이로 단순 반복, 창의성과 거리가 먼 정답 맞추기, 정답 틀리지 않기, 암기 주입식 교육의 대명사이기 때문이다. 입시준비를 할수록 뭔가 잘못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선택형시험이 일상과 학문을 포괄하지 못하고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발상을 전환하여 학생이 애써 공부할만한 입시, 치를만한 입시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떨까? 이 글에서는 입시준비교육을 애써하고 입시준비를 열심히 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방향과 내용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고 열심히 성의를 다해 입시준비를 하라고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 것이다. 교과공부에 대한 부담을 진로 집중과정,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창의적 체험활동도 열심히 참여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고교 마지막 학년도를 대학과 유사하게 여유 있게 운영하는지(탈선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청소년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장단점이 아울러 있음)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

진학계 고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치를 만한 입시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은 학교에서 교과를 배우고 교과외 활동을 수행한다. 학생이 고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공부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한 대입시이다. 이점에서 선발용 입시는 변별력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을 따지지만, 교육용 입시는 학생의 학습의 계속성 유지,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최근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입학사정관이 별도의 전형을 만드는 것은 결국 현재에도 복잡한 입학전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입학사정관들은 각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반드시 필요한 정성적·



질적·종합적 판단 부분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타당한 입학전형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대학 내 대입시를 선수학습교과가 같은 모집단위별로 분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간의 입시는 관리 차원에서 객관적 선발이 우선이었다면, 앞으로 입시는 종합적인 잠재력 판단, 학생들의 꿈을 찾아 키워주는 인재 발굴의 교육용 입시이어야 한다. 개별 대학이 중구난방으로 입시를 만들면 학생, 교사, 학부모는 복잡하여 대응을 할 수 없다.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학원의 컨설팅을 받게 된다. 결국 사교육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교육 스트레스는 크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과부, 대학교육협의회, 각 대학은 '할 만한 입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의 대학입시는 국영수 및 총점 중심이며, 교차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무 것이나 시험 치러서 점수 잘 나온 것을 제출하라는 식으로 과잉학습과 과소학습 및 사교육을 유발하여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해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발용 대입시와 개별 대학의 중구난방의 입시 전형은 매우 복잡하여 수험생과 학부모 및 고교 교사들이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모집단위별로 비슷한 바탕학습과 경험을 사전에 정해 줄 필요가 있다. 모집단위가 비슷하면 바탕학습할 교과와 교과외 활동을 비슷하게 요구해야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들이 대처가능하다. 그 모집단위에 진학하려면 그런 교과공부는 꼭 해야 하고, 그 일은 할 줄 알아야 하고, 적성과 진로를 확인하는데 그 체험은 필수적이니까 애써 공부해야 한다고 권할 수 있어야 한다. 타당한 대입시는 대학의 형편이 서로 다를지라도, 비슷한 종류의 바탕 학습을 필요로 하는 모집단위를 묶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구안될 수 있다. 타당한 대입시는 그것이 고교단위 내신이든 전국단위 수능이든, 대학단위 시험이든 어디서든 일관되게 관철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200년 된 프랑스 대입시 바칼로레아는 계열별로 공부할만한 바탕학습을 잘 보여준다. IB DP에서도 진학할 계열에 맞추어 학생들은 교과학습을 선택 집중한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도 모집단위별, 계열별로 꼭 필요한 선수학습할 교과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문이과식 대별이나 국영수 식은 아니다.

대입시 타당화는 특정 대학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대학 간 합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대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도대학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큰 틀이 합의되면 학생들의 공부나 대입준비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질 것이다. 방향과 틀이 마련된 대입시 속에서, 각 대학들은 일정한 '변주곡'을 울릴 수 있다. 즉, 각 대학은 나름의 특성을 살린 입시전형을 구안할 수 있다. 여기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기대된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이념과 목적을 반영한 전형을 개발하여 우수학생을 선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교내외적으로 입학사정관의 위상과 그 존재의의도 높아질 것이다.

타당한 입시, 즉 진로별 입시가 마련되면, 모집단위별로 공통적인 바탕학습(꼭 필요한 교과나 활동)이 사전에 정해져 알려진, 타당한 대입시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안정된 입시로 사회적 비용이 축소될 것이다. 적성과 진로에 맞는 타당한 입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높아지고, 입시 관련 국민 문해력이 향상될 것이다. 중등과 대학교육이 안정되고 충실해지며,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사교육 축소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축소되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경감될 것이다.

타당한 대입시로 모집단위별 적격자를 선발하면 신입생의 학습결손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교차지원 관행이 해소되어 대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성적과 대학보다 적성과 학과 위주로 진학하여, 학생들의 모집단위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부적응학생이 줄게 될 것이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입시 제도가 가닥을 잡아가서 결과적으로 교육수요자들에게 기여하는 대학이 될 것이다.



타당한 대입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유의미한 학습을 유도할 것이다. 불필요한 과잉학습, 필요함에도 과소학습하는 관행을 근절시킬 것이다. 교과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여 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적성과 학과 위주로 진로 선택을 유도하여 성적에 맞추어 대학가는 풍토가 줄어들 것이다. 3년간 공부한 성과가 대입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모든 학생이 각자 다른 진로에 따라 대입을 준비하므로 서로 다른 방향(360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경쟁할 가치가 있는 모집단위에서 유의미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에 제시된 바탕학습에 맞추어 학부모는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필요한 사교육만 제한적으로 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요구하는 핵심교과가 서로 다르므로 중시되는 교과와 경시되는 교과간의 차별이 줄게 되고 그간 입시에서 소외된 교과도 중요하게 취급하는 모집단위가 있어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진로별 교육과정과 수업 및 대입시로 연결되어 학생들의 진로를 안내, 유도, 개척해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여기서는 결코 특정한 안이 가장 타당한 대입시라고 하지 않았다. 더 타당한, 더 치를만한 입시를 모색하고자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였다. 즉 진로에 꼭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적·성공적으로 학습하는데 바탕이 되는 공부를 하되, 문이과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분화된 진로 집중과정에 따라 필요한 바탕공부를 강조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협의를 거쳐 타당한 공부, 애써 공부할만한 가치가 있는, 중등학생들이 공부에 덜 지치는 선택과 집중을 돕는 대입시를 협의해서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익수(2009).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계승혁(2002). 자연계 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문제점과 대처 방안. 19회 수학교육 심포지엄 주제발표원고.
- 김대석(2010). 대입시 현황과 대학 중도탈락률 분석을 통해서 본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용(2003).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중등학생 교과목 선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이보경.장수철(2008). 고등학교 과학 심화선택과목 이수여부와 대학 과학 교과목의 학업성취도. 교육과정연구, 26(2), 191-210.
- 정광희.이종재.김홍원.김정원.조덕주.함석동.구리나.이희숙(2004).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KEDI 8년 연구: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전형연구 -특별전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홍후조(2005). 대학 전공 학습을 위한 고교의 선수학습과목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 연구. 교육과정연구, 23(3), 257-288.
- (2011). 진로 집중과정의 설계 방법 및 학교간 실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학회 발표 원고.
- 홍후조.강익수.김정원.남현우.백경선.이병호(2004). 2008학년도 대학입시전형에서 고교 내신과 그 활용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홍후조·김대석·강익수·김규환·김정희(2009).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입시 타당화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서.
- 황지현(2007). 중학생의 고교 진학 후 학습 경향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MEMO



I부. 3rd 발제문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을 위한 제언

✦ 조자룡 || 서울국제고 교사/ (사)전국영어교사모임 사무총장



제15회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토론회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을 위한 제언

조자룡((사)전국영어교사모임 사무총장)

현재 한국 공교육이 처한 위기의 원인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 변화를 겪은 모든 분야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공교육의 자율적 역량이 성장할 에너지와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교육과 경쟁할 수준으로 스스로 변모할 시기를 놓쳐버렸고, 사회적으로는 공공재의 영역에 해당하는 공교육적 가치들이 개인이 교육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 사교육의 교육 기업 활동의 자유, 대학의 선발의 자율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들로부터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주도권을 교육전문가들이 아닌 관료, 기업, 부패 사학에 빼앗긴 것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에서 교육이 보존하고 있는 공교육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쉽게 낼 수 없을 만큼 현재의 한국 공교육은 전 방위에서 가치를 상실하고 대안의 부재에 허덕이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법의 형식과 내용을, 교육을 담당한 교사와 전문가의 전문성에 바탕한 이론과 실재를 구비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정치와 관료들의 규제로 제한당하며, 교육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민주적 정통성의 확립과, 지역사회와 학교 단위에서는 거버넌스의 확립과 민주적 소통의 회복이 절실하다.

교육예산 부족의 누적된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한국 정부의 교육예산은 GDP 4%를 밑도는 수준이다.⁴⁾ 김대중 정부 시절의 5%에 근접한 교육예산은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거치며 4% 이하로 다시 줄어들었다. 다른 선진국이 50년간 꾸준히 5-6%를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교사가 악쓰고 큰소리치며 가르칠 수밖에 없는 현재 한국의 교실 당 학생 수, 교사의 잡무가 넘치는데도 부족한 정규교원 등 낙후된 우리 교육여건이 이해가 된다. 부족한 교육예산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는 치명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

현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위기의 내용은 교육을 이끌어 가는 방향타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을 담당한 정부와 학자들의 교육적 권위가 정치적 급진주의와 과시주의에 희생 되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다. 애초에 부족한 집행능력과 관리능력과 함께 새로이 등장한 권위와 객관성의 상실, 정치적 당파성의 난립으로 특정 정권의 집권과 함께 무효화되는 장기적 원칙과 전략의 상실은 상상 이상으로 교육적 대화를 단절 시켰다. 합리적 대안과 객관성에 바탕한 교육적 권위의 회복, 정치적 교육적 대화의 복원과 장기적 합의의 구현이 2012년 현재 한국 교육문제 핵심의 가장 큰 난제이다.

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08576.html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문제를 정리해보면서, 결국 이 문제 역시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높이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앞서 진행된 11월의 토론들이 좋은 결실을 맺었기를 희망해본다.

I. 한국 사회의 교육적 불평등

전통적 훈육에 바탕하고 어려운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한 것을 평가하는, 학습자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기인한 성과중심의 공교육 패러다임은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정보의 수집과 가공, 엄청난 조기교육과 꾸준한 사교육을 통한 반복적 훈련이 학생 능력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인의 의지, 노력, 재능보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 빈곤층 82만4000가구는 대부분 고졸 부모 가구이고,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이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때부터 교육비를 지출하느라 30대부터 교육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중·고생 자녀를 둔 40대는 소득의 56%를 교육비로 지출한다. 그런데 아무리 쥐어짜서 지출해봐야 더 많이 지출하는 계층, 더 빨리 지출하는 계층한테 항상 뒤진다.⁵⁾

가정의 사회 경제적 능력이 공교육을 통해 완화되고,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능력의 개발로 공교육의 과정이 설정되지 못하면서 교육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다.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맡겨진 교육은 이른바 학원식 암기와 반복 수업, 조기 교육을 통한 엄청난 물량 공세로 자유로이 꿈꾸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성적의 노예들을 양산하고 있다. 실제로는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성취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영어의 경우, 해외 어학연수를 해마다 다녀오거나 영미권에서 1-2년의 체류를 하는 등 초등학교의 사교육 수준이 이미 공교육을 거쳐 대학에 입학하는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다. 이미 공교육 12년의 수준을 해외체류 2년으로 끝낼 수 있고, 단지 1억 정도의 비용이 문제일 뿐이다.

교육과정의 연구와 내용적 위계와 연계성의 부실, 교과서 체계의 단선적 지식 배열의 한계, 학교 평가의 교육적 가치 저하 등으로 공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발전이 지체되고, 대학 입시 영향력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사교육의 준수와 내신반영률의 저하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TOEFL, 경시대회, 체험학습 등의 스펙이 변별력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되었다. 입시가 다양해질수록 입시에 미치는 소득격차의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가의 교육력 확대이다. 교육을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의 존중, 시민적 리더십의 확보, 국민과 국가

5)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85544&url=n>



의 통합을 만들어 낼 수 없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모델로 보자면 강력한 국가의 공교육 정책으로 시민교육과 개인의 특성과 소질에 따른 선택적 교육에 대한 욕구는 조화될 수 있다.

교육예산을 GDP 5%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법정 정규교원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을 정비해 안정적 교원 확보와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 사범대 정원을 조절하여 예비 교사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의 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의 역량이 학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이수단위 신설과 상담 및 부적응 및 학습부진아 지원 프로그램 역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공교육 본질과 학교교육

1) 공교육의 목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교육받은 공민성(civility)를 갖추고, 흥미와 재능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교육은 서로 다른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 대화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2) 공교육을 중심으로 개별적 교육 욕구 통합

현재 과고, 외고, 자사고 등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분야로만 한정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은 모두 일반계 고등학교로 통합하는 것이 현재 대입의 준비 과정으로서만 존재하는 대부분의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목적과 부합한다.

그 외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적 수요를 위해서 그 이상 수준의 강의는 모두 공교육에서 제공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 중등 교육과정의 최종 성취기준을 설정한 후 교사별 평가제 도입하고; 2) 직업선택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일반 중,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한 후; 3)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육수요를 위한 과정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규정해 방과후와 주말을 이용해 학교에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4) 대학 수준에 해당하는 영재 교육의 경우, 영재원을 국가가 설립해 주말을 이용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5) 대학의 교육력과 교육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III. 교육의 본질 회복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

대입전형은 오로지 대학의 교육력에 바탕한 자율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자율성의 근거는 인간 평등과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 국가 교육과정의 준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의 존중에 있어야 한다.

대입전형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불평등이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



며 초, 중등 교육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차적인 차별의 양상에 해당한다. 이미 차별된 학생들을 평가가 차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늘린다고 해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불평등이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은 기본적 교육 불평등을 중등교육의 과정에서 최소화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의 대입전형의 논리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해야 한다면, 유일한 방안은 중등 교육과정의 준수라고 제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또한 교육과정의 기술된 바로서의 내용과 교육적인 실행의 괴리를 고려해야 한다.

1. 현재 활용되는 대입전형의 요소

- 1) NEIS : 내신성적, 비교과 (독서, 동아리, 봉사, 체험 등)
- 2) 수능 성적
- 3) 공인 외국어: TOEFL, TEPS, DELE, DELF, JALT, HSK 등
- 4) 기타 공인 성적: SAT, AP
- 5) 경시대회 수상
- 6) 추천서

2. 대학 전형 유형

- 1) 수시(정원의 80% 가량):
 - 1단계: 내신성적 > 공인외국어 성적 > 비교과
 - 2단계: 면접, 논술
- 2) 정시(정원의 20% 가량):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3. 교육적 불평등 고려 유형

- 1) 중등학교 수준: 수준별 이동수업, 학비 지원
- 2) 대학 수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지역균형 등

4. 바람직한 대입 전형의 방향을 위한 제언

1) 내신성적

공교육의 강화와 함께 교육적 불균형의 완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내신성적이다. 내신성적이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특목고 때문이다.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특목고가 없다면 대학에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실질반영율을 낮추거나, 학교에 따라 내신을 달리 적용할 이유는 거의 소멸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인 영어, 외국어 시험

한국의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서 공인영어 성적이 가능한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위권 대학의 TOEFL 105-115 수준은 조기 영어 교육이나 해외 체류 경험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 교육적 불평등을 최종적으로 집약시킨 요인이다.

3) SAT, AP



특목고 일부의 학교에서 해외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가르치고 있으므로, 한국의 공교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4) 봉사, 학급임원, 독서, 동아리 및 교내 활동

이는 한국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학교 자치와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지역 사회 단체와의 교류가 갖는 긍정적 기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며, 창의성과 인성을 교과지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분야이다.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조기교육과 사교육으로 개발된 성적과는 달리 개인의 흥미와 소질을 통해 성적을 대체하고 보완할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학교급에서의 좋은 교육관과 교사들의 노력이 잘 어우러진다면, 일반 학교에서 특목고보다 우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나, 현실적으로는 자유롭고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5) 추천서

학생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추천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객관적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학생과 교감하는 교사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학부형과 학생들의 불편 부당한 간섭에서 멀어져 가장 객관적으로 학생을 기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오랫동안 학생을 관찰하고 만나며 발견한 다양한 의견과 판단은 성적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담은 근거가 된다.

대학입시의 가장 큰 목적이 교육 불평등의 해소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숙고하고 많은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학 입시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것임에 분명하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들의 잠재력을 대학이 인정하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자산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서구의 선진국에서 대학의 권위와 교육력이 인정을 받는 것은 흠 없는 우수한 선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합리적이고 고른 인재를 다양하게 선발하고, 이들을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자격과 능력을 갖춘 후에 졸업을 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학에서는 졸업을 못하는 사유가 강의를 쫓아가지 못해서라는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경제적 여건 또는 재수, 삼수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

교과와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교육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적 경쟁을 누그러뜨리는 가능한 교육적 방식으로는 '교사별 평가제를 통한 절대평가제'를 들 수 있다.⁶⁾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과 교재 구성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되면, 일괄적인 중간, 기말고사가 사라지게 되고, 내신성적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크게 줄게 된다. 수업이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로 구성되고 이에 바탕한 교과지식의 경험과 내용을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공교육을 통해 가능해지면, 반복과

6) 현 이명박 정부의 '절대평가' 도입은 교사별 평가제를 엄두에 둔 것이 아니라 특목고 재학생들의 오랜 숙원인 내신성적 불이익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고려되어, 이와 구별하기 위해 '교사별 평가를 전제로 하는 절대평가'라고 명명한다.



암기 중심의 교육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성취에 대한 질적인 기술이 더해지고, 대학추천서와 함께 구성된다면 학생의 학습과정과 능력을 비롯해 다양한 인성적 측면을 아우르는 자료가 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다양한 입학전형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대학이 각자의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또 성적중심의 일차원적 개인 능력을 종합적인 다차원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잘 정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다만 선발이 요구하는 교육의 내용과 경험의 범주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국가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을 존중해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 역시 대학입학을 위해 시험을 보고 이 성적이 입학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의대와 법대의 경우 사교육을 거의 필수로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짧은 기간으로 한국으로 치자면 과외가 금지된 90년대 초반의 수준에 해당한다. 핀란드 교육의 핵심은 교육적 낙오자가 없는 교실이다. 중등학교 거의 전 과정에서 학업능력이 뒤지거나 약한 학생들에게 모든 교육력을 집중시키는 덕택이다. 30점 학생을 60점 만드는 것이, 90점 학생을 95점 만드는 것보다 의미 하다는 교육적, 경제적 탁월함이 빛나는 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 교육전문가, 교육단체들이 끊어진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현 정부에서 단절된 대화를 회복하고 학문적 객관성과 자료를 모아 현실을 검토하고, 문제를 확인한 후, 해결에 대한 논점을 모아야 한다.

교육 당국과 전문가들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열정과 논리와 실험으로 성공의 확신을 보여주고, 민주적 합의에 바탕한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교육문제들은 그 이후에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다.



|| 부. 1st 지정 토론문

토론문

✦ 강태중 || 중앙대학교 교수



제15회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토론회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제도’ 논의에 대한 토론 메모

강태중(중앙대학교 교육학과)

1. 논의 주제의 어려움

가. ‘교육의 본질’이란?

- ‘교육’ 자체가 다양한 이해(利害)와 관점이 달려들어 꾸준히 다투며 규정하게 되는 개념
- 실증적이기 보다 규범적으로 그 의미를 규정하게 되는 성질

나. 교육 불평등이란?

- 정의(正義)에 대한 철학적 입장 차이 또는 이념의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만큼 그 의미에 합의를 보기 어려움
- ‘교육 내재적’으로 규정하느냐 ‘교육 외재적’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도 난제

2. 교육의 본질과 교육 불평등 그리고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연계 시키는 논리의 한계

- ‘평가’를 통한 ‘교육’의 제어?: 대학입학전형제도를 통하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 교육 불평등의 연원은 교육 안에 있다?

3. 발제 원고의 갈림

가. 교육의 본질

- “교육의 본래적 목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일’, ‘전인과 공인에로의 성장과 발달’, ‘전인과 공인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일’이다.”
-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 수업,”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학습기회 제공으로서 고교교육”....
- “국가의 모든 시민들이 교육받은 공민성(civility)를 갖추고, 흥미와 재능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교육은 서로 다른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 대화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 교육 불평등

-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전인과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이 편파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조건”
- ??
- “인간 평등과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 국가가 교육과정의 준수,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합의의 존중이 되어야 한다.”

다. 대학입학전형 제도(방안)

-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전인과 공인의 영역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발 방식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 “고등사고능력을 선발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 “현행 내신제도의 최대의 강점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점이다.”
- “특별전형을 통한 방식들은 특수한 종류의 약자들을 특수하게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배려하는 방식이다.”

- “프랑스 혁명 후에 자유, 평등, 박애 정신에 따라 설계된 바칼로레아가 지난 200년을 버티는 것은 진로별로 꼭 필요한 공부를 유도하는 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따뜻한 직업교육과 냉철한 진학교육’을 실시하여 대입시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다른 유럽 여러 나라 대입시의 공통된 특징이다. 우리보다 앞서 학습자의 진로에 기초한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및 다원화사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토양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대부분 학생의 선택에 맡겨지는 자유방임적인 영미식은 교육자원이 많이 동원되지만 (학생의 낱알의 과목 선택에서) 시행착오로 인해 성과가 낮고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 유럽식은 철저한 계획이 선행되고 작동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무학년제는 교육단계별로 일정한 진학 및 직업 교육 정도를 가능하는 기준이 뚜렷하고 양자 간의 호환에 대한 기준도 분명해서 엄밀하게 작동되고 있다. 우리와 미국이 대학을 가라고 군불을 때는 warming up system이지만, 유럽식은 공공재정으로 대학교육 시키는 비율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cooling down system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교과 특성화가 확대된다면 유럽식의 학습자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정별 특성화와 같은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교과와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교육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성적 경쟁을 누그러뜨리는 가능한 교육적 방식으로는 ‘교사별 평가제를 통한 절대평가제’를 들 수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과 교재 구성의 자율권이 크게 확대되면, 일괄적인 중간, 기말고사가 사라지게 되고, 내신 성적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크게 줄게 된다. 수업이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로 구성되고 이에 바탕한 교과지식의 경험과 내용을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공교육을 통해 가능해지면, 반복과 암기 중심의 교육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성취에 대한 질적인 기술이 더해지고, 대학추천서와 함께 구성된다면 학생의 학습과정과 능력을 비롯해 다양한 인성적 측면을 아우르는 자료가 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한 다양한 입학전형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대학이 각자의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또 성적중심의 일차원적 개인 능력을 중



합적인 다차원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될 수 있으므로, 잘 정착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다만 선발이 요구하는 교육의 내용과 경험의 범주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국가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을 존중해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토론자의 사견

가. 교육의 본질

-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는 활동: 다른 덕목, 가치, 목표 등의 수단이 아닌 활동
- 학교 교육의 사명: '국민' 양성(학업성취, 진로, 생산성, 공동체 참여 등)

나. 교육기회 균등

- 배분적 정의
- '자유주의적' 입장?

다. 대학입학전형 제도

- 평가 방식으로 교수-학습의 양식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 외현적 증거에 의존하여야 하는 평가의 본질
- 고부담 평가에 부수될 수밖에 없는 '전략적' 대응
- 대학 입학 적격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 프로그램(전공)에 따라 달라야 하는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가?
-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어야 하는가?
- '교육적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어야 하는가?
- 전형제도는 '텍스트'인가, '실제'인가?
- 대학은 입학전형제도와 관련해서 얼마나 자주적일 수 있는가?
- 대학입학전형제도는 국가 수준에서 표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가?



제15회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토론회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MEMO



|| 부. 2nd 지정 토론문

토론문

✦ 김학운 || 수도여고 교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



제15회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토론회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현행 제도 속에서의 입시제도 개혁 방안

김학윤(수도여고 교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부회장)

허경철 박사님, 홍후조 박사님, 조자룡 선생님 모두 우리나라 교육 부분의 최고 전문가로서, 입시 문제의 현황을 잘 이해하고 예리한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본다. 각 발제문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로 한다.

1. 허경철 박사의 발제문에 대한 의견

1) 공교육 본질 회복과 입시 개혁 방향에 대해서

① 허경철 박사님은 교육 전문가답게 교육의 본질이라는 용어부터 근원적으로 검토해 들어간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가르치고 배우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제거한다.”는 것과 더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도록 가르치고 배우게 한다.”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런 개념이 공허하고, 추상적이고, 무방향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바람직한 성장’에 대한 의미 분석과 방향 제시를 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전인(全人)과 공인(公人)으로서 성장 발달”을 제시한다.

② 그러나 전인이나 공인이라는 개념 또한 공허하기는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전인과 공인’은 공유할 수 교육적 가치인가. 그리고 그런 개념이 현 시점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보편적 본질적 교육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그칠 것 같지 않다.

③ 그런 점에서 전인, 공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사회의 주류 교육관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의 주류 교육이 전인 교육인 것처럼 간주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부정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예컨대 6~70년대 반공 교육, 90년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더 나아가 일제 강점기 황국신민화 교육, 이처럼 교육은 시대 상황에 따라 한계를 드러냈고, 지금도 합의와 동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다. 예컨대, MB 정부 하에서 실시한 역사 바로 이해하기 교육과 교육과정 개편, 전경련에서 발행한 사회보조 교과서, 더 나아가 정부의 탄압을 받았던 전교조에서 만든 통일 교육 지침, 시사 관련 교육 지침서, 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노동교육 등도 마찬가지 아닐까.



④ 어쨌든 허 박사님이 주장한, 성장 발달의 기회가 공평히 제공되는 것, 전인으로서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못하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개 속이고, 아전인수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⑤ 허 박사님은 대입제도 개선 방향으로, 대입 적격자 선발에 기여, 초중등 정상화에 기여, 사교육비 경감 유도, 교육의 공공성(공정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입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교육 전문가답게 입시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성장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현재의 입시 제도의 문제로 ㄱ) 선발 기준이 지적 영역에 치우쳐 있다는 것, 수능 점수, 학생부 교과 점수 ㄴ) 지적 영역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의 지적 영역을 선발 기준이 된다는 것, 암기력 중심의 단순 지식 중심, 사고력, 창의력, 종합력 등 고등 사고 능력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본격적인 서술, 논술, 수행 평가가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교육 전문가로서 예리한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⑥ 그러나 허박사님은 대학의 성격을 엘리트 교육 기관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예컨대 '적격자 선발', '지식뿐만 아니라, 지성의,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 중시' '고등 사고 능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전제에는 '대학은 누구나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소수 인재만이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입시 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교육관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인 대학 교육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 전체의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안일까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본인의 생각은 상위 서열의 대학의 입시를 전제로 국가 교육 정책 방향을 논하는 것은 옳은 관점이 아니라고 본다.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는 능력자 적격자가 중요하겠지만, 대학교육 대중화 시대에 국가적으로 박서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 대학생은 모두 대학 수학능력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또 개별 대학의 발전이 아니라 국가 교육이나, 전 대학의 발전 방향을 논해야 하고,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 대학 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입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⑦ 또 하나 의문시 되는 것이 합리적 입시, 공정한 입시를 중요한 입시 문제 해결의 초점으로 보고 있다는 의구심이다. 물론, 지금까지 입시 문제는 합리적인 입시, 공정한 입시를 표방해왔다. 과거에 내신에서 수능, 수능 중심 체제에서 논술, 그리고 대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때에 내세웠던 명분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입시 문제의 핵심 가치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학이 소수 엘리트 전유물이 아니고, 80% 이상이 들어는 상황에서 대학은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 그리고 국가는 이들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책무라는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입시 문제를 다루는 기준은 공정성, 합리성 보다는 교육의 공공성 입장에서, 또 일정의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받도록 안내하는 것이 올바른 입시 문제 해결의 접근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① 허경철 박사는 내신 중심의 입시 제도에 비중을 둔다. 한 때 개혁진영에서도 교육 불평등 시정 방향에서 주장했던 방안이고, 내신 등급제가 '내신 부풀리기' 방지와 '고교 평준화'를 전제로 한 대입시 방안이고, 실제로 내신 중심의 입시가 이루어질 경우 교육 불평등이 해소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신 중심의 입시가 현재에 대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② 내신 중심의 입시가 치열한 입시 경쟁은 그대로 두고,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하니 성적을 둘러싼 가까운 친구간의 갈등, 내신 관련 사교육비 증가 등의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교사의 평가권이 보장되지 않는 속에서 내신 중심의 입시는, 교사들도 공정성, 투명성에 얽매어 교육적 소신을 제대로 펼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고, (내신의 선택적 반영)에 따른 비입시 과목의 홀대와 과목관의 형평성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③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 차에 따른 불만(일시적으로는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으로 무마를 시켰지만), 더 큰 장애는 특목고 확대, 학교 다양성 정책에 따라 학교 평준화가 해체됨에 따라 내신 중심의 입시는 보편화 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는 현실적 상황이다.

④ 허경철 박사는 서울대의 지역 균형 선발에 큰 의미를 두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은 지역균형이라는 이름하에 내신 중심의 입시를 했는데, 이를 입학사정관제로 변경하는 것은 내신 무력화의 의미이고,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사실 현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입학 사정관제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입시이다. 국제화 전형, 외국어 전형은 거의 100% 외고, 특목고, 자사고, 강남이 독차지하며, 결과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⑤ 그리고 허경철 박사의 교육 불평등 시정을 위해 특별전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그 한계를 냉정히 생각해보고 좀 더 정밀한 대안이나 다른 방향(대학 개편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한다. 왜냐하면 첫째, 치열한 입시 경쟁에 따른 교육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가장 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구제받는 소수에게는 좋겠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 때문에 고통 받는 대다수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소수 학생들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로 이에 따른 대다수 학생들의 위화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고, 셋째, 대학에 들어간 이후의 적응 문제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능력이 안 되는 학생이 특별 배려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잘 적응하고 실력을 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홍후조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의견

1) 고교 대학 연계를 고려한 타당성을 겸비한 입시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① 홍후조 교수는 교육과정 이수가 대부분 학생의 선택에 맡겨지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영미식 교육을 비판하고,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정별 특성화를 고려한 방식을 모델로 놓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고교 대학 간의 학습 연계, 진로 맞춤형 대입시를 설계하고 있다.

② 홍 교수는 대입시 설계는 사회 전체, 교육 전체의 병리를 치유하고 새로이 문화 국가를 건설하려는 보다 크고 깊으며 근본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사회 과학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입시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이랄까 문제 분석 입장인데, 단순히 좁은 의미의 입시제도 문제로 보지 않고, 교육시스템 전체의 문제,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본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대입시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대입시에 교육적 의미를 부여한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③ 하지만 첫째 의문은, 홍 교수는 현재의 대입시는 물론 앞으로도 '대입시'가 큰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입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화 된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막강한 힘은 대입(대학)이 초중등 교육 전체는 물론, 우리 교육 전체를 좌우하고, 대학 입시는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런 대학과 대학 입시가 중시되는 현상이 정상일까? 그리고 현재가 그렇다고 하여 미래에도 그래야 할까? 현재 입시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 전체를 좌우한다고 하여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전제로 입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학 입시는 말 그대로 고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고, 대입시는 정상적인 대학과 정상적인 고교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만 할 때 대입시가 가지는 무게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④ 둘째는, 현재의 대학 시스템을 전제로 대입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우리 대학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대학이 학문과 연구의 요람이라는 것은 옛말이고, 대학이 취업 준비 기관화 되고 있고, 심지어 대학도 산업이라는 말을 국가 지도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의 분과 학문 체제로 존재하는 대학이 가장 큰 기득권 집단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그리고 지적 종속의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학문 재생산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대학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대입 제도 안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학이 지향하는 (개혁)의 상을 제시해야 하고, 고교 대학의 연계란 그런 대학의 상을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홍 교수는 대학 개혁의 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예컨대 성대, 중앙대처럼 산업(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이 추구하는 모습인가 아니면, 경희대처럼 인간과 사회 및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고등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학의 모습인가에 대해서라도 밝혔으면 한다.

⑤ 셋째, 타당한 대입시를 만든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의문이다. 홍 교수는 초중등 교과를 대



학과 연계 속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 필요 없는 과목을 구분하는데, 입시에 종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필요 없는 과목은 초중등 교육에서 정말 필요 없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초중등 교육은 대학 입시와 연계되기도 하지만, 모든 학과가 대학 교육과의 연계를 전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00%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선발을 전제로 적격자가 있고, 탈락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고교 교육이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할 경우, 그리고 고교 교육이 대학 준비를 위한 것이라면, 대학에 가지 않고 탈락된 사람은 대학 입시에 선발된 학생들을 위해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홍 교수가 대학 입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 예컨대, 대학과 연계되지 않는 입시, 총점만 생각하는 것, 대학이 모집 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 등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입시 문제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대안이 초중등 교육의 진로 적성을 바탕으로 하는 입시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⑥ 홍 교수는 선택과 집중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지지하면서, 또한 대학 자율화보다는 정성과 진로를 안내하기 위한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MB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을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홍 교수는 유독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면서도, 대학의 (선발) 자율성, 고교의 자율성(교육과정의 자율 편성권, 교사의 평가 자율성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홍 교수는 관료 중심의 입시안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진로 적성 연계 대입 안에서는 교육청이나 관료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 같다. 예컨대, 계열별, 모집 단위별, 진로별 바탕 학습교과나 활동을 정리해 주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역할을 중시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대학 입시 자율화 정책 하에서도, 학생 선발권을 가진 대학이 그런 방향을 제시하면 되고, 고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이 예상되는데(현재와 같이 고교가 대학에 예속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입시안에 대해 그렇게 냉철한 비판을 가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된다.

⑦ 중도 탈락의 문제

중도 탈락이 부실한 대학 입시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전공 관련성 있는 공부를 한 학과는 중도 탈락이 적은 반면, 그렇지 않는 학과에서는 중도 탈락이 많다는 근거까지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 그것이 핵심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해 전공 연관 교과를 학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중도 탈락의 주된 원인이 전공 연관성 없는 관련 공부 때문일까, 아니면 그것보다 학벌이나 대학 서열에 따른 대학 진학 때문일까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후자의 원인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현재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적성이나 진로보다는 대학 서열을 중시하고, 적성과 흥미를 좇아 학습을 했더라도, 막상 대학을 선택할 때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진로 희망을 쉽게 바꾸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특목고 학생들도 동일계 전형을 하지 않고, 과학고가 의대나 법대를 진학하고, 외고가 의대를 진학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흥미와 적성, 또는 전공 연관성 학습의 중시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⑧ 타당한 입시 설계 바탕으로서 고교의 진로별 학습 기회 제공에 대하여

홍 교수는 ①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존중하는 학습 기회 제공 ② 고교의 진로별 학



습 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고교 교육이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진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학습을 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 연계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교육의 재편 방향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흔히 초중등 교육은 보통 교육이고 교양과정이고 대학은 전공과정이라고 하는데, 초중등 교육을 대학 교육의 하위 개념으로만 보는 시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현재의 대학에서도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대중의 교육적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교과나 지식보다는 인간과 사회 및 세계에 관한 보편적인 지식과 삶의 지혜 등 교양 상식이 주가 되고 있고, 과거 대학에서 중시했던 전문적인 지식과 전공 관련성은 대학원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학을 보통교육 기관처럼 생각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양대학이 많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초중등 교육과 적성 진로와의 연계를 중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인가 의문시된다. 게다가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이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대부분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현실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우리 교육 개혁의 방향을 정할 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해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대학이라면 몰라도 초중등 교육은 다양한 경험과 세계를 접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⑨ 홍 교수의 고교 대학 연계와 입시제도 대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4 수능 개편안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인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확대, 중핵교과와 선택 교과로의 과목 재편, 집중이수제, 수준별 수업 등이 국영수 중심의 입시 교육과정으로 귀결되고, 의도한 학교의 다양화나 특성화가 아니라 입시 교육으로 획일화되고 있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많은 현장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통제 불가능한 학교 붕괴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홍 교수는 국영수는 너무 통합되고,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는 너무 분산되어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2014 수능 개편안에서 국영수 과목 수능 선택제와 사탐 과탐 과목 축소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수능 개편안이 입시 문제의 해결은커녕 국영수 중심의 입시 교육 강화와 사탐 과탐 과목의 확대, 그리고 학생과 대학의 서열과 차별을 합리화해 주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2) 홍 후조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종합 비판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연계되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고교와 대학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할 측면’도 있다. 고교 교육은 민주 시민으로서 교양과 상식을 쌓는 것이지만 대학 교육은 고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문이나 전문성 계발과 관계되는 서로 다른 측면이다. 그런데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의 연계만을 강조할 경우, 고교 교육은 대학 입시에 종속되고 결국 고교 교육은 입시 교육으로 치달으면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고교 교육은 대학 입시와 관계되지 않는 과목이나 입시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 예컨대 인성 지도, 문예제 활동, 사회성 향상 등도 모두 입시와 관련지어 의미가 부여되고, 입시에 따라 교육의 목표나 내용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생각해도 교육 과정에 따라 입시 과목이나 전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도, 입시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교육 과정을 바꾸거나 성격을 변화시켜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방



법으로는 입시 때문에 흔들리는 고교 교육의 질곡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 입시를 위해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기보다, 힘들지만 대학 입시 때문에 고교 교육이 흔들리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상화와 입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교 교육과 연계된 입시가 아니라, 입시에 흔들리지 않는 공교육, 더 나아가 대학 체제와 고교 체제 개편을 전제로 한 입시제도 개혁안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입에서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입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대학이 선발의 자율성만을 내세워 고교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때 정부는 대학이 공공적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역할의 범위를 극히 한정적으로 바라본 것도 문제이다. 정부의 역할을 단지 대학과 고교 및 사회 간의 갈등의 조정자나 전형 과정에서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대학 개편이나 고등 교육 정책 변화, 또는 입시 문제를 야기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봐도 현 정부는 대학의 구조 조정과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대학 교육은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대학 교육을 통해 국가가 사회적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대학 교육은 공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조자룡 선생님의 발제문에 대한 의견

1) 공교육 본질 회복 및 입시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서

① 조자룡 선생님의 발제문은 단순히 입시 개혁안이 아니라, 공교육 본질 회복과 불평등 완화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발제문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바탕에서 입시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조자룡 선생님은 입시 문제의 원인을 교과 전문가의 전문성,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과 외의 외부 간섭(정치, 관료, 기업, 부패 사학)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서 교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시, 평가도 교육과정 내용, 위계,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견이 교과 전문가로서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정치나 관료들에게 의해 왜곡된 현재의 입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고 생각된다.

③ 그리고 공교육의 목표로서 공민성 강조하였고, 개인적인 능력 개발만이 아니고 서로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인간 등의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현실적인 문제로, 자사고, 특목고, 학교 선택제 등과 공교육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대안으로 성취 수준과 교사별 평가, 직업관련 특수 목적고를 제외한 인문고 통합, 교육과정에 이외의 수업은 방과후나 학교 밖에서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④ 하지만, 공교육 왜곡의 핵심이 어려운 학습 내용, 암기식 교육과 그에 바탕을 둔 평가 때문인가? 그리고 교육 문제가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의문이다. 물론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교육 내용이 존재하고, 이런 문제는 개인이 아닌 국가 사회가 담당하고, 국가 교육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⑤ 조자룡 선생님의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 대해서 단위 교과(영어 교과)의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별 교과를 떠나서 전체 입시 문제를 분석할 때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도구과목이라고 하는 영어가 권력이 된 상황, 그리고 국영수 중심의 입시에 대해서는 교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이다.

⑥ 또한 조자룡 선생님의 주장인 교사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교사나 교과 전문가의 의견 중시가 올바른 입시 문제 해결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 문제(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 암기식 교육으로 인한 고등정신 능력 배양 기회 박탈, 국영수 중심의 편파적 지식 습득) 등의 문제가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⑦ 입시 문제는 우리 교육 전체 시스템의 한 부분이고, 현행 입시제도(MB 정부의 입시 자율화 정책)는,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화 정책, 교사 평가 및 성과급, 일제고사와 같은 성취도 평가, 자사고 등 학교 다양성 정책 등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정책이고, 그 핵심은 자율과 경쟁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개편의 방향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을 전문성 제약으로 보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놓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현재의 입시 자율화 정책이 교사들의 전문성 발휘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고, 자율성이 도리어 관료 권력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핵심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2) 구체적인 대입 전형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① 조자룡 선생님은 내신, 공인영어, 외국어시험, SAT, AP 봉사, 자치, 동아리 등 교내 활동 중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동의, 어느 부분은 동의하지 못한 면도 있다. 먼저 그런 부분들의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는 물론, 그런 조치들이 입시에 의해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가도 살펴봤으면 한다. 예컨대, 학교 생활기록부 및 추천서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지만, 부작용,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 예컨대 몇 년 전 공정택 교육감은 물론, 광노현 교유감도 서술형 논술형 및 수행평가 강화 및 확대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조항의 비율만 강화시켰고, 내용과 방안은 교사 자율에 맡기는 조치들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런 조치가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되묻고 싶다. 그리고 입학 사정관제 강화도 마찬가지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하여 학생 활동(자치, 적응, 행사, 봉사)이나 창의 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입학 사정관제 확대에 따른 학교 행사의 폭증, 각종 경시대회의 교내 개최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그 증거물 들, 현장 교사로서 추천서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그것이 공정한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는가? 그리고 언론에 등장한 입학사정관제 관련 부작용들이 긍정적인 제도를 정착시키 는 데 나타나는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봐야 하는가 생각해 봤으면 한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들이 교사 개개인의 도덕성이나 전문성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치열한 입시 경쟁 상황에서, 그리고 교사의 평가권이 없는 상황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 제도의 본질인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우리 경험으로 보면 과거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들. 예컨대 수행평가(내신에 반 영), 논술고사, 비교과 영역의 입시 반영 등은 모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보다 왜곡시키는 측 면이 더 많았다. 그것을 그 제도 자체 성격이 아니라고 우기기보다는 치열한 입시 경쟁의 상 황 때문에 그렇게 성격 지워지는 그 제도 자체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4. 현실적 조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시제도 대안

앞서 몇 차례 말했지만 지금의 대학은 소수 엘리트만 가는 시대가 아니고, 80% 이상의 학 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교육 대중화 시대이다. 이제 소수 학생을 선발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격과 능력만 되면 희망하는 학생 모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입 제도가 특정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과를 선택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 입장에서 공교육의 본질 회복이고 현 시점에서 교육 불평 등을 해소하는 입시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현 실적인 입시 개혁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과 경쟁의 틀을 벗어나서, 협약과 배정 및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추천 등의 방식을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분적인 미봉책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교육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변화여야 한다.

셋째, 개별 대학 입시 개혁 안이면서도 대학 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의 마중물 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입시 정책의 보완이 아니라, 신자유주 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교육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모집 인원의 일정 부분(예컨대 1/2 정도)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 한 학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대학이 자격 요건이나 추천 기준에 대해 아무런 기준 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총원 인원이나 학과의 인원 조정만 하고, 각 고등학교에서 자발적으 로 선발 기준을 정하여 대학에 학생을 추천하고, 대학은 이렇게 추천한 학생들을 무조건 받아 들이는 방식이다. 이런 방안은 전형 방법에 따른 공교육 왜곡 현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 안이라고 생각되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한 안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 전형을 도입할 경우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있겠지만, 입학 후에 학사 관리만 잘 한다면 그러한 부작용도 크지



않고, 나타난 문제점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학에서 선발하고 기르고자 하는 인재 상을 먼저 제시하고, 각 학교나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학생들을 추천하고, 그렇게 선발하여 기른 인재들에 대해 대학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입장에서 고교, 대학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입학 이후 맞춤형 교육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과감히 개별 대학의 전형 틀에서 벗어나 다른 대학과의 통합 전형과 학점 교류, 나아가 통합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 방식은 다른 대학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쉽지 않겠지만, 대학의 책무성을 중시한다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런 소규모 학교들이 통합 전형을 한 후 전 대학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대학 체제 개편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이후 학사 관리를 엄격히 하고, 모집 정원 외에 일정 자격과 수준을 넘은 학생들을 예비 학생으로 선발하여 이들에게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학력 이수증을 부여하여 이들 일부를 낙오된 학생 자리에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는 방식, '선발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학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이 도입될 경우 지금과 같은 무원칙한 편입 제도의 문제점도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부. 3rd 지정 토론문

토론문

✦ 김태균 ||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제15회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토론회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토 론 문

2012년 12월 5일 '교육을바꾸는사람들' 토론회 제출용
김태균(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

본 토론문은 허경철 본부장님, 조자룡 사무총장님, 홍우조 교수님 등 세분의 발제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가능하다면 토론자의 대안적 제안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본고를 구성했다.

우선적으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발제문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토론자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고민의 지점들을 이후 과제로 남겨주었던 발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 토론문의 주제는 '공교육 본질 회복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대입 전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다. 물론, 제목 그 자체만 가지고 현재의 대입 전형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우나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현재의 대입전형이 역설적으로 공교육 본질을 왜곡하고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일정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 하기에 이를 극복하는 즉, 공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완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입 전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모색과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식의 토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1. 홍우조 교수님 발제문 관련

우선 홍우조 교수님의 발제문 '교육본질 회복에 기여하는 진로별 타당한 대입시 만들기'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이다. 의견 구성은 우선적으로 발제문에 대한 각론적 토론자의 의견과 더불어 총론적 토론자의 의견으로 작성 하였다.

“현 입시는 전면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자들이 사회의 특권층을 형성하도록 하는 불공정 사회의 원인제공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홍우조, p33).

발제자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입시제도가 '특권층을 형성하도록 하는 불공정 사회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로 지적을 하였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위 내용을 일단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 현실적으로 불공정 사회의 원인 제공자로서 대입제도가 아니라 대입제도 그 자체가 현 불공정 사회의 결과이자 다시 이를 확대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발제자가 표현한 '불공정 사회'는 아마 토론자가 판단하기로는 사회적 양극화라는 표현과 별반 다름이 없을 듯하다. 이에 '불공정 사회', '사회적 양극화' 라고 불리는 사회적 현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인가? 라는 질문에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자.



“20 대 80의 사회, 대량실업, 빈곤의 세계화, 노동의 종말, 비정규직, 양극화 등 여러 표현들을 통해 지금까지 그 폐해가 지적되어왔다. 그리고 이 폐해들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런 폐해는 더 일반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단점이 특징인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이성백, 2007).”

이성백씨는 사회적 양극화 즉, 불공정 사회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토론자가 판단하기도 1980년 후반 즉 소련이 해체되는 1991년 전후로 몰아쳤던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광풍은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불리는 유럽 중심의 사회 복지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채만수, 2012),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 즉 발제자가 이야기 했던 불공정 사회를 극대화 하는 역할을 했었다.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기원과 형성 관련해서 지주형 서강대 교수의 말을 들어 보자.

“IMF 구조개혁은 금융적 축적에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신자유주의에 부적합하거나 저항하는 집단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약화시키고 도태시켜 한국을 단 기간 내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개발 국가적인 산업 발전과 축적의 논리 대신 새로운 금융적 축적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지주형, 2011).”

물론,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인 한국 사회 또한 전혀 공정하거나, 사회적으로 양극화 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불공정 사회’, ‘사회적 양극화’ 라는 사회적 문제가 1997년 IMF 이후 극대화 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사회’는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IMF 사태로 표현되는 1997년 후반 이래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4년제 대학 졸업자 내부에서는 이른바 ‘명문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병영, 2008). 사회적 양극화가 교육의 현실에서는 임금의 격차를 재생산 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입제도는 ‘불공정 사회’를 야기하는 원인으로서는 역할이 아닌 ‘불공정 사회’의 결과이자 또 다른 형태로 ‘불공정 사회’를 확대 재생산하는 기제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입제도를 ‘불공정 사회’의 원인으로 규정한다면 ‘불공정 사회’를 개혁 혹은 개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실천 활동에 있어 혼란과 혼돈을 야기 시키는 본의 아닌 부정을 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굳이 플라톤의 현상과 본질이라는 철학적 개념들을 들추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반 현상들은 그 사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로부터 원인과 결과 그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결과와 원인으로 변화한다. 만약 이러한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에서 원인에 대한 혼돈은 그 결과를 규명함에 있어 혼란과 혼돈만을 줄 뿐이다. 대입제도가 ‘불공정 사회’의 원인 이라면 결국 ‘불공정 사회’로 규정되는 사회적 본질 즉 신자유주의를 규명함에 있어 많은 혼란과 혼돈 을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지금처럼 전면경쟁을 하도록 하고 부당한 경쟁 속에서 극소수자가 승리를 하도록 조장하면 그들은 다수 패배자 위에 부당하게 군림하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경쟁하지 말았어야 할 (아



직 철모르는) 학생들을 어른들이 대입시라는 전장(arena)에서 부당하게 전면 경쟁시키는 것이다. (홍우조, p35)

기본적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우선적으로 '(...) 어른들이(...)' 라는 표현보다는 경쟁사회 혹은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표현이 더욱 더 발제문을 빚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한축 현재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 관련해서 '아직 철모르는' 이라는 표현은 달보다 손가락을 보는 사족 같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입시는 고교 공부와 대학 공부를 잇는 징검다리(bridge)이다.” (홍우조, p35)

토론자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고민을 하게 해 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현행 대입제도가 초중고교와 대학을 단절시키는 역할로서의 선발형 역할이 아니라 고교 공부와 대학 공부를 잇는 징검다리라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바탕학습은 ‘핵심교과’와 ‘핵심경험’으로 구성된다. 이것들은 타당한 대입시의 요건 중 ‘적격자’에 해당된다. 온전한 대입시는 학생들이 아는 것을 확인하는 교과지식, 지필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할 줄 아는 것을 확인하는 입시이며 그래야만 학생들도 균형 잡힌 공부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교과와 교과의 활동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핵심교과는 각 모집단위의 대학공부에 필요한 것으로서 고교교육과정에서 선 이수 되어야 할 교과이다. 핵심교과는 고급수준으로 많이 공부해야 할 것이며 대수능, 대학별 고사, 학생부로 확인될 수 있다. 반면에 해당 모집단위의 핵심교과에 해당하지 않는 보완이나 교양교과는 각각 중급 및 초급수준으로 공부하면 족할 것이다(홍우조, p45).

토론자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인해 도입된 경쟁 학습(정문성, 2002)으로 인해 해당 시기에 배우지 않아도 될 학습의 내용을 선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노력의 과정으로 발제가가 이야기 한 즉 '고교 교육과정에서 선 이수 되어야 할 핵심교과'와 중급 및 초급수준으로 공부해도 족할 '보완'이나 '교양교과' 수준을 초중고교에서 '보완'이나 '교양교과'를 공부하고 고등교육 즉 대학 초급 시기(현재 4년제 대학의 1-2학년 단계인 교양과목 이수 시기)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함은 어떨까? 라는 질문을 발제자에게 해본다.

"분명한 것은 고교가 지금보다 다양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하려면, 대수능의 고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대수능을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 길목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먼저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들고, 대수능에게 우리가 다양하니 너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양자의 방안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좋겠다.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수업-대입시는 동반해야 교육개혁이 실질적이 된다. 진로맞춤형의 수능부터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홍우조, p67)."

결론으로 홍우조 교수님은 교육본질 회복에 기여하는 진로별 타당한 대학입시 만들기에 대한 제안으로 대입 수능을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 길목을 확장 시키거나 혹은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대해 대학입시를 강제하거나 이를 동시에 병행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단절시키는 대학입시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의 전환 주장에 대해 토론자는 적극 주장하며 이러한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왜 대학입시가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연결하지 못하고 단절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홍우조 교수님의 제안대로 다양한 고교교육과정 혹은 대학입시의 다양성이 보장되면 현재 교육의 문제점 아니 매년 대학 입시철만 되면 살인적 경쟁 교육 시스템 때문에 5-6명의 우리의 청소년들의 수능비관자살 하는 사건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교육비가 줄어 들 것인가?

서열화된 대학에서 그리고 서열화된 학과를 입학해야지만 고임금이 보장되는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 고교교육과정의 다양성과 대입제도의 다양성을 가지더라도 여전히 1등 대학의 1등 학과로 몰리는 현상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 이유는 다양성의 부족이 아니라 다양성을 옥죄는 서열화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2. 조자룡 사무총장님 발제문 관련

“현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위기가 내용은 교육을 이끌어 가는 방향타가 없다는 점이다(조자룡, p69)”

토론자의 판단은 현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방향타가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타가 너무나 분명’ 해서라는 판단이다. 한국 사회 교육의 문제는 시장화 경쟁교육 정책 때문이다.(김태균, 2012). 즉,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적 양극화, 계급화를 확대 재생산 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교육의 역할과 더불어 교육이라는 이름의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 교육 현장은 너무나 철저하게도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 사회는 방향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한 방향타가 존재하는 교육이기에 문제인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가의 교육력 확대이다. 교육을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의 존중, 시민적 리더십의 확보, 국민과 국가의 통합을 만들어 낼 수 없다(조자룡, p70~71).”

조자룡 사무총장님의 글을 보면 우선적으로 ‘국가’ 와 ‘시장’ 그리고 ‘개인’을 각각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론 관련해서 아래 엥겔스의 지적을 보자.

“계급간의 적대행위를 진압할 필요에서 국가가 발생하였고, 그러나 또한 국가가 이러한 계급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는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국가가 된다. 또 이들은 국가라는 수단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이 되며, 따라서 피압박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새로운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대의 국가는 노예들을 억누르기 위한 노예소유주들의 국가였고, 봉건국가는 농민과



농노들을 억압하기 위한 귀족들의 기관이었으며, 근대 대의제국가는 자본에 의한 임금노동의 착취를 위한 수단이다⁷⁾.”

우선적으로 엥겔스의 국가론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즉, 최소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니,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독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 하에서 '국가'와 '시장'을 별도의 개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발제문을 보면서 들었던 고민은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사회 즉, 분명한 방향타(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있는 사회에서 '교육'의 문제를 토론자처럼 '국가'와 분리한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역으로, 소위 진보진영이 권력을 장악하는 사회 혹은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에서의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명박 정권 시절의 '교육'의 문제처럼 진보진영 혹은 노동자 계급 진영에서의 '교육'의 문제를 동일하게 시장이나 개인처럼 '반' 혹은 '비' 국가 권력에게 이월하는 주장을 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계급 사회에서 '교육'은 결국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부문이 아닌가? 그 계급사회가 자본가 사회이건 노동자 사회이건 말이다.

“대입전형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불평등이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초, 중등 교육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차적인 차별의 양상에 해당한다. 이미 차별된 학생들을 평가가 차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늘린다고 해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불평등이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은 기본적 교육 불평등을 중등교육의 과정에서 최소화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조자룡, p71, p72).”

불평등이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고 대입전형은 2차적인 차별의 양상에 해당 한다는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 불평등 즉, 2차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은 기본적 교육 불평등을 중등교육 과정에서 최소화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3. 허경철 본부장님 발제문 관련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용어만큼 우리가 빈번히 사용하는 말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용어이다.(허경철, p9)”

토론자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평학) 이다. 평학에서는 물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공교육의 정상화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교육 이외의 교육 영역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교육 현장이나 대안교육 혹은 사회교육 등 이다. 물론 발제자가 이야기 한 교육의 본질 회복이 곧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에 대한 의미는 이해가 되나 이를 간주하기에는 일정 어려움이 존재 할

7) Engels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국가의 교육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대로 잘 실천되는 학교교육,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교교육, 입시준비보다는 전인적 교육에 더 치중하는 학교교육, 학생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며 가능한 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가 고려되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 선다형 시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평가방식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학교교육 등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모습을 그려볼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모습들이다. (허경철, p10, p11)

조자룡 사무총장님 발제문의 문제의식과 같은데 한 국가의 교육의 설계로 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교육과정"이 발제자의 내용처럼 이 아니라 철저히 경쟁화 하고 시장화 하는 '국가 교육과정' 이라면, 노동자를 천시하고 1등과 승자의 역사만을 기록하는 '국가 교육과정' 이라면,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근무평가, 학교 평가 등 교육 공동체를 서열화 하는 '국가 교육과정' 이라면 이야기가 달라 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4. 종합 토론

우선적으로 다시 한 번 홍우조 교수님, 조자룡 사무총장님 그리고 허경철 본부장님 세분의 발제문이 주고 있는 한국 교육 현실을 바꾸어 내자라는 간절함에 학부모 단체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자면 우선 홍우조 교수님은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현행 대입제도의 다양성을 조자룡 사무총장님은 중등교육과정의 최종 성취기준설정,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 중고교 과정 통합,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이후, 대학수준의 영재교육을 별도로 중등교육 수준에서 국가가 배치, 대학의 교육력과 교육 수준 향상 등을 제안했고, 허경철 본부장님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전인적 공인의 영역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고등 사고 능력을 선발 기준으로 삼는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약자 배려를 위한 상대평가 제도 및 특별 전형 방식 그리고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도 등을 확대 강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대학입시 제도는 한국 사회 시장화 경쟁교육의 완결판이자 출발점(김태균, 2010)이다. 이러한 대학입시는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를 교육의 영역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역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 사회 혹은 국가권력의 관계에서 독자적 영역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없으며 계급사회에서는 지배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서 계급사회를 확대 재생산 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즉, 현재의 한국 교육의 문제는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모순점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이를 확대 재생산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근원적으로 한국 교육 문제의 해결은 사회 변혁의 문제와 동일시 혹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사회변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육문제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토론자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 체제 내에서 최소한⁸⁾의 개량적 요구로 '대학 평준화를 통한 입시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사적 소유와 교육의 시장성 및 경쟁성을 인정하는 즉, 사립대학 및 사학 자본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권력이 운영하는 국공립 대학 중심으로 교육의 개혁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즉 국공립 대학 통합 네트워크로 묶고 이를 무상교육화 하는 것이다. 물론 통합된 국공립 대학은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입시 제도의 경우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는 자격고사화 하고 나머지 사립대학은 대학별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물론 '대학 평준화를 통한 입시제도 개선' 방안 역시 사회적 양극화 혹은 고임금 노동자 배출하는 학과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국가 일반의 공무원⁹⁾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과정 또한 필요하다. 이러하듯 사회 내에서 국가 일반의 공무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에 국공립 대학을 통합 네트워크로 운영을 하고 이에 대한 입시 제도는 자격고사와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사립대학은 자율권을 주되 국가의 지원을 중단한다면 최소한 중등 교육 과정의 정상화는 빛이 날 것이다.

여전히 거칠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그러나 최소한 임금을 둘러싼 양극화와 이를 반영하는 대학의 서열화가 존속하는 한 공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존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동안 수많은 이 땅의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이라는 놈에 의해 사회적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노동자 민중은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세계 최고 금액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이 나면 '불이야!' 하고 외치면서 불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구하러 불길로 뛰어 들어간다. 저 불을 무슨 물로 끌 것인가? 를 고민했다가는 다 타 죽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화 경쟁 교육으로 인해 스스로의 귀중한 목숨을 버릴 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다.

절박함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실재적으로 모두가 살아남는 길을 빨리 찾아야 한다.

8) 그러나 이 또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출현으로 인해 유럽의 복지가 파괴 되듯이 최소한의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조차 부정하는 현실 속에서는 혁명적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다.

9) 일반 공무원, 교육 공무원,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등 공공적 노동을 행하는 모든 노동자



참고문헌

- 이성백 (2007), “사회적 양극화 : 원인과 해법”, 진보평론, 29.
- 채만수 (2012),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쏘련론(상)”, 서울 : 노사과연.
-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 기원과 형성”, 서울 : 책세상, P470.
- 박병영, 2008), “대입전형 제도와 사회적 형평성”, 한국교육개발원, 2008(18), P 1-3.
- 정문성 (2002),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 교육과학사, pp.19~35. 요약.
- 김태균 (2012), “대학 평준화 운동의 현황과 과제”, 평등학부모회 교안, p1-34.
- 김태균 (2010),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한다”, 일반 학부모대상 교육자료, p33-35.



종합 토론



제15회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토론회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



MEMO



제15회 교.바.사. '교육 본질회복 방안 찾기' 토론회
공교육 본질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